FULLER THEOLOGICAL SEMINAR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igital Commons @ Fuller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Korean Studies Center

4-17-2001

제자훈련을 통한 가정사역이 가지는 목회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 화평교회를 중심으로

Sang Tae Choi 최상태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Biblical Studies Commons, Christian Denominations and Sects Commons, and the Christianity Commons

Recommended Citation

최상태, "제자훈련을 통한 가정사역이 가지는 목회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 화평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01.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EFFICIENT HOUSE CHURCH MINISTRY THROUGH DISCIPLESHIP TRAINING: WITH A SPECIAL REFERENCE TO HWAPYUNG CHURCH

written by

SANG TAE CHOI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_____
Nam Hyuck Jang

_____
Jeong Kii Min

_____
Seyoon Kim

April 17, 2001

EFFICIENT HOUSE CHURCH MINISTRY THROUGH DISCIPLESHIP TRAINING: WITH A SPECIAL REFERENCE TO HWAPYUNG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SANG TAE CHOI

APRIL 2001

제자훈련을 통한 가정사역이 가지는 목회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
-화평교회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장남혁 교수

최 상 태

2001년 4월

Abstract

Efficient House Church Ministry Through Discipleship Training: With a Special Reference to Hwapyung Church

Sang Tae Choi

Doctor of Ministry

2001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Ministry Focus Paper is to introduce the House Church Model which is based on discipleship training for thirteen years at the Hwapyung Church.

This paper is composed of ten chapters. In Chapter one I examine the problems in the Korean Church Ministry, and propose alternative methods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Church. In Chapter Two I introduce the present conditions at Hwapyung Church. In Chapters Three and Four I discuss the principle and theory of the House Church Model. Chapters Five and Six deal with the applications of the principle, theory, and actions of the Hwapyung Church. Chapter Seven introduces the fruits of the House Church Model. In Chapter Eight I examine the characters of a healthy church. Additionally, I survey and analyze the Hwapyung Church and thirty churches in an effort to locate characters of healthy churches in Korea. In Chapter Nine I refer to the proposals for fixing and developing the house church model in the Korean Church context.

In conclusion I assert that discipleship training and the house church model are needed in the Korean Church ministry. These ministry tools are biblically based and essential elements for the ministry. I also assert that these two ministry methods are alternative ones that should be applied in the twenty-first Korean Church ministry.

Theological Mentors: Nam Hyuck Jang, Ph. D.

Jeong-Kii Min, Ph. D.

Seyoon Kim, Ph. D.

감사의 말씀

여러 가지 면으로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목회 사역을 하게 하시고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결같이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저와 같은 비전과 뜻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 수고하며 헌신하는 화평교회 평신도지도자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 목회 사역에 동고동락하며 항상 예리한 비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원고 교정에 수고해준 나의 아내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일찍이 저에게 바른 목회가 무엇인가를 삶과 인격으로 그리고 현장을 통하여 보여주시며 가르쳐주신 존경하는 옥한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풀러신학을 공부하는 동안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김세윤 박사님과 논문을 성의껏 지도해 주신 장남혁 박사님과 민종기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그룹 목회의 모델을 찾고 있을 때 현장을 통하여 가정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신 휴스턴 서울침례교회 최영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교회와 소그룹의 성경신학적인 원리와 역사적인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풀러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강의와 책을 통하여 확신과 도움을 주신 리차드 피스(Richard Peace), 개러스 아이스노글(Gareth Icenogle) 그리고 로버트 뱅크스(Robert Banks) 박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직접적인 교제는 없었지만 세미나와 책을 통하여 가정교회의 더욱 확실한 그림을 갖게 해주신 윌리엄 벡헴(William A. Beckham)과 랄프 네이버(Ralph W. Neighbour)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중에도 이 논문을 타이핑하는 데 수고한 한춘경 강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와 같은 분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논문은 결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끝으로 하나님나라와 복음을 위해 삶을 바친 나의 동역자 된 여러 목사님들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2001년 4월 최상태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문제제기 ·····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 3
제 3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4

제 2 장 화평교회 현황 ····· 6
제 1 절 교회 설립 배경과 지역상황 ····· 6
제 2 절 화평교회의 목회철학 ····· 7
제 3 절 화평교회 교육 및 훈련 ····· 8
1. 새 가족반 ····· 8
2. 양육반 ····· 9
3. 제자훈련반 ····· 9
4. 지도자 훈련반 ····· 10
5. 부부성장반 ····· 10
6. 전도폭발 훈련반 ····· 10
7. 중보기도팀 ····· 10
제 4 절 전도를 위한 주요행사 ····· 11
1. 부모사랑 경로잔치 ····· 11
2. 가족초청의 날(혹은 남편 전도의 날) ····· 11
3. '참사랑 축제' 이웃추청 전도집회 ····· 11
4. 소그룹을 통한 관계전도 ····· 12
5. 지역주민을 위한 신앙강좌 ····· 12
6. 기타 ····· 12

제 3 장 제자훈련의 원리와 이론 ····· 13
제 1 절 제자훈련의 정의 ····· 14

제 2 절 제자훈련사역에 대한 성경 신학적 고찰 ····· 15
제 3 절 현실교회에 있어서 오도된 제자훈련과 변증 ····· 17
1. 제자훈련하면 머리만 커진다 ····· 18
2. 보편성을 띤 교회론이 약화된다 ····· 18
3. 제자훈련은 목사의 권위와 봉사사역을 약화시킨다 ····· 19
4. 제자훈련은 편협한 경건주의나 분리주의자로 빠질 수 있다 ····· 19
5. 제자훈련은 훈련자가 훈련받은 사람을 사유화한다 ····· 19
6. 지금은 제자훈련 시대가 아니다 ····· 20
7. 균형있는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 ····· 20
8. 제자훈련은 영성부분이 약하다 ····· 21
9. 제자훈련은 상당한 의식과 좋은 환경을 요한다 ····· 21
10. 제자훈련은 기존 교회의 전통과 제도를 무시한다 ····· 21
제 4 절 제자훈련 사역을 막는 장애요인과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 22
1. 전통적 제도주의 ····· 22
2. 잘못 훈련된 사람 ····· 23
3. 훈련자의 인격 ····· 24
제 5 절 왜 제자훈련이 필요한가 ····· 24
1. 주님이 하신 주된 사역이며 유언으로 명하신 사역이기 때문이다 ····· 25
2.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만 온전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골 1:28) ····· 26
3. 사람 세우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26
4. 사역을 평신도에게 분담하기 위해서이다 ····· 27
5. 복음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27
6. 교회의 모든 사역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 27

제 4 장 제자훈련 사역의 실제 ····· 29
제 1 절 설립 이후 5년까지의 제자훈련 ····· 29
1. 경험부족 ····· 29
2. 자원부족 ····· 29

3. 유동인구 ····· 30
제 2 절 설립 5년 이후부터의 제자훈련 ····· 30
제 3 절 제자훈련 사역의 실제 ····· 31
1. 모집과 자격 ····· 31
2. 훈련대상자 사전 점검 사항 ····· 31
3. 제자훈련 첫모임 진행은 어떻게 하는가? ····· 32
4. 과제물 ····· 33
5. 훈련 방법 ····· 34
제 4 절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서 얻어진 열매들 ····· 36
1. 사람들의 변화와 성숙 ····· 36
2. 유기적인 깊은 관계 형성 ····· 37
3. 사역자의 증가로 평신도 사역 중심의 교회로 성장 ····· 37
4. 모든 사역의 기초가 됨 ····· 38
5. 바른 교회관 확립 ····· 38
6. 교회의 영적 분위기 ····· 38

제 5 장 가정교회 사역의 원리와 이론 ····· 39
제 1 절 가정교회 사역을 하게 된 동기와 배경 ····· 39
제 2 절 가정교회 준비과정 ····· 41
제 3 절 가정교회란 무엇인가? ····· 42
1. 가정교회에 대한 정의 ····· 42
2. 가정교회 사역에 대한 견해(가정교회를 보는 관점) ····· 43
3. 화평교회가 지향하는 가정교회 ····· 45
제 4 절 가정교회의 성경적 역사적 고찰 ····· 46
1. 성경적 고찰 ····· 46
가. 구약성경에서 ····· 46
나. 복음서에서 ····· 47
다. 사도행전에서의 가정교회 ····· 48

라. 바울 서신에서의 가정교회 ····· 49
2. 교회사 측면에서 변천해 온 유사한 가정교회의 형태들 ····· 50
가. 초대교회에서 중세시대 ····· 50
나. 종교개혁 시기와 그 이후 ····· 51
다. 현대교회와 가정교회 ····· 53
제 5 절 가정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 55
1.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 55
2. 왜 가정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가? ····· 57
제 6 절 가정교회 성장을 막는 장애요인과 그 해결방안 ····· 58
제 7 절 왜 가정교회를 지향하는가? ····· 63
제 8 절 가정교회와 다른 소그룹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 65
1. 셀(cell)교회와의 차이 ····· 67
2. 기존 구역(다락방, 속회)과의 차이 ····· 67
3. 교회내 다른 소그룹과의 차이 ····· 68
4. 가정교회와 소그룹과의 관계 ····· 68
제 9 절 가정교회 지도자의 리더십 개발 ····· 69
1. 가정교회 지도자의 자질 ····· 69
2. 리더십 개발을 위한 제언 ····· 71

제 6 장 가정교회의 운영과 실제 ····· 75
제 1 절 가정교회의 조직과 임무 ····· 75
제 2 절 가정교회 진행 순서 ····· 75
제 3 절 가정교회 지도자 훈련과 교육 ····· 77
1. 자격 ····· 77
2. 훈련과 교육 ····· 77
3.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교육내용 ····· 77
제 4 절 가정교회에서 다루는 성경공부 ····· 79
제 5 절 가정교회에서의 전도 ····· 81

제 6 절 선교 협력과 교류 ····· 81

제 7 장 제자훈련을 통한 가정교회 사역의 목회적 효율성 ····· 83
제 1 절 평신도 사역자들로 인하여 돌봄의 문제 해결 ····· 83
제 2 절 평신도 지도자 자신의 변화와 성숙 ····· 84
제 3 절 전체성도의 사역화 ····· 84
제 4 절 관계 속에서의 친밀감 ····· 84
제 5 절 유무상통 ····· 85
제 6 절 인재발굴이 용이함 ····· 86
제 7 절 전도와 선교에 효과적임 ····· 86
제 8 절 교회의 축제분위기 ····· 87
제 9 절 모이는 일 배가 ····· 87
제 10 절 교회사랑 ····· 87
제 11 절 주간 중 사역활동으로 인한 교제 활발 ····· 87
제 12 절 본보기(modeling)로 인한 사역과 준비 ····· 88

제 8 장 건강한 교회들의 특성 ····· 89
제 1 절 화평교회 자연적 교회성장(NCD) 건강 진단 결과 ····· 89
제 2 절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의 설문 조사 결과 ····· 90
제 3 절 화평교회 평신도와 평신도 사역자의 의식구조 설문조사 ····· 93
1. 평신도 설문조사 ····· 93
2. 평신도 사역자 설문조사 ····· 95

제 9 장 가정교회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제언들 ····· 97
제 1 절 일반적인 것들 ····· 97
제 2 절 실제적인 것들 ····· 99

제 10 장 결론 ····· 103

제 1 절 사람을 세우는 제자훈련 ····· 103
제 2 절 이상적 공동체인 가정교회 ····· 104
제 3 절 제자훈련과 가정교회와의 관계 ····· 105
제 4 절 대안과 제안 ····· 105

부록 1 ····· 107
부록 2 ····· 114
부록 3 ····· 124

참고문헌 ····· 131

VITA ····· 133

표 목 차

〈표 1〉 제자훈련 받은 사람 수 ····· 30
〈표 2〉 가정교회별 선교지 현황 ····· 83
〈표 3〉 자연적 교회성장 설문조사 결과 ····· 91
〈표 4〉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의 설문조사 결과 ····· 93
〈표 5〉 셀 그룹의 일생 ····· 102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지금 한국교회는 양적, 질적인 면에서 어려움에 봉착하여 위기를 맞고 있다. 규모면에서 세계적으로 50번 째 안에 드는 교회들이 절반 정도를 한국교회가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21세기를 맞이한 한국교회는 표류하고 있다. 교회가 복음의 진리가 아닌 온갖 비본질적인 것으로 각색되고 있다.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대신에 극단적인 신비주의, 공리주의, 물질주의, 심리학적 측면에 경도되어가고 있다. 성경적인 가르침의 원리를 떠나 불신자들의 취향에 영합하는 태도가 만연되고 있다.[1] 세상적 경영철학을 목회에 그대로 도입하여 성장이나 부흥이라는 미명 아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 있는 목회자들에게 진 겟츠(Gene A. Getz)는 좋은 방법론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것은 교회의 목적이나 행사 그리고 프로젝트가 개발될 때마다 기본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할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둘째는 역사적 증명이 있는가, 셋째는 문화적 가치를 수반하고 있는가'[2] 하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이와 같은 검증을 통한 목회철학은 낡은 구시대의 자태라고 생각하고 영적 성숙에는 관심조차 없이 좋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시도해 보려고 든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지난 1960년 이후에 급성장 하던 한국교회가 1990년대에 와서는 그 성장이 둔화되면서 사회적으로는 공신력을 상실하고 내적으로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어가고 있다. 한국갤럽조사에 의하면(1998년 기준) 개신교를 떠나 타종교로

---

1) John MacArthur, 우리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서울: 생명의 샘, 1996), 55-73.
2) 이성희, 교회 행정학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5), 31-37.

간 사람과 믿다가 그만 둔 사람이 천만 명이나 되며 또 앞으로 종교를 가질 경우 기독교를 택하겠다는 사람도 다른 종교에 비해 제일 적게 나타났다.[3] 사회에서 종교가 미치는 영향력에서도 역시 기독교가 제일 약하게 나왔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한국교회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현상들이다. 한국교회가 천만 이상을 자랑하며 25퍼센트가 기독교인이라 하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왜 한국교회가 사회적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공신력을 잃고 있는가? 왜 교회가 정체 내지 침체되어 가고 있는가? 왜 한국교회가 중병을 앓고 있는가?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판을 치고 있는가? 왜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는가? 문제는 목회자들의 바른 교회관, 분명한 목회철학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성경적인 바람직한 목회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목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성경에 바탕을 둔 목회를 할 뿐 아니라 성경에 충실한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드러내야 할 때가 이르렀다. 약 30년 전부터 세계도처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소그룹(cell group) 운동이 21세기 최근에 들어와서는 다발적으로 우리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그룹의 이름을 가진 여러 유형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소그룹에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의 관심이 갈수록 증폭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목회자 자신들이 전통적인 기존 목회 스타일과의 갈등과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대처할 만한 능력의 한계를 목회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꼭 알아야 할 사항은 아무리 목회자들이 소그룹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사역에 힘을 쓴다 해도 소그룹의 생명은 지도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 세우는 제자훈련 사역을 소홀히 한다면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소그룹 운동은 얼마 가지 아니하여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 세우는 제자훈련은 목회의 한 방법이 아니라 모든 사역의 기초이며 목회의 최고 전략으로서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힘써야 할 본질적인 사역이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 11-12).

제자훈련 사역과 가정교회사역은 목회의 본질로서 참 교회상을 회복하는 사역이

---

3) 이원규, "한국교회의 현실과 전망" (한국목회자협의회 창립대회 주제강연, 1998년).

며, 성경에서 말하는 본래의 교회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사역이다. 이 사역은 주님께서 하셨던 방법이며 기독교 역사상 나타났던 교회 중 가장 원형인 초대교회가 행했던 일이기 때문이다. 여러 시대를 지나는 동안 교회를 갱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핵심 된 두 가지 방법이 친밀한 공동체와 평신도들의 사역의 재발견이었다.4) 바로 제자훈련 사역과 가정교회 사역은 이 두 가지를 발전시키는 데 최고의 환경이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제자를 만들라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무시하고 있으며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다. 이 두 사역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유기적 상관관계를 가진 목회의 두 기둥이며 두 사이클이라 할 수 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바른 교회관과 분명한 목회철학의 토대 위에서 변함없이 확신 있게 사역할 수 있는 길은 제자훈련사역과 가정교회사역임을 연구자는 본 논문을 통하여 밝히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한국교회는 지금 21세기 교회상을 여러모로 모색하고 있다. 교회성장 일변도의 프로그램에 지친 한국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한 교회의 모델을 갈망하고 있다. 목회의 프로그램이나 테크닉 혹은 기교나 과정에 한계를 느낀 목회자들은 성경에 근거한 목회철학을 가지고 확신에 찬 목회 하기를 원하고 있다.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하여 목회현장에서 이론적 근거와 실질적인 방법을 통하여 얻은 것들을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나누기 원한다.

첫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독교의 원형적 모델교회라고 하는 초대교회가 가정교회였음을 밝히면서 목회적 기능면에서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는 화평교회의 가정교회 현장을 소개함으로써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밝히는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둘째, 사람을 세우는 제자훈련사역의 가치성과 중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 사역이야말로 목회의 본질이며, 선택사항이 아닌 반드시 교회가 해야 할 필연적 사역임을

---

4) William A. Beckham, 제2의 종교개혁, 터치 코리아 사역팀 역 (서울: NCD 출판사, 2000), 8-9.

강조하고자 한다. 제자훈련에 대한 오도된 내용을 밝히고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고 현장에서 얻은 열매들을 알리고자 한다.

셋째, 균형있는 목회를 지향하게 하는데 이 논문의 목적이 있다. 한국교회는 지금 바른 교회관 및 목회철학의 빈곤과 부재현상으로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 한국교회가 제자훈련과 소그룹목회의 필요성과 중요성들은 인정하지만 어느 한 부분으로 치우치는 극단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본 연구자는 건강한 목회는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함을 목회현장을 통해 얻은 것들을 중심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제 3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논문은 본 연구자가 화평교회의 목회현장에서 약 13년 동안 성경적인 원리와 방법을 토대로 하여 얻어진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려고 하였다. 본인은 이 논문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보다는 성경신학적, 선교학적 근거들의 바탕 위에 현장목회분석방법을 주로 택하였다. 이 논문에서 화평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하였지만 주로 제자훈련과 가정교회사역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제 1장 서론에서는 오늘날의 한국교회 목회현실의 문제점과 연구자가 왜 이 논문을 쓰게 되었는지, 그 동기와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목회 회복을 위한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제 2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화평교회의 상황과 목회철학 그리고 제자훈련의 원리와 이론을 목회적 이해를 위해 성경신학적 입장에서 밝히고 화평교회의 제자훈련 사역의 실제와 열매들을 다루면서 이 사역의 중요성과 가치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제 5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가정교회 사역의 근거를 성경적역사적 입장에서 밝히고 화평교회의 가정교회 사역의 실제 현장을 공개함으로써 오늘날 목회자들이 가정교회 사역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제 7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논문 제목대로 제자훈련을 기초로 한 가정교회 사역이 가지는 목회적 효율성들을 목회 현장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제 10장은 요약과 결론 부분으로 사람을 세우는 제자훈련 사역이 가정교회의 기초가 되었음을 밝히면서 제자훈련사역과 가정교회사역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서 성경적인 사역이며 서로 뗄 수 없는 유기적 관계의 사역인 동시에 21세기에 가장 바람직한 본질적 교회사역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성장이 둔화되어 가고 혼란에 빠져 표류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성경적으로 성숙해지는 길은 주님이 친히 하시었고 초대교회가 행하였던 제자훈련사역과 가정교회사역임을 강조하면서 이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부록으로 화평교회 평신도 의식구조 설문조사와 평신도 사역자 설문조사 그리고 전국에서 건강하다고 판단되는 몇몇 교회의 설문 조사 결과를 실었다. 또 가정교회 준비에 관한 자료들과 화평교회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몇 분의 간증도 함께 삽입해 놓았다.

제 2 장
화평교회 현황

제 1 절 교회 설립 배경과 지역상황

화평교회는 1988년 1월 30일에 담임목사의 가족을 비롯하여 3명의 형제들과 더불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된 교회이다. 초기에는 인구 5만 정도가 되는 위성도시로서 주위 환경이 농촌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읍 소재지였다.

이러한 지역에 화평교회가 54번째로 설립되었다. 일년을 지내다 보니 교인의 절반 이상이 서울이나 다른 도시로 이사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장기간 양육을 목표로 삼고 목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개척 5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지역 환경의 변화가 많아져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바뀌어지고 인구는 20만 명 이상으로, 그리고 고양시 전체로는 80만 명의 인구로 증가하게 되었다.

개척 초기에는 '배우고 가르치며 행하는 교회'라는 슬로건과 비전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 훈련하는 일에 역점을 두었으나 자원의 빈곤과 훈련자 자신의 경험 부족과 지역적 상황변동으로 힘들었다. 그러나 2-3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점점 교회가 안정과 견고함 속에서 성장해가기 시작했다. 교세가 확장됨에 따라 제자훈련 사역이 더욱 활기를 찾기 시작했고 1998년 이후부터는 제자훈련에 기초한 가정교회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교회가 평안함과 든든함 속에서 꾸준히 성장해오고 있다.

화평교회는 2000년 말 현재 장년 500여명과 주일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 400여명이 모이고 있으며 7명의 교역자와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 100여명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으며 젊은이들이나 남자 성도가 교인 숫자의 비율로 보면 많은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두 가정을 해외에 선교사로 파송했으며 각 가정교회별로 수십개 처

소에 선교협력사역을 하고 있다. 2000년 말 현재 화평교회는 서른 여섯 개의 가정교회가 있다. 일년 예산 5억 중 약 1억 정도를 선교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교회 건물은 상가 800m²를 매입 및 임대하여 예배실 및 교육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1999년에는 화정지구에 2500m²가 되는 땅을 교회당 부지로 구입하였다. 교인들의 나이는 주로 30대 후반과 40대가 70퍼센트를 차지하며 생활 수준이나 학력 수준은 중간 이상이라 볼 수 있다.

제 2 절 화평교회의 목회철학

화평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일'과 그리고 훈련된 사람이 역량껏 일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가정교회임을 깊이 인식하고 여기에 목회의 에너지를 집중 투자하고 있다. 교회가 새 가족을 왕처럼 생각함으로 그분들과 교제하기 위해 주일 낮에 각종 회의를 하지 않고 평일에 한다. 화평교회는 건물이나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서 교육과 훈련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생명력있는 사역을 위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보다는 단순하면서도 실제적인 사역에 진력하고 있다. 그 결과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정착이 되고 확실하게 발전과 진행이 되어 상당한 열매들을 경험하고 있다. 교회가 사역중심, 관계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각종 회의를 대폭 줄이고 단순한 친목모임이던 남녀 전도기관들을 폐지하므로 성도들이 생산적인 사역에 힘쓰게 되었다.

화평교회가 설립 이후 가졌던 비전과 현재 가지고 있는 비전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988년 - 1993년 '배우고 가르치며 행하는 교회'

1994년 - 1997년 '말씀으로 훈련하는 교회, 서로 섬기는 교회,
가정 중심의 교회, 선교명령에 적극 순종하는 교회,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

1998년 - 현재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소그룹 중심으로 성숙해가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 구현에 진력하고 있다.

화평교회의 목회철학을 여섯 가지로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말할 수 있다.

첫째, 공동체(관계)를 중요시하는 교회

둘째, 성경에 기반을 둔 사역에 힘쓰는 교회

셋째, 평신도를 훈련하여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

넷째, 훈련받은 사람이 사역하는 교회

다섯째, 균형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교회

여섯째, 주님 닮은 사람을 많이 만들어 내는 교회

일곱째, 주님의 지상명령에 적극 순종하는 교회

이와 같은 목회 철학을 과거 화평교회의 역사나 현재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역이나 혹은 교회의 분위기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제 3 절 화평교회 교육 및 훈련

화평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 훈련교재는 대부분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상태 목사가 교회실정과 교인들의 수준에 맞추어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1. 새 가족반[5]

새 가족반은 화평교회 교육 프로그램의 입문과정에 해당한다. 새로 등록한 교인은 누구나 다 참여하여 교회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게 하며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이해하게 할 뿐 아니라 신앙생활의 기초를 정립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다섯 주 동안 실시하는 교과내용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매주일 오전에 실시한다).

제 1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제 2과 구원의 확신

제 3과 바람직한 신앙생활

제 4과 교회생활의 중요성

제 5과 화평교회의 비전과 소망

---

5) 최상태, 새 가족반 교재 (서울: 화평교회 출판부, 1996), 1-34.

2. 양육반6)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에게 더욱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프로그램으로서 13주 동안 실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교회생활과 일상생활의 조화를 이루도록 가르친다.

교재는 새 가족반 교재와 마찬가지로 담임목사가 교회의 상황과 교인들의 수준에 맞게 만들어 낸 것인데 교과내용은 아래와 같은 것이다(매주 화요일 낮과 저녁에 실시하고 있다).

제 1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제 2과 성경은 어떤 책인가?
제 3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제 4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제 5과 성령은 누구신가?
제 6과 교회란 무엇인가?
제 7과 그리스도인과 예배
제 8과 그리스도인과 교제
제 9과 그리스도인과 전도
제 10과 그리스도인과 기도
제 11과 그리스도인과 시험
제 12과 균형잡힌 신앙생활
제 13과 하나님나라

3. 제자훈련반

양육반 과정을 마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정으로 약 35주 동안 실시되는 훈련이다. 제자훈련반은 화평교회에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중 가장 심도있게 훈련하며 역점을 두는 훈련과정이다. 사람을 세우는 훈련으로 Ⅰ부는 기초편, Ⅱ부는 교리편, Ⅲ부는 생활편으로 나누어져 있다. 주님의 제자로 성숙한 삶을 살도록 집중적으로 훈련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상세히 다루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

---

6) 최상태, 균형잡힌 신앙생활 (서울: 화평교회 출판부, 1999), 1-58.

략하겠다.

4. 지도자 훈련반

평신도 사역자로 세움 받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제자반 과정을 마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훈련과정이다. 화평교회는 이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평신도 사역자로서 자격을 부여하는데 현재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대부분은 이 과정을 마친 사람들이다. 훈련 내용은 리더십(3주), 소그룹 인도법(3주), 성경개론(3주), 교회론(3주), 인간관계론(2주), 공동체훈련(2주)이다.

5. 부부성장반

본 교회 부부를 대상으로 13주 동안 실시되는 가정사역 프로그램으로 성경적인 결혼생활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돕는다. 교과내용은 자아치유, 관계회복, 영적인 인격성숙, 자녀교육 및 교육관 등을 다룬다. 특히 생활과제를 많이 내 주어 부부관계와 가정생활의 변화를 꾀한다.

6. 전도폭발 훈련반

전도의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전도자를 세우는 훈련과정이다. 담당 목회자가 신실한 두 명의 훈련생을 모집해서 16주 동안 훈련시켜 복음제시를 능숙하고 확실하게 하도록 훈련한다. 그 훈련생이 다시 훈련자가 되어 두 명의 훈련생을 모집해 16주 동안 훈련시켜 전도자를 배가시킨다. 16주를 한 학기로 하는데 처음 4주는 훈련생들은 훈련자의 전도현장에 따라가서 복음제시를 하지 않고 다만 훈련자의 전도활동 상황만을 관찰한다. 다섯째 주되면서 훈련생은 훈련자 도움을 받아서 복음제시에 동참하다가 후반부에 전체 내용을 떠맡아 복음제시를 주도하게 된다. 전도폭발의 핵심은 현장실습이며 한 사람을 전도자로 만드는데 훌륭하다.

7. 중보기도팀

중보기도자로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두 시간 이상 기도제목들을 가지고 중보기도한다. 진행순서는 찬양과

말씀 그리고 중보기도 순으로 하는데 때로는 격식 없이 진행할 때도 있으며 개인과 교회 상황에 따라 산기도, 체인기도, 심방기도 등을 실시하며 끝나고 나면 대부분 식사 교제를 나눈다.

제 4 절 전도를 위한 주요행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지역의 복음전파와 성도의 성숙한 신앙생활에 상당한 효과와 열매를 거두고 있는 주요 행사들을 몇 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1. 부모사랑 경로잔치

교회 주변에 사시는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재미있는 순서를 진행하고 음식과 푸짐한 선물을 제공한다. 이때 담임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노후를 소망중에 살도록 권면 한다. 초청 방법은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의 방송매체와 홍보물을 통하여 하며 지역의 인사 몇 명을 초청하여 함께 하기도 하는데 매년 3백명 정도의 노인들이 참여하여 즐거워하시기도 하지만 지역에서 반응도 상당히 좋다. 앞으로 지역에서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계속 개최할 계획이다.

2. 가족 초청의 날(혹은 남편 전도의 날)

매년 5월에 실시되는데 믿지 않는 가족만을 대상으로 한다. 가족 중 초청대상자를 미리 교회에 알려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초청장을 보내어 그날에 가족과 함께 참여하도록 한다. Ⅰ부는 찬양 및 환영, Ⅱ부는 메시지, Ⅲ부는 식사와 교제 그리고 다양한 가정생활 세미나를 갖는다. 현재 화평교회 식구 중에 이때 초청되어 결신된 사람들이 많다.

3. '참사랑 축제' 이웃초청 전도집회

화평교회 일년 행사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사로서 100일간 전체 성도들이 집중적으로, 단계적, 체계적으로 준비한다. 평상시에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이웃을 초청하여 원색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결신의 기회를

주는 행사이다. 성탄절을 전후하여 2-3일간 진행되는데 보통 진행 순서는 찬양/ 간증/ 드라마/ 복음선포 및 초청/ 특송 혹은 특별연주/ 교제 및 다과 등으로 한다.

수년 전부터 실시해오는 '이웃초청전도집회'는 해가 거듭할수록 교회 안에 정착이 되어가고 있으며 이때에 결신되는 사람은 매년 수십 명씩 되어진다(2000년 기준. 처음 참석자 128명, 결신자 58명).

4. 소그룹을 통한 관계전도

화평교회는 역동성있는 전도에 있어서 가정교회야말로 가장 좋은 환경임을 깊이 인식하고 평상시에 관계를 가지며 지내던 이웃을 초청하여 1년에 한 두 차례 각 가정교회 별로 전도 이벤트를 갖는다. 진행 방법은 각 가정교회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실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식탁교제/ 찬양/ 간증/ 복음제시/ 특송/ 선물증정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이러한 가정교회 전도 이벤트를 통하여 등록자나 결신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

5. 지역주민을 위한 신앙강좌

해마다 가을이면 3일 혹은 4일간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신앙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불신자들을 위한 강좌와 타교인을 포함한 성도들을 위한 강좌를 겸하며 행복한 가정생활, 바람직한 교회생활, 건강을 위하여, 자녀교육, 성공적인 전도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마을의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매년 성황리에 실시하고 있다.

6. 기타

그외에도 전교인 및 가정교회 별 수련회, 야유회, 체육대회, 노인관광, 매 주일마다 그룹별 체육행사나 등산대회,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다채로운 방법으로 성도들끼리 교제하며 하나님나라의 아름다운 화평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제 3 장
제자훈련의 원리와 이론

무슨 사역을 하든지 원리와 방법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사역은 오래 지속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그 누군가가 주장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확실한 이론과 객관적 토대 위에 증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제자훈련 사역을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토대 위에서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진행되어 온 사역이다.

교회의 제도와 조직, 전통 및 형식은 시대적문화적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원리에 근거한 제자훈련 사역은 시대와 역사와 문화를 뛰어넘어 변하지 않는 초자연적인 본질적 사역이다. 더군다나 이 사역은 주님이 하셨던 주된 사역이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사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 삼는 일은 모든 신자와 교회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7)

제자훈련은 사람 세우는 사역이다. 목회의 핵심은 사람이다. 사람이 변하고 성숙해야 교회가 건강해진다. 그러므로 사람 만드는 본질적인 제자훈련 사역에 목회를 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2)

---

7) Bill Hull, 모든 신자를 제자로 삼는 교회, 박영철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4), 21.

제 1 절 제자훈련의 정의

예수의 제자란 넓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일컬어 제자'라 한다. 좁은 의미로는 "온전히 성숙되어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하기도 한다.

마태는 '열두 제자와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가리켜 제자라 보았고(25:15-20), 마가는 예수의 제자를 '열두 명'으로만 국한시켜 제자라고 말한다(3:13-18; 4:34-35).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있으며(10:1-20) 요한은 '상당수의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말하고 있다(6:66; 8:31). 사도행전에서는 '인격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11:26)을 제자라고 말한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신령한 자'(6:1), 에베소서에서는 '온전한 사람'(4:13), 고린도전서에서는 '장성한 자'(14:20), 골로새서에서는 '완전한 사람'(1:28)을 제자라고 가르치고 있다.[8]

그러므로 제자훈련이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르치고 훈련해서 예수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 예수처럼 살게 만드는 것이다. 제자훈련은 예수를 닮아가는 데 강조점을 둘 뿐 아니라 그가 하신 사역에 동참하고 계승하여 그리스도의 왕국을 구현케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제자 만드는 일을 훈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제자훈련이 기성교회의 전통적인 교육방법보다는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목표나 방법에 있어서도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강한 의지가 훈련이라는 말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9]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며 성숙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죄성을 가진 인간은 훈련을 통해서만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다. 빌리 행크스(Bille Hanks)는 "전통적인 교회가 복음전하는 일에 실패한 이유는 교육을 통해 전달해주려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10]

---

8)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 1999), 130.
9) Ibid, 193-194.
10) Bille Hanks and William Shell, 제자훈련, 박광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113-126.

제 2 절 제자훈련사역에 대한 성경 신학적 고찰

제자도의 배경을 보면 구약에서는 '제자'란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고 다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즉 스승과 제자 관계 정도로만 표현되었을 뿐 제자라는 개념 자체도 찾아보기 힘들다. 신약적 의미에서 제자란 말은 선생을 모시고 지내는 학생을 가르쳤다. 특히 헬라문화권에서는 선생을 따르고 배우고 섬기는 사람을 제자라 하였다. 유대사회에서는 랍비와 제자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율법(토라)이었는데 제자는 랍비를 통해 토라를 배웠던 것이다.11)

헬라문화권에 있었던 유대사회에서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과 다른 제자들이 랍비들을 따르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표면적인 면에서 랍비들의 모범을 따르고 배운다는 점에서는 같게 보였지만 예수와 제자 사이에 있는 유기적 생명적 관계나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주도권적인 면에서는 이방세계의 랍비와 그 제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점이었다.

1. 복음서

먼저,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께서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 일을 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동일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다

'제자가 되다'라는 동사는 복음서에 6회, 사도행전에 19회밖에 나오지 않으나 '제자'(mathetes)라는 명사는 264회 이상 나온다.12)

제자들을 부르심(마 10:1-5; 막 3:13-19; 눅 9:1; 10:1; 요 20:21)

제자들에게 명하심(마 28:19-20; 막 16:15-18; 눅 24:44-49; 행 1:8)

이와 같은 두 부류의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다. 아울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주된 사역은 제자를 삼는 사역이었다는 점이다. 수많은 군중을 향하여 목회하셨지만 그에게는 세 제자, 일곱 제자, 열두 제자, 칠십인 제자들이 있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께서 군중에게 투자한 시간보다 제자들과 보낸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 그리고

---

11) Watson David, 제자도, 문동학 역 (서울: 두란노, 1994), 17-18.
12) Ibid., 17.

마지막 가시면서 그 사역을 훈련된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온 족속을 대상으로 하여 제자 삼는 사역에 주력할 것을 부탁하셨다.

2. 초대교회

초대교회 사도들도 제자 세우는 사역에 주력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행 2:42-47; 2-7장) 사도들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 그리스도 중심적 모형에서 교회 중심적 모형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면서 예수 제자 삼는 일에 주력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도들은 사람을 세워서 전세계에 복음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행 13장). 바울 역시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목회하는 동안 제자훈련사역에 힘을 다했다(행 20장).

3. 왜 서신서에서 제자란 말이 사용되지 않는가

'제자삼으라'는 예수의 지상 명령이 서신서에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교회는 더 이상 제자 삼는 사역에 중점을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실제로 제자란 말이 사도행전 21장 16절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13]

누가는 제자란 말 대신에 '형제들', '그리스도인', '신자들'이란 말로 광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바울도 그의 서신에서 제자(μαθητης)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마데테스'의 동사형인 '만다노'(배우다)라는 말을 쓰고 있다.

왜 제자란 말이 서신서에서 사라졌는가? 평신도를 깨우는 제자훈련 사역으로 평생을 헌신해온 옥한흠은 "제자란 말이 서신서에서 사라지고 '온전한 자' 혹은 '완전한 자'란 말로 제자라는 말 대신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전 14:20; 엡 4:12; 골 1:28; 딤후 3:17). 제자란 말이 예수의 지상사역 때까지만 적합한 용어로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맞는 '온전한 자', '완전한 자'라는 말로 대치하게 된 것이며, '제자'란 말이나 '제자 만들라'는 말씀이 서신서에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14]

미국 복음주의 자유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빌 헐(Bill Hull)은 서신서에서 제자란 용어가 사라진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

13) Bill Hull, 모든 신자를 제자로 삼는 교회, 22.
14)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131-133.

첫째, 바울의 회심이 26년이 지난 때 누가는 제자라는 말 대신에 형제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표현하여 제자란 말을 소수의 사람이나 열두 제자에게 국한시키지 않았다. 제자란 말이 그리스도 중심적 성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의 서신에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둘째, 서신서들은 복음서나 사도행전처럼 역사성보다 다분히 교육적이고 교훈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서신서 저자들의 배경과 훈련이 다르기 때문이다. 바울은 히브리와 희랍문화적 배경에 익숙해 있는 사람으로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기에 제자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타문화권에 있는 수신자들이 '제자'란 용어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자', '본 받는 자', '성도', '부르심을 입은 자'란 말들을 사용하여 복음 전파에 장애받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다.15)

넷째, 제자란 말이 서신서에서 사라진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적 모형에서 전환되었기 때문에 제자란 말 대신에 다른 언어들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30년 세월이 지나면서 다차원적인 대중 속에서 제자란 말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변화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16) 그러나 단어가 바뀌기는 했을지라도 제자도의 원리는 결코 소멸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람을 훈련해서 보내는 제자 사역은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나 승천이후나 초대교회나 바울서신에서나 똑같이 주된 사역으로 강조되고 있다. 제자란 단어가 침묵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시대적 상황이나 문화적 여건으로 제자도의 원리와 정신 그리고 그 중요성은 예수님 당시나 바울 당시나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승되는 것이다. 시대적, 문화적 상황에 따라 제자란 이름이 바뀌고 제자 훈련기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형식과 방식과 표현은 달리할 수 있지만 사람 세우는 제자 사역은 본질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결코 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제 3 절 현실교회에 있어서 오도된 제자훈련과 변증

앞에서 살펴본 대로 제자훈련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

---

15) Bill Hull, 모든 신자를 제자로 삼는 교회, 23.
16) 정성구, "차세대를 위한 제자훈련의 평가와 전망", 목회와 신학, 1995년 7월호, 49.

과 그의 서신을 받는 자들이 힘써 왔던 본질적인 주된 사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보면 제자훈련에 의심을 품거나 제자훈련을 목회의 핵심으로 보지 않고 목회의 한 일면이나 교회의 한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많다. 그리하여 제자 훈련 사역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원리가 빠진 인위적이고 방법론적인 사역들을 도입하여 그것을 제자훈련 사역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한 결과로 인하여 교회는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채 뚜렷한 목회 철학과 교회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성장의 열쇠를 찾는 일에만 급급한 사람들이 많다. 왜 많은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들이 본질적인 제자 훈련 사역을 포기하고 있는가? 어떠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기에 제자훈련하는 일을 소홀히 하며 무시하고 있는가?

제자사역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제자훈련하면 머리만 커진다

이러한 생각은 제자훈련을 성경공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과거에 제자훈련을 성경공부 방식으로 했던 사람들의 경험이기도 하다. 성경공부시켜 놓으니 일을 하지 않고 지도자만 괴롭히더라는 것이다. 그러나 제자훈련은 성경공부가 아니다. 성경공부는 제자 훈련의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아니다. 제자훈련은 머리도 커지고 가슴도 뜨거워지게 하는 훈련이며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성숙해지게 만드는 과정이다. 여기의 문제는 지도자가 제자훈련을 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보편성을 띤 교회론이 약화된다

훈련하는 지도자가 바른 교회관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제자훈련은 교회의 체질을 바꾸는 훈련으로 바른 교회관을 정립하게 하는 훈련으로서 보편적 교회관을 약화시킨다는 생각은 오해이다. 제자훈련 받은 사람이 다른 기성 교회로 이동했을 때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라면 제자 훈련받은 사람이 잘 적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그리할 때 제자훈련 받은 자가 바른 동기와 태도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다.

3. 제자훈련은 목사의 권위와 봉사사역을 약화시킨다

제자훈련 사역은 평신도들 누구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게 하는 훈련이다. 평신도 사역의 극대화를 가져오게 하는 사역이다. 그리고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 교회와 지도자들을 섬기게 하는 훈련이다. 그러므로 강단사역 혹은 목사의 권위나 봉사사역이 풍성하고 높아지고 성숙해지는 것이지 결코 약화되는 것이 아니다. 혹 어떤 이들은 제자훈련하면 평신도 사역의 극대화로 목회자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두려워한다. 이러한 생각은 제자훈련 사역을 해보지 않았거나 제자사역에서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의 말이다. 오히려 제자훈련은 목회자의 권위나 강단사역과 봉사사역을 성경의 기초 위에 섬기고 사역하도록 강화시키는 훈련이다. 목회자의 권위가 더 높아지고 봉사사역이 더 강화되는 훈련이 제자훈련 사역이다.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은 하루빨리 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만인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평신도들을 동역자로 만들어 사역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의 권위와 봉사사역이 갈수록 땅에 떨어지고 형식만 남게 될 것이다.

4. 제자훈련은 편협한 경건주의나 분리주의자로 빠질 수 있다[17]

데이빗 왓슨(David Watson)이 제자도에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위험성이 제자훈련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훈련자가 온유와 겸손 그리고 사랑과 진실함으로 훈련했을 때 훈련 받은자가 결코 편협한 경건주의자나 분리주의자로 전락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훈련받은 자에게 사역의 현장을 주어서 교회와 이웃을 섬기도록 도와준다면 그렇게 빠질 가능성이 없다. 제자훈련에서 강조되어지는 부분도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이다. 세상을 도피하거나 극단적인 신비주의나 광신적인 신앙은 용납하지 않는다. 오히려 제자훈련은 사람을 바람직한 신앙인으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

5. 제자훈련은 훈련자가 훈련받은 사람을 사유화한다[18]

제자훈련의 목적이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 예수의 삶과 인격과 생각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훈련인데 훈련자가 훈련생을 자기 닮은 사람 만들어 조직으로 묶어 꼼짝못하도록 동여매는 것을 제자훈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현상들이 한

---

17) David Watson, 제자도, 88.
18) 정성구, "차세대를 위한 제자훈련의 평가와 전망", 47.

국교회 안에 실제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인 교인들이 많아서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지탄을 받고 공신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자훈련은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훈련이 결코 아니며 이 세상이나 사이비적인 종파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훈련자(지도자)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모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는 철저한 신본주의 사상에 근거한다. 훈련자는 세례요한(요 1:23, 27; 3:30)이나 바울(고전 11:1)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제자훈련해야 할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6. 지금은 제자훈련 시대가 아니다

앞장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제자'란 말이나 '제자 만들라'는 말이 서신서에 나오지 않는다고 이 시대는 제자훈련 시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즉 시대적 상황에서 제자훈련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지금은 셀(Cell)모임을 강화 시킬 때이다, 어떤 이들은 리더십(leadership) 시대이다, 어떤 이는 멘토링 시대라고 주장한다. 제자훈련은 한물간 사역으로 지금은 시대와 상황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대와 상황은 변해도 제자훈련 사역은 모든 사역의 바탕이 되는 본질적인 사역으로서 교회가 변함없이 시행해야 할 것이다.

7. 균형 있는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

피훈련자는 훈련자인 지도자에게 절대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하여 비판적 사고나 객관적으로 사물을 보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을 쇠뇌해서 자기가 의도한 사람을 판에 찍듯이 만들어 내지 않는가? 그러나 이것은 제자훈련의 근본 철학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 지적한 말이다. 신학훈련이나 인격 훈련이 결여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훈련하면 얼마든지 기형아적인 사람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나 제자훈련은 평신도 한사람 한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워 예수 닮은 사람으로 배워가게 한다.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힘쓰며 하나님과(수직관계) 사람과(수평관계)의 조화된 관계를 이루도록 하는 훈련이다. 훈련생들로 하여금 선교적인 책임과 아울러 사회적인 책임을 의식하고 소명

을 다하도록 하게 하는 훈련이다. 그래서 제자훈련은 교회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다 거룩함을 강조한다.

8. 제자훈련은 영성 부분이 약하다

제자훈련하는 교회는 성경공부는 강한데 기도가 약하다느니 혹은 지식은 많은데 전도 열매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선입관이다. 오히려 제자 훈련은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는 영적인 훈련이다. 제자훈련은 기도훈련이며 전도훈련이다. 결코 제자훈련을 영성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과 양육과 헌신과 재생산등 영적 성숙을 제자훈련의 목표로 삼아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다.

9. 제자훈련은 상당한 의식과 좋은 환경을 요한다

계층의 벽을 깨뜨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력이나 의식수준이 낮은 지역이나 열악한 환경에서는 할 수 없다고들 한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의 가르침의 원리가 아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보라. 어부들, 세리와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택하여 세우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제자훈련은 남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 그 대상과 눈 높이에 맞게 다양하게 창의적인 방법으로 훈련하면 되는 것이다. 제자훈련의 성패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달린 것이지 훈련받을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창의적인 방법으로 지역과 대상에 따라 제자훈련을 할 수 있고 놀라운 변화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다.

10. 제자훈련은 기존 교회의 전통과 제도를 무시한다[19]

이렇게 믿는 고로 제자훈련을 하지 못하는 두 부류의 목회자들이 있다. 하나는 전통과 제도를 파수해야 한다는 강한 집념 때문에 다른 하나는 전통과 제도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기존체제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자훈련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제자훈련은 교회의 전통과 제도주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할 수 있는 것이

---

19) Bill Hull, 모든 신자를 제자로 삼는 교회, 107-109.

사실이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안일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셨고 그후 사역에 놀라운 부흥과 발전을 가져왔다(행 2, 13장). 그러나 삼십 년이 지난 후 히브리서를 보면(히 5:11-6:4) 신학적으로나 실천적인 면에서 퇴보되고 제도주의와 전통에 빠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전통과 제도화된 방식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제자훈련을 하지 않고 교회 내에 둥지를 틀고 안락한 지대에 머문다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말 것이다. 전통과 제도를 두려워한 나머지 제자사역을 교회가 게을리 한다면 이전보다 교회는 더 퇴보할 것이며 세계 복음화는 하나의 환상에 불과 할 것이다. 어떠한 희생을 지불하는 일이 따른다 할지라도 제자훈련은 해야 한다.

제 4 절 제자훈련 사역을 막는 장애요인과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한국교회는 목회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하고 교인들의 사고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와 있다. 본 장에서는 한국적인 상황에서 제자훈련을 해나갈 때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몇 가지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전통적 제도주의

기존 전통적 교회는 변화를 두려워한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교회도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 진리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지 않으려면 문화적인 것들에 대해 대담하게 변신해야 하는데 전통적 교회는 변하지 않기로 작정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도 제자훈련 사역이 성경에 기초한 본질적인 사역임을 믿는다면 이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선 제도화된 전통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앞장에서 언급했듯이 초기 예루살렘교회가 한때 제도주의에 빠져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안주하며 만족하려 했다. 복음증거가 열방으로 분산되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한 채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 있었다. 이 때 하나님이 이들을 흩으셨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안디옥 교회가 훈련된 제자들을 세계 선교를 위하여 파송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제자 삼는 일과 복음 전파와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이러한 전통적 제도주의의 장벽을 제거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를 보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비본질적인 전통적 제도의 장벽을 깨뜨리지 못하여 제자훈련 사역의 시도를 주저하고 있다.

해결책: 과감히 평신도들에게 사역을 분담시킴으로 해결할 수 있다. 긍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서 제도주의 장벽이 깨질 수 있지만 인간 편에서는 사역을 평신도들에게 분담해줌으로써 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현대교회는 목회자만이 중요한 영적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머리로는 모든 신자들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과 은사가 있다고는 알지만 교회내의 실질적인 사역들을 전문 사역자인 교역자들에게 절반이상 의존하고 있다. 심지어 일을 맡기면 목회자의 목회 태만으로 여기거나 하찮은 일로 인식하는 일들이 있다. 이러한 제도주의적 장벽을 과감히 제거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는 평신도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사역의 장을 열어주어야 한다. 훈련된 교인들에게도 영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담이나 설교나 교육이나 심방이나 대표기도 등을 과감히 맡겨야 한다. 목회자는 평신도들도 사역자들이고 아울러 동역자들임을 인식하고 그들에게도 주지 시켜야 한다. 이것이 제도주의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길이다.

2. 잘못 훈련된 사람

수년 혹은 수십 년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고 교회를 포기했던 사람, 타교회 다니다가 개인적 사정이나 지역적 상황으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 과거에 성경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과 또 기도원을 많이 다니며 열심히 기도하고 경건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과 기독교 계통에서(학교, 기관) 사역했던 사람 등이 오히려 처음 교회 나와 등록하고 때가되어 제자훈련 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 힘이 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물론 그들 가운데 잘 훈련된 사람도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다. 잘못 훈련된 사람들의 일차적인 책임은 그들을 지도한 목회자들과 주위의 신앙적인 배경을 환경을 들 수 있겠다.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선입감이다. 교회나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선입감이다.

해결책: 우선 지도자 자신이 신뢰를 쌓는 일이다. '말과 행실과 사랑,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좋은 본을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소그룹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그 다음 할 일은 제자훈련의 중요성과 가치성을 가르치라. 그리할 때 그들의 삶과 인격에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잘못 길들여진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 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이 제자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대상에 따라 많은 시간도 걸리겠지만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면 큰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

3. 훈련자의 인격

제자훈련에 가장 큰 장애는 훈련생보다 훈련자 자신이다. 훈련하는 사람의 인격과 삶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가에 따라서 훈련생도 영적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나게 된다. 그러므로 지도자 자신이 철저히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훈련생도 예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다"는 말씀이 여기에 적중한 말씀이다. 예수 닮은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제자훈련 이라면 먼저 지도자 자신이 예수 닮은 사람으로 성숙해가야 한다. 그러므로 훈련자는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 받는 자 되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단히 경건훈련을 쌓아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충고하였다.

전통적인 제도주의 장벽, 잘못 길들여진 사람들의 장벽, 그리고 훈련자 자신의 장벽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뜨리며 극복해 나갈 때 제자훈련 사역과 복음 전파는 효과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확신한다.

제 5 절 왜 제자훈련이 필요한가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기 위해서 혹은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혹은 교회 연합을 위해서 제자훈련하는 것이 아니다. 제자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밝힌 것처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

데이빗 왓슨은 제자훈련의 필요성을 다섯 가지로 밝히고 있다.20)

---

20) Watson David, 제자도, 82-86.

첫째, 전통적인 기성교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리적, 도덕적 결핍으로 인하여 심각하게 동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헌신이 너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현재 수많은 교회들이 방향감각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사역에 참여해야 함을 성경적으로 조명해주며 바른 동기와 자세를 가지고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기 위해서이다.

다섯째, 교회 전통으로 복음 전파 능력이 교회에서 경시되어 있고 교회에 위임된 전도 사역이 부흥사나 기타 몇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제자훈련을 목회의 한 방법이나 기술로 생각하고 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제자훈련은 목회 최고의 전략이며 핵심인 동시에 교회사역 그 자체이다. 그것은 제자훈련이 사람을 세우는 중요한 본질적인 사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제자훈련을 기필코 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살펴 볼 수 있다.

1. 주님이 하신 주된 사역이며 유언으로 명하신 사역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복음서를 살펴 보라. 예수께서 하신 주된 일이 제자사역이시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일도 제자 만들라는 말씀이다. 어찌 그의 제자인 우리가 혹 교회가 유언으로 남기신 지상최고 명령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

제자로 삼는 교회의 저자인 빌 헐은 제자 삼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이며 제자사역은 모든 교회와 신자들을 위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반드시 제자 사역에 힘써야 하는데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교회로 하여금 이 사역을 하도록 가르치셨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제자 사역에 친히 본을 보이셨다.

셋째, 신약시대 제자들이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였다.21)

---

21) Bill Hull, 모든 신자를 제자로 삼는 교회, 13.

2.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만 온전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골 1:28)

제자(disciple)란 말과 훈련(discipline)이라는 말은 어원이 같다. 제자로서의 삶은 훈련의 삶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수께서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인간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는 인격의 성숙이나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바울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봐 자기를 쳐 복종시킨다"고 고백하고 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은 훈련되지 않고서는 부패하고 타락한 성품에서 나오는 습관을 이기기가 어렵다. 그래서 월터 헤릭슨(Walter A. Henrichsen)은 그의 책에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22]라고 말하였다.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훈련은 필수적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므로 제자는 훈련된 사람이다. 제자훈련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3. 사람 세우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제자훈련을 해야하는 세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다.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고 둘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한다(엡 4:12). 오늘날 교회가 사람 세우는 일을 먼저 하지 않고 일만 맡기니까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문제가 많이 일어날 뿐 아니라 바른 동기와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다.

교회가 제자훈련 사역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제자훈련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 목회를 분담하고자 원하지만 훈련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 삼는 사역은 배가 운동이나 혹은 분담 사역보다도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다. 이 사역이 모든 사역의 기초를 이루기 때문이다. 릭 워렌(Rick Warren)은 "우리는 그룹을 나눔으로 배가하지 않고 우리는 평신도 사역자(리더)들을 배가함으로서 그룹을 배가 시켰다"[23]고 말하였다. 이처럼 사람을 세우는 제자훈련사역은 목회의 생명이며 우선적인 일이며 교회가 해야 할 중대한 사명이다.

---

22) Walter A. Henrichsen, 훈련으로 되는 제자, (서울: 네비게이토 선교회, 1998), 30-41.
23) Rick Warren, 새들백 교회 이야기 (서울: 디모데 출판사, 1996), 405-413.

4. 사역을 평신도에게 분담하기 위해서이다

예수 그리스도나 초대교회 사도들은 평신도와 성직자들을 구분하여 머리 속에 두지 않았다.24)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시민이며 하늘의 백성이다. 즉 왕 같은 만인 제사장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평신도를 목회 동역자로 세우지도 못하고 사역의 장을 열어주지도 않고 목회자 자신이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서로 연락하고 상합(엡 4:16)하는 공동체인데 평신도에게 사역을 인계해 주지 않고 있다. 목회자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혼자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결과로 평신도들은 사역해 볼 기회와 환경을 얻지 못한다. 제자훈련하는 바로 이유는 이러한 교회의 체질을 바꾸어 목회사역을 평신도와 분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복음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제자 삼는 일을 하지 않는 한 영적 재생산이나 각처로 복음 전파할 사람을 파송하는 일이나 복음을 계승할 사람들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보라, 예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았는가? 제자훈련 사역을 교회가 소홀히 할 때 부흥이 산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곧 쇠퇴하게 될 것이고 교회는 이전보다 더욱 비참하게 되고 세상은 여전히 복음화되지 못한 상태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자훈련 사역은 재생산을 가능케 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인 배가의 법칙으로 세상을 복음화시킨다. 그러므로 교회는 용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제자훈련 사역에 힘써야 한다.

6. 교회의 모든 사역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제자 사역은 게을리 하고 프로그램이나 행사에만 급급할 때 그 교회는 종교적인 열심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초만원을 이루게 될 것이며 아울러 그들이 하는 일이나 수고는 전혀 주님과 무관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니 그 동기나 태도가 바르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바로 제자훈련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바른 태도와 동기

---

24) R. Paul Stevens,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서울: IVP, 1995), 12-16.

가지고 사역하도록 돕는 훈련이다. 그 결과로 교회는 모든 사역들이 견고함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된다.

제 4 장
제자훈련 사역의 실제

제자훈련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니 만큼 목회의 본질에 입각한 일이므로 본 연구자는 목회초기부터 여기에 목회를 걸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성경에 기초한 주님이 하셨던 본질적인 사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을 훈련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제 1 절 설립 이후 5년까지의 제자훈련

한 마디로 실패의 연속이었고 열매가 쉽게 보이지 않는 갈등의 시기였다. 그 이유로는 제자훈련에 대한 목회의 경험 부족과 훈련할 준비된 대상자가 없었고 또 다른 이유는 지역적인 상황으로 들 수 있다.

1. 경험부족

본 연구자는 신학교 때 부교역자 시절에 젊은이들 대상으로 성경공부를 지도한 경험은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성인을 대상으로 목회현장에서 제자훈련을 해 본 일이 없었다. 그래서 제자훈련 시 한계에 부딪힐 때 해결 방안을 찾을 수가 없었다. 후에 깨달은 것인데 본인에게는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제자훈련의 방법이나 기술 등에 문제가 있었다.

2. 자원부족

초기에 자원이 없어 아무나 제자훈련 받도록 강요하여 결국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을 하다보니 결국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고 변화와 성숙도 나타나지

않아 많은 한계점을 경험했다. 한 예로 3명의 남자 성도를 데리고 새벽에 제자훈련하는 데 5개월 정도 지나니까 한 명은 이사하고 한 명은 나오지 않고 다른 한 명은 변화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그만두고 말았다.

3. 유동인구

당시 위성도시로 일년이 지나고 나면 등록자의 절반 이상이 서울 등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니까 제자훈련이나 성경공부가 정착이 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남아있는 사람도 부부가 맞벌이하거나 아이들이 하나 둘씩 있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 2 절 설립 5년 이후부터의 제자훈련

이때부터 제자훈련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개척 초기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1994년 3월 국제제자훈련원 지도자 세미나에 참석하여 현장을 보니 지금까지 해왔던 제자훈련에 미숙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동안 주위의 환경도 많이 달라졌다. 주위가 신도시로 발전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이 안정되어 유동인구도 적어졌고 등록하는 숫자도 증가해 제자훈련할 자원이 많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때부터 제자훈련 초기에 겪었던 갈등들이 사라지고 제자훈련에 대한 확신과 재미가 붙었으며 거기에 비례하여 날이 가고 해가 거듭할수록 수많은 열매와 변화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아래 도표와 같다.

<표 1> 제자훈련 받은 사람 수

연도	1988-1992	1993-1994	1995-1996	1997-1998	1999-2000	2001년
수료자	19	17	50	52	42	31(훈련중)

제 3 절 제자훈련 사역의 실제

1. 모집과 자격

가. 본 교회 등록한지 6개월 이상 된 자

나. 양육반(13주) 과정을 마친 자

다. 연령은 만33세에서 55세 미만

라. 가정교회에 현재 출석하고 있는 자

마. 배우자의 허락을 받은 자

바. 1차적으로 가정교회 지도자의 추천을 받은 자

2. 훈련대상자 사전점검 사항[25]

제자훈련자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자원이 없다고 무분별하게 선택하면 일년 가까이 헛수고 할 수도 있다. 훈련자 잘못 선택하면 훈련자나 훈련받는 자가 다 힘들 수 있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자 선택이야말로 제자훈련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사전에 기도를 통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신청자가 없어 숫자가 적어도 꼭 훈련받아야 할 사람을 선택하여 훈련해야 많은 변화와 성숙을 맛볼 수 있다. 또 그 사람으로 인하여 다른 지체들에게 끼치는 영향도 대단한 것이다.

제자훈련 모집광고는 전체적으로 하되 신청자가 많은 경우는 선별 작업을 하고 적은 경우는 그대로 할 수도 있으나 목회자가 평상시에 훈련받으면 주님의 제자로서 크게 헌신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 두었던 사람을 만나서 개별적으로 권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점검해 볼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동기가 무엇인가?

둘째, 제자훈련 받기에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인가?

셋째, 경건생활이나 교회모임은 어느 정도 인가?

넷째, 언제부터 신앙생활했는가?

다섯째, 신앙적 배경이 어떤가?

---

25)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383-384.

여섯째, 구원의 확신은 있는가?

일곱째, 그 동안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해왔는가? 현재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가?

여덟째, 훈련받으면 앞으로 어느 사역에서 헌신하기를 원하는가?

아홉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가?

열째, 훈련받으면 앞으로 평신도 사역자로 쓰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열한째, 신앙성장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

이상의 내용들은 화평교회 제자훈련 후보생들을 두고 사전에 지도자가 점검하는 사항들이다.

3. 제자훈련 첫모임 진행은 어떻게 하는가

훈련대상자가 확정이 되고 입학식과 훈련 시작 일이 결정되면 약 2주전부터 훈련자를 개인적으로 만나 같이 훈련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알리며 훈련자로서 준비사항이나 각오해야 할 점들을 가르쳐 준다. 한 예로 예습이나 복습 그리고 생활 과제 등은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과 세 번 이상 불참할 시는 자동적으로 탈락된다는 것 등을 미리 알린다.

화평교회의 입학식과 수료식은 축제 분위기이다. 먼저 수료한 선배들이나 각 가정교회에서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입학 때의 메시지는 주로 제자훈련을 왜 해야 하는지, 훈련받음으로 얻어지는 유익은 무엇인지 등이다. 입학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훈련생들을 모이게 하여 다음 주간부터 시작되는 제자훈련에 관계된 과제물을 말해준다. 이때 교재 및 바인더 노트, 경건노트, 성경암기카드 혹은 필독서를 배부해 준다.

첫 시간의 과제는 요한복음 전체 읽어오기, 성경구절 열 개를 요한복음에서 암송해오기이다(요 1:12; 3:16; 5:24; 10:28; 11:25; 12:24; 13:34; 15:13; 16:33; 20:31).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교재 1과를 예습해 오게 한다. 첫 시간부터 강하게 함이 훈련에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과제물을 부담 있게 내주는 것이다.

첫 시간 모임 전에 주위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지도자 자신이 적어도 시작 15분 전에 먼저 와서 훈련생들을 기다리다가 오면 반가이 맞아준다. 교회에서 간

단히 준비한 차를 훈련생에게 대접한다.

가. 자기 소개 시간을 갖는다. 화평교회에서는 첫 모임 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를 드러낸다.

(1) 나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혹은 별명)

(2) 초등학교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

(3) 어렸을 때 내가 커서 무엇이 되고 싶었는가? 왜 그런가?

(4)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나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5) 내가 들은 '나에 대한 말'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내용은 무엇인가?

나. 반장과 총무를 선정한다.

다. 자기 고유번호를 알려준다(대개 나이순으로).

라. 간식은 매주 번호순으로 돌아가며 준비하게 하되 보통 일 만원 이내에서 한다. 그리고 일 개월에 한번 정도는 식사를 한다.

마. '하나님 앞에서' 점검표를 나누어주고 사용방법과 유의사항을 전달한다.

그리고 나서 찬양/ 나눔/ 교과내용/ 합심기도 등으로 진행한다. 마지막 순서로는 주간 과제물이나 준비사항 등을 전달하고, 다과나 차로 교제의 시간을 갖고 마친다.

4. 과제물

화평교회는 제자 훈련생들에게 과제물을 내주되 대상에 따라 차이를 둔다. 어떤 훈련반은 매 과마다 독서를 요구하지만 어떤 반은 과제물을 적게 내어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직장반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나 개인의 경건생활이나 각 모임에 참석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엄격하게 한다. 그 이유는 제자훈련반은 개인의 의식변화와 성숙에 역점을 두는 훈련이기 때문이다.

제자훈련 기간동안 생활과제 사례들을 열거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자신이 변화되어야 할 부분 적어오기.

둘째, 자신의 성격 중 장점과 단점 적어오게 하고 훈련받는 동안 자신이 고치고 개선해야 할 점 적어오기.

셋째, 출근하는 남편과 학교 가는 자녀에게 기도해주고 그들의 반응과 느낌 적

어오기

넷째, 남편, 아내, 목사, 가장(총무)에게 편지 보내고 느낀 점 적어오기

다섯째, 남편과 아내 발 닦아주고 느낀 점 적어오기

여섯째, 집안청소 한 주간 동안하고 식구들의 반응과 자신이 느낀 점 적어오기(설거지, 빨래 등)

일곱째, 남이 하기 싫은 일 골라서 해보고 느낀 점 적어오기

여덟째, 제자훈련 받는 동안 확실히 두 사람 이상 전도하기

아홉째, 믿지 않는 이웃 초청하여 식사나 차를 나누고 그들의 반응과 느낀 점 적어오기

열째, 교회 식구들과 교제하여 이름 적어오기(100명 이상, 전화 또는 만남으로)

열한째, 감사한 일 100가지 이상 적어오고 느낀 점 말하기

그리고 독서물 과제는 매 과 나가기 전이나 내용을 다루고 나서 그 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낸다. 어느 때는 독후감 형식으로 적어오게 하되 반드시 느낀 점이나 깨달은 것을 말하게 한다. 어느 때는 같은 주제 가지고 토론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돌아가면서 발표하기도 한다.

5. 훈련방법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정확한 시간에 시작을 하는데 오는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점검표에 따라 표시를 한다. 보통 시작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3시간이 걸린다. 경건생활, 생활과제 및 독서과제 등을 통해서 훈련생들을 훈련하지만 교과내용을 통해서도 철저히 훈련되는 것이 제자훈련 과정이다.

가. 찬양(15분)

찬양은 지도자 자신이 인도하기도 하고 훈련생 중에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데 매주 때와 분위기에 따라 다양한 찬송을 준비하여 함께 드린다.

나. 나눔(45분)

한 주간 동안 일어났던 일 중에 기뻤던 일, 감사했던 일, 어려웠던 일등을 자연

스럽게 나눈다. 성경 읽은 것, 설교말씀, 성경암송, 과제물 등을 하면서 얻은 것들을 나누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들을 나누기도 한다.

다. 본 교재공부(80분)

교재 내용을 다룰 때 지도자 일변도로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례로 돌아가면서 진도를 나가지 않고 자원에 의해서나 상황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 보통 교재를 다룰 때 읽은 사람이 질문에 답하도록 함이 자연스럽다. 좋은 질문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하되 뻔한 질문이나 폐쇄형 질문을 피한다. 그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혹 틀려도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다. 지도자는 항상 칭찬과 격려를 훈련생에게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도자는 정답을 말하지 말라. 훈련생들이 답하도록 계속 질문한다. 교과서적인 답이나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답을 하지 않도록 한다. 자신들이 삶을 통해서 실행하고 경험한 것을 답하게 한다. 그것이 다른 훈련생들에게 힘이 되고 감동이 되기 때문이다.

라. 발견한 축복을 함께 나눔

교과내용이 끝났을 때는 3-4분 정도의 시간을 주어서 공부한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깨달은 것, 결심한 것, 새롭게 발견한 것 등을 정리하게 하고 돌아가며 개인기도나 합심기도 등을 하고 마지막에 인도자가 기도로 마무리함이 좋다.

마. 교제(간식)

마지막 갖는 순서로 간식과 차를 나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훈련생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됨을 깊이 경험하며 훈련생들끼리 관계도 친숙해가며 함께 자라 가는 체험을 하게 된다.

바. 기타훈련

훈련기간 동안에 아래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

훈련생들에게 새벽기도, 저녁기도 주간을 정해주어 기도훈련을 쌓게 한다(예-오래 기도하기, 소리내어 기도하기, 중보기도하기 등을 실시한다). 그리고 기도후원자를 정하

여 훈련기간동안 기도하게 한다. 더불어 수련회, 야유회 등을 1일 혹은 1박2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영성과 친교를 다진다.

사. 수료식

수료식을 앞에 두고 제자훈련생과 배우자를 초청하여 함께 식사하며 교제한다. 그리고 수료식 때는 수료생들의 특송과 은혜로운 간증을 한다. 간증은 전체 하지 않고 훈련생 중 몇 사람을 선택한다. 어느 때는 메시지 후에 모든 수료생들이 함께 나와 훈련기간동안 암기했던 성경구절을 암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수료증과 성적표를 전달한다.

아. 제자훈련 과정 이후

제자훈련 과정을 마치고 나서 계속 훈련을 받거나 다른 사역에 열중하지 않으면 제자훈련 받기 전보다 더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방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도자는 제자훈련 과정을 마치면서 여기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화평교회에서는 제자훈련반 과정을 마친 사람은 지도자반 과정에서 계속 교육과 훈련을 받게 하거나 받은 은사대로 각 교육기관이나 가정교회에서 사역하도록 권장한다. 그리고 전도폭발이나 부부성장반에 들어가 계속 교육받기도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도자반 과정을 마친 사람들에 한하여 평신도 사역자로서 가정교회의 지도자로 사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지도자반 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가정교회 사역을 하면서 지도자 자질향상을 위한 계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그래서 화평교회 성도들은 사람세우는 제자훈련반이나 지도자반 과정을 마치고, 가정교회 지도자로 세움을 입어 쓰임 받는 것을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

제 4 절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서 얻어진 열매들

1. 사람들의 변화와 성숙

사람 세우는 제자훈련에 주력한 결과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변화되

는 것이었다. 변할 뿐만 아니라 갈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고 있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 목회 사역을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변화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경우를 가끔 본다. 그러나 제자훈련을 하면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됨으로 여기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도 제자훈련을 받겠다고 신청을 했다. 그 이후부터는 제자훈련반을 새로이 모집할 때마다 특별한 홍보 없이도 훈련생들이 넘친다.

2. 유기적인 깊은 관계 형성

제자훈련을 받은 훈련생끼리의 깊은 관계나 목회자와의 벽이 없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지체의식을 가짐으로써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이 발전되어 가는 것을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 아름다운 영향력이 훈련받지 않은 다른 지체들에게도 전달됨으로 교회의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로 더욱 변화되어 가고 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성숙한 공동체로 확산되어 가는 것은 제자훈련 사역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인 것이다.

3. 사역자의 증가로 평신도 사역 중심의 교회로 성장

화평교회는 제자훈련 사역으로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것이 교회의 큰 자랑이요 자산이다.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정교회 사역도 짧은 기간이 되었지만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들이 신실하게 가정교회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릭 웨렌의 말을 빌려 말한다면 청중(군중)보다 경기 주자 즉 핵심멤버가 많은 교회로 성장해가고 있다.26)

화평교회는 계급이나 직분 중심이 아니다. 행사중심의 교회도 아니다. 평신도가 이끌어 가는 교회이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심방을 하고 설교도 하고 주일날 대표기도도 한다. 화평교회 평신도 사역자들은 목회자와 똑같은 비전, 같은 목회 철학을 가지고 동역자로서 주의 복음과 교회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고 있다.

---

26) Rick Warren, 새들백 교회 이야기, 150-153.

4. 모든 사역의 기초가 됨

화평교회가 제자훈련 사역에 힘쓴 결과 다른 사역도 좋은 결실을 가져오게 되었다. 제자훈련이 잘 이루어지니 모든 사역의 기초가 되어 정착이 되고 발전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예를 들어 화평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양육반, 전도폭발, 부부성장반, 소그룹의 최고환경인 가정교회 등이 잘 진행되는 이유는 제자훈련이 기초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훈련받은 사람 중심으로 사역을 하니 성도들이 바른 동기와 태도를 가지고 사역함으로서 교회 전체가 건실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다.

5. 바른 교회관 확립

제자훈련을 통하여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깨닫게 됨으로써 교회 체질이 바뀌고 목회자 자신도 변하고 성도들의 교회 사랑하는 마음도 대단하게 되었다. 아직도 교회당의 건물은 상가이지만 교회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대단하다. 이것도 제자훈련 사역이 가져다 준 열매이다.

6. 교회의 영적 분위기

화평교회는 다양함과 통일성 속에서 평안함과 든든함을 유지하면서 변함없이 성장해오고 있다. 전체 성도들이 서로의 협력과 조화 그리고 균형 속에서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해온 것은 제자훈련 때문이다.

오늘날 교회가 왜 그리 말이 많고 시끄러운가? 분열과 분화가 많은가? 분명히 사람 세우는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화평교회는 제자훈련 사역으로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들로 영적인 구심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좌우로 흔들림 없고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도 교회의 좋은 영적 분위기에 흡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새로운 사람들의 사상이나 신앙적 흐름에 주도 당하거나 흡수당하지 않는다. 교회가 축제 분위기 속에서 늘 평안하다. 그 이유는 교회가 사람 세우는 본질적인 일에 충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 5 장
가정교회 사역의 원리와 이론

오늘날 세계교회를 비롯하여 한국교회 안에도 가정교회와 같은 유형의 목회를 갈망하는 현상이 증폭되어가고 있다. 그 이유는 기존 목회 스타일과 전통교회 구조에 대한 한계와 갈등을 목회 현장에서 실감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작용도 없이 조직화된 교회가 주는 버거운 짐, 또 기존교회가 자신의 보존에만 몰두하는 것이 싫어서 제도주의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가정교회적인 방향으로 돌아서려는 노력이 강력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가정교회를 지향하는 또 다른 이유는 거기에 형제끼리의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으며 삶과 인격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표현해 주며,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 때문인 것이다. 현대인들은 개인주의를 지향하면서도 공동체 속에 깊이 소속되기를 원하며 자신이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놓을 환경을 갈망한다. 이제 교회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정교회로 돌아와야 한다. 모든 구성원들에게 강한 소속감과 참여의식을 충분히 제공해줄 수 있는 분위기가 가정교회이다. 교회가 온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려면 가정교회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제 1 절 가정교회 사역을 하게된 동기와 배경

제자훈련 사역을 통하여 훈련된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고 화평교회는 평안함과 든든함 속에서 꾸준히 성장해갔다. 질과 양이 발전함에 따라서 목회자로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다.

첫째, 전체 성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돌보며 섬길 수 있겠는가? 온 교회 성

도들을 헌신자 혹은 사역자로 만들 수 있겠는가?

둘째, 훈련된 성도들이 역량껏 일할 수 있는 현장이나 환경이 무엇일까?

셋째, 제자훈련 과정을 마친 성도들이 지속적인 훈련을 원하는데 어떻게 할까?

넷째, 형편상 제자훈련 받지 못한 사람과 받은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형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며 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는가?

다섯째, 제자훈련 받지 못해도 받은 은사대로 헌신·봉사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일까?

담임목사는 위와 같은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하여 많은 날들을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지냈다. 그러다가 소그룹목회에 마음이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화평교회 훈련된 성도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여 소그룹 지도자로 마음껏 헌신하게 하는 일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 십 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에 두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평신도를 지도자로 세우는 교회', '소그룹 중심으로 성숙해 가는 교회' 이 두 가지 비전은 많은 고민 속에서 탄생된 것이며 하나님이 화평교회에 주신 비전이다. 이 비전을 교회에 제시하고 본 연구자는 안식년을 떠났다. 안식년을 보내는 동안 두 가지 비전에 대한 준비와 계획과 실천 방안 등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얻고 싶었다.

평신도를 지도자로 세워 사역하게 하려면 이들을 계속 훈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했다. 특히 잔 맥스웰의 리더십 부분에 관한 글들을 읽고 마음에 깊이 새기었다. 그리고 소그룹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교회들을 집중 탐방하며 현장을 둘러보았다. 시카고의 윌로우크럭교회, 캘리포니아의 새들백교회 등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중에 소그룹 부분을 현장과 책을 통해 관심 있게 살펴보기도 했다. 아울러 휴스턴에 있는 서울 침례교회, 싱가폴의 로렌스 콩이 시무하는 FCBC(Faith Community Baptist Church) 등에서 개최하는 지도자 세미나에 참석하여 가정교회에 대해 많은 도전과 확신을 얻기도 하였다. 그리고 소그룹에 관계된 수많은 책이나 컨퍼런스에 접하면서 소그룹 목회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

가정교회 준비와 사역을 하는 데 많은 도움과 힘이 되었던 책은 랄프 네이버(Ralph W. Neighbour)의 여기로부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Where Do We Go from Here)와 로버트 뱅크스(Roberts Banks)가 그의 아내와 함께 쓴 교회가 가정에 오다(The Church Comes Home), 윌리엄 벡헴(William A. Beckham)의 제2의 종교개

혁(The Second Reformation), 최영기의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등이다.

제 2 절 가정교회 준비과정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온 담임목사는 곧바로 화평교회 비전세미나를 개최하여 가정교회에 대한 비전들을 중직들에게 먼저 제시하였다. 모두가 동감하지만 자신들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나 강한 헌신으로 인하여 주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도 소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 망설이지 않고 용기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설교나 기도회, 목회자 코너, 개인적인 접촉 등을 통하여 가정교회 사역의 중요성과 가치성을 계속 주지시키며 성도들에게 이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며 헌신할 것을 요구하였다.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준비하며 가정교회에 대한 그림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었고 시작을 바로 앞에 두고 이미 헌신하기로 작정한 평신도 사역자들과 함께 1박2일로 수련회를 갖기도 하였다. 그 기간에 가정교회에 대한 뜨거운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며 워크샵을 통해서도 가정교회 모임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도자들로 하여금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였다. 가정교회의 초기 준비 과정과 진행과정에 대한 일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3개월간 준비과정(1998년 6월부터 8월까지)

·화평 비전세미나 개최

·가정교회 메시지 3주간

·가정교회 후보 지도자 선정(개인 접촉)

·1개월 특별 기도회

·목회자 코너를 통하여 가정교회 준비와 계획과 진행상황을 알림(2개월 동안 매주)

·가정교회 지도자 수련회(1박2일)

세미나/기도회/공동체훈련/서약 등

·가정교회 진행에 대한 워크샵(교역자가 임시지도자/소그룹으로 나누어 시범을

보임)

·지도자 선택을 위한 유인물 배부 및 소개

·지도자 선택 접수(1, 2, 3, 4 순위/서면으로)

·가정교회 편성(초신자는 1순위로)

·가정교회 지도자 파송예배

·가정교회별 예비모임

·가정교회 시작

·가정교회별 이름 및 선교지확정/선교후원 시작

제 3 절 가정교회란 무엇인가

가정교회에 대한 정의는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다. 가정교회의 용어에 대해서도 다양하다. 랄프 네이버와 윌리엄 벡햄, 싱가폴의 FCBC의 로렌스 콩은 셀 교회로, 로버트 뱅크스는 가정(home)교회, 최영기는 가정(house)교회라고 부르고 있다.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일맥상통함과 동시에 각기 나름대로 강점과 특성이 있다.

1. 가정교회에 대한 정의

가정교회에 대한 정의를 말한다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 모여서 예배와 교제와 사도의 가르침과 나눔과 전도 등에 힘썼던 사역을 지역교회인 가정교회가 행하는 것'을 말한다. 초대교회처럼 교회는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워서 가정교회로 하여금 교회의 기능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초대교회가 행했던 사역을 다한다고 해서 그들의 스타일과 방식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초대교회의 정신과 생명의 역동성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데 더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27]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와 우리의 현실과는 상당한 시대적,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로버트 뱅크스는 그의 아내와 함께 쓴 책에서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상황은 "교

---

27) Robert and Julia Banks, The Church Comes Home (Urbana: Albatross, 1986), 44-46.

회 내에서 관계유형이나 권위계통이 다르고 교회 모임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상화하거나 그대로 적용하려는 데는 무리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고 하였다. 하지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점 역시 강조한다.28)

가정교회가 초대교회의 원리와 정신 그리고 골격은 그대로 살려나가되 모임의 형태나 방법에 있어서는 변화를 주어 오늘의 시대적 상황에 맞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내야 한다.

2. 가정교회 사역에 대한 견해(가정교회를 보는 관점)

로버트 뱅크스는 교회내부의 회중에 기초를 둔 가정교회(home church based congregation)와 교회와 병행하는 가정교회(home church)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29) 가정교회는 미혼자, 기혼자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포함하는 일종의 확대된 그리스도의 가족을 말한다(그리스도인의 기초공동체/ 소규모 신앙공동체/ 에클레시아). 가정교회에 기초를 둔 가정교회로 이루어진 보다 넓은 지역교회(큰공동체)를 말한다. 가정교회의 목적은 첫째, 공동체적으로 함께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둘째, 구성원의 신앙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서이다.

로버트 뱅크스는 가정교회와 셀 교회는 나눔이나 찬양, 성경공부, 식사, 서로 섬기는 일 등에서는 유사하지만 공동체성을 추구하는 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즉 셀 교회는 재빠른 변화와 초대교회 구조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깊은 관계형성을 세울 만한 시간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준 높은 유기적 공동체적 삶을 발전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셀 교회는 경영적인 조직과 계급적 사고 방식을 갖게 할 위험성이 따른다고 지적하고 있다.

랄프 네이버는 가정교회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30) 가정교회는 '셀 그룹과 다르게 고정된 장소에서 주일마다 15-25명씩 모이기 때문에 교인들끼리의 교

---

28) Robert and Julia Banks, The Church Comes Home, 47.
29) Robert Banks, Paul's Idea of Community: The Early House Churches in Their Historical Setting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95), 22-23.
30) Ralph W. Neighbour, 셀목회 지침서, 장학일 역 (서울: 서로사랑, 1999), 269-270.

제에 머물러 있어 폭넓은 교제가 힘들다'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가정교회는 전도 활동이나 비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흥이 되지 않고 정체해있다'고 말한다. '셀 교회는 가정교회에 비해 더 큰 구조를 가지며 수많은 세포를 가지고 있어 많이 움직이고 외부에 복음을 전함으로 비개종자들을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전력하며 모든 개개의 지체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관심이 크다'고 셀 교회가 가정교회보다 더 효과적인 사역의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윌리엄 벡햄은 셀 교회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31)

- 셀(Cell)은 셀 교회의 기본단위이다.
- 5-15명으로 구성된다.
- 하나님과 타인, 불신자와의 관계에 역점을 둔다.
- 공동체성을 강화한다.
-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역자이다.
-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데 역점을 둔다.
- 주간, 격주로 셀 모임을 가지되 주간에 모이는 셀 모임에 더 역점을 둔다.
- 셀은 사랑, 공동체, 관계, 전도 등이 강력히 일어난다.
- 교회의 생명은 셀에 있지 건물에 있지 않다.
- 교회는 역동적이고 유기체이며 영적인 존재이다.

그는 셀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다. '교회를 신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어떻게 이해한다 해도 셀 교회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셀 교회를 체험해 본 사람이다. 셀 교회는 단지 연구하고 분석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어떤 점에서 셀 교회에 대한 우리의 정의는 경험하고 체득함으로 얻어진다.'32)

최영기는 가정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한다.33)

- 개척교회와 같다.
- 그 자체가 교회이다.
- 지역중심보다는 관계중심이다.

---

31) William A. Beckham, 제2의 종교개혁, 34-35.
32) Ibid., 42.
33)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 1999), 71.

- 성경공부보다는 나눔을 중요시한다.
- 전도에 역점을 두는 사역이다.
- 교회의 기능을 다하게 하는 교회이다.

3. 화평교회가 지향하는 가정교회

화평교회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정교회는 셀 교회나 가정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역들을 공유하고 있지만 또 다른 강한 특성과 강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초대 가정교회를 모델로 하되 그 정신과 역동성에 역점을 둔다.

둘째, 성숙한 공동체의 삶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가 목회하게 한다.

넷째,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사역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다섯째, 전도와 선교에 역점을 둔다.

여섯째, 매주 1회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곱째, 분담사역을 중요시한다.

여덟째, 제자훈련을 기초로 한 가정교회를 지향한다.

화평교회의 가정교회는 랄프 네이버가 말한 것처럼 가정교회가 정체해있지 않고 '모이는 교회'에서 '밖으로 나가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한다. 왜냐하면 전도와 선교에 역점을 두고 사역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셀 교회는 재생산에 급급한 나머지 빠른 변화로 성숙한 공동체적 삶을 발전시키는 일이 어려운데 화평교회의 가정교회는 그렇지 않다. 가정교회를 경영적 조직으로 이끌어가지 않고 훈련과 자원에 의한 헌신으로 가정교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화평교회의 가정교회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서 화평교회의 부속기관이나 종속기관이 아니며 가정교회는 독립적이며 다른 교회들과 동일한 권리를 소유하며 서로 유기적 관계로서 작은 가정교회가 모여서 큰공동체인 화평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화평교회의 가정교회 특징을 말한다면 '제자훈련을 기초로 한 가정교회, 가정교회를 기초로 한 화평교회로서 균형 있는 사역을 통한 성숙한 공동체적 삶을 지향해 나가는 가정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

제 4 절 가정교회의 성경적 역사적 고찰

가정교회가 교회의 갱신과 성장을 향한 최근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경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 보면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속성을 가진 크고 작은 공동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정교회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도 본질적으로 가정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특성들을 공유하고 여러 모양 여러 형태로 변천하며 발전해 온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1. 성경적 고찰

가. 구약성경에서의 가정교회

하나님은 최초부터 자신을 공동체적인 존재로 삼위 하나님으로 표현하시고(창 1:26) 사람을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하였다(창 2:18, 24). 그러므로 공동체는 하나님의 속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공동체적 존재라면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 상호의존적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습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신 8:1-18). 하나님은 개인과(창 12:1-3) 때로는 그룹과 언약을 맺으시기도 하셨다(신 5:1-3).[34]

그 다음은 성막(출 26-40장)과 성전에서(삼하 7장) 공동체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즉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일이나 가르침이나 예식에서 이루어졌다. 회당모임을 가정에서 가지다가 차츰 그 모임을 건물을 가진 회당으로 옮기게 된 것이다. 그들은 성전이 재건되자 정기적으로 성전에 나가기도 하고 회당에 가는 사람도 있게 된 것이다.[35] 이러한 여러 형태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인간이 공동체적인 존재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심과 동시에 공동체가 서로 교제하며 발전할 수 있는 환경으로 성막과 성전 혹 회당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교회가 성숙한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것이 특성이라 한다면 가정교회의 흐름과 사상과 정신은 구약에서부터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

34) Robert and Julia Banks, The Church Comes Home, 26.
35) Ibid., 27.

나. 복음서에서의 가정교회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은 셀그룹의 존재를 통해서 끊임없이 표현되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밝혀주는 복음서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수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목회하실 때도 제자들 중심의 더욱 신실한 작은 그룹들이 있었다.[36] 그리고 가정에서 삭개오와의 만남(눅 19:5), 비유를 집에서 말씀하신 일(마 13:36), 각색 병자를 고치신 일(마 10:8, 12; 눅 10:5), 각 가정을 방문하여 말씀을 가르치신 일(눅 10:38-42), 가정에 초대받으신 일(요 12:1-8) 등은 모두 가정에서 이루어졌다.

안식일에 제자들과 밀밭을 거닐던 장면(막 2:23-28) 두 제자를 부르사 하나님 나라 사역을 맡기시는 일(막 1:16-17) 그리고 열두 제자를 부르사(마 10:1-5) 그들을 보내시며 권위를 부여하신 일, 세 제자(마 17:1-5) 일곱 제자(요 21:1-3)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지냈고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서로의 고민거리를 나누었으며 함께 사역을 수행했다. 그리고 그들 주위에는 남녀로 이루어진 많은 그룹과 저항하는 그룹들도 있었다(막 2:16; 3:6).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혈육적인 가족들보다 공동체적인 삶을 나누는 제자들과의 관계를 더 크게 생각하셨다(막 3:31-34). 예수는 하나님과 그 백성 그리고 자신과 제자들과의 관계가 지닌 가족적인 특성을 새롭게 강조하셨다. 열두 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예수의 가족이 되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소그룹의 선구자이셨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예수의 제자훈련과정은 소그룹을 이루는 과정이기도 했다. 열두 제자들의 주변에는 '무리들'과 '군중들'이 항상 따라 다녔지만 예수께서는 군중에게 투자한 시간보다 제자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의 친밀한 공동체로 초대하시고 자신의 동반자로 당신의 부활과 오순절 이후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 것이다. 가정교회가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 삶을 깊이 나누는 일을 지향하는 사역이라고 본다면 예수께서 하신 소그룹 사역이야말로 가정교회 사역의 근본이며 기초라 할 수 있다.

---

36) Gareth W. Icenogle,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안영권, 김선일 역 (서울: 옥토출판사, 1997), 138-194.

다. 사도행전에서의 가정교회

이미 교회가 존재했었지만 성령에 의해 탄생된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까지(4세기 이전) 가정집이 교회로 불리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모여 성령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했던 장소가 가정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었다(1:14, 2:42, 12:12). 그리고 후기에는 야고보의 가정(행 21:8)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지가 되었다(행 2:1, 46; 3:11; 5:12, 20).[37] 누가는 그가 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장소적 상황에서 벗어나 가정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1:14) 어떻게 확산되어 나갔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다. 즉 사도행전의 역사를 가정교회로 시작해서 가정교회로 진행이 되고(행 10장) 가정교회로 마무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행 28:30).[38]

초대교회 성도들은 좀더 넓은 장소인 성전에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폭넓은 교제를 했는가 하면 더욱 작은 장소인 가정이나 방에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함께 공동체적인 식사를 나누었다(행 2:46; 5:42). 이러한 모습을 윌리암 벡헴은 "초대교회가 본질적으로 두 날개로 기능을 발휘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울과 그의 일행은 회심한 가족들을 기본으로 하여 가정교회를 세우거나 돌아본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39]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가 우거하는 집에 도착(행 11:14), 루디아의 집이 다 세례 받고 간수장의 집이 다 구원받음(행 16:15-34),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정교회 지도자로서 바울과 동역하며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섬김(행 18:18) 등.

이외에도 데살로니가 야손의 집(행 17:11), 드로아(행 20:8), 에베소(행 20:20), 가이사랴 빌립의 집(행 21장)이 가정교회로 사용되고 있었다. 초대교회는 다양한 가정교회들이 존재했으며 '집에 있는 교회'가 복음전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처럼 초

---

37) Herman Bavinck, 하나님의 큰 일, 김영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505.
38) 김의원, "목회자 세미나", 목회와 신학, 2000년 2월호.
39) William A. Beckham, 제2의 종교개혁, 153-157.

대교회는 가정교회로서 큰 그룹으로도 모이고 작은 그룹으로도 모였다. 즉 '회중적인 환경'(성전)으로 모였고 '공동체적 셀 환경'인 가정교회로 흩어져 모인 것이다. 동일한 시간에 한 가정에서 혹은 또 다른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매일 모이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모이기도 했다(행 2:46; 20:7; 계 1:10).[40]

오늘날 전통적인 교회는 초대교회가 1세기 동안 대규모 회중과 작은 셀로 동시에 존재했음을 인식하고 이 모델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

라. 바울 서신에서의 가정교회

바울이 각 교회에 보내어진 서신들 가운데 보면 여러 가정교회가 지역마다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구절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41]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고전 16:19);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롬 16:5); "자매 압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킵보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몬 2);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눔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골 4:15).

위에 나오는 가정교회들은 바울이 직접 세운 가정교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에 가정교회들이 있었다는 증거가 보인다.[42] 특히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바울 만나기 전부터 로마에서 가정교회를 세워 사역했던 것으로 보아지며 고린도와 에베소에서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가정교회 사역에 힘썼던 것이다.

또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교회와 가정과의 관계를 많이 묘사하고 있다. 첫째, 교회 구성원의 결속력과 가족 구성원간의 결속력의 유사함을 말한다(롬 16:2, 13; 갈 1:2; 4:19; 골 4:9).[43] 둘째, 또 교회의 공동체를 직접 하나님의 권속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엡 2:19). 셋째, 교회의 중심적인 활동이 가족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살전 5:16; 롬 12:9-10; 고전 11:33). 이처럼 바울은 가족과 관련된 용어를 교회로 표현하는 주요한 도구로 사용

---

40) William A. Beckham, 제2의 종교개혁, 32, 153.
41) Vincent Branick, The House Church in the Writing of Paul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89), 13.
42) Ibid., 13-17.
43) Robert and Julia Banks, The Church Comes Homes, 30-31.

하여 교회가 가정과 같음을 강조하였다.44)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는 신약성경의 소그룹 형태를 취했다. 그들은 나눔과 예배와 가르침을 위하여 다양한 가정에서 모였다. 더 폭넓은 교제와 예배를 위하여 성전에 모였다. 따라서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에 기초한 큰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도 교회가 건강하게 성숙하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두 형태의 많은 그룹이 균형 있게 발전해가야 한다.

2. 교회사 측면에서 변천해 온 유사한 가정교회의 형태들

교회사적으로 보면 '가정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교회가 존속해 오지는 않았지만 그와 비슷한 속성과 특징과 형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소그룹의 단체들이 있었다.

가. 초대교회에서 중세시대45)

(1) 후기 사도시대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시대 이후에도 4세기 전까지는 가정에 모이는 것이 기존형태였다. 로마제국을 정복한 기독교는 가정중심으로 모였으며 주후 2세기경 몬타니스트(Montanist)그룹들은 초대 가정교회와 같은 형태로 모였다가 주후 몇 세기 동안은 가정이 건물로 대치되어 공중예배로 가정교회 모임이 변형되기도 했다.

(2) 수도원 운동(the Monastic Movements)

공동체 생활을 강조했던 수도원운동이 주후 4세기부터 일어났는데 형제애로 맺어진 단체들이 교회가 형식화 되어가고 제도화되어 가는 것에 저항을 했고 영성과 공동체생활을 지향하는 초대 가정교회 형태를 지녔다. 12세기부터는 프란체스코 수도회와 도미니크 수도회를 중심으로 예배와 교제를 중요시하는 공동체생활을 강조했다. 수세기를 거치면서 '교회 속의 작은 교회가 교회에 새로운 활력과 회복을 불어넣었으며 이 때 생긴 공동생활 형제회(Brethren of the Common Life)는 루터에게까지 영향

---

44) William A. Beckham, 제2의 종교개혁, 167.
45) Robert and Julia Banks, The Church Comes Home, 50-72.

을 주었다.46)

(3) 종교개혁 이전 시대

종교개혁 이전 시대에도 부패한 로마카톨릭을 반대하던 그룹들이 초대 가정교회와 같은 공동체적 생활을 강조하는 운동들이 세차게 일어났다. 프랑스에게 박해를 받았던 왈도파(Waldensians), 영국에서 위클리프(Wycliffe) 영향을 받은 롤라드파(Lollards)라 불리는 평신도 그룹들이 초대가정교회 형태로 도시와 시골마을 집에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모였다.47)

이처럼 중세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신약성경의 초대 가정교회와 같은 소그룹의 형태를 유지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나. 종교개혁시기와 그 이후

루터는 독일 예배 예식 서문에서 세 종류의 예배를 말했는데 첫째는 라틴어로 드리는 예배, 둘째는 독일어로 드리는 현대적인 예배, 셋째는 가정교회와 흡사한 예배였다. 루터는 말하기를 앞의 두 가지 예배는 모든 사람을 위해 교회에서나 공중 앞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세 번째 예배는 복음적인 예배로서 은밀하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8) 가정에서 모여야만 입으로 진지하게 복음을 시인하게 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세례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루터는 자신의 가르침에 동조했던 교회들이 영적인 활력을 잃어갈 때 급진적인 재세례파(열성주의)의 행동에는 경고와 반대를 했지만 그들이 모여지는 가정교회 형태만큼은 관심 있게 보았던 것이다. 교구 안에 더 작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존재해야 함은 루터뿐 아니라 재세례파 진영과 접촉하여 영향을 받았던 마틴 부쳐(Matin Bucer)도 루터와 같은 생각을 했고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John Knox)도 '비밀교회' 또는 신실한 자들을 위한 '가정교회' 모임을 격려하였다.49)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 세기를 거쳐오는 동안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증진시켜 나

---

46) Robert and Julia Banks, The Church Comes Home, 52.
47) Robert Banks, Paul's Idea of Community: The Early House Churches in Their Historical Setting, 50-51.
48) Robert and Julia Banks, 53-54.
49) William A. Beckham, 제2의 종교개혁, 168.

가는데 있어서 초대 가정교회와 같은 친밀한 공동체를 계속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다.

(1) 재세례파들(the Anabaptists)

재세례를 주장하고 유아세례를 반대했던 재세례파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는 학자나 교파들이 그 당시나 오늘날에 있지만 재세례파는 초대교회의 생활과 관습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회복하려는 열정은 대단하였다. 그들은 소그룹과 대그룹으로 모여 초대교회가 행했던 예배와 기도와 권면과 헌금과 나눔 등 4시간 정도의 시간을 가지며 궁핍한 사람 돕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2) 퀘이커교도

종교개혁 이후 영국에서 일어난 퀘이커교도들은 전통적 예배장소에서 모이다가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였다.

(3) 모라비안 교도들(the Moravians)

독일의 진젤돌프는 망명한 모라비안 교도들을 데리고 루터교회를 핵심적인 작은 교회로 발전시켰다. 8-12명으로 구성된 작은 세포모임들을 많이 조직했다. 이 작은 교회들이 대개 가정에서 모였다. 모리비안들은 작은 그룹에 기초하여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을 급진적으로 최소화시켰다. 이 때 모라비안 교도들은 작은 교회 그룹에서 헌신적이었으며 여기에 대해 진젤돌프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분리적인 교파보다 더 넓은 교회 안의 갱신운동으로 보았다.[50]

(4) 요한 웨슬레(John Wesley)

모라비안 교도들로부터 도전을 받은 요한 웨슬레는 공회들 안에 있는 작은 속회(class)를 조직하였다.[51] 이 속회는 사실상 가정교회였다. 초대 가정교회가 행했던 사역들을 그대로 적용시켰다. 이 모임들을 통하여 다양한 이웃들을 접하게 되었으며 매

---

50) David Watson, 제자도, 115-116.
51) Ibid., 115.

주 한번씩 주로 밤에 모여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 나누고 특별한 문제나 필요 등을 이야기하고 모인 사람들의 문제를 놓고 서로 기도하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충고나 책망을 받기도 했고 의견 충돌도 일어나기도 했으나 결국은 기도와 감사로 이 모임을 마쳤다. 그는 "속회(학습) 모임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공동체로서 교회를 발전시키는 일에 전통적인 교회로부터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속회(학습)모임을 진실한 교회라고 생각했기에 최우선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 학습 모임이 결국 가정교회가 되었다. 그의 작은 교회운동이 영국을 휩쓴 부흥의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 그는 당시 침체된 영국교회를 초대교회의 형태로 다시 가질 수 있도록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변화까지 불러 일으켰다.

웨슬레는 이 땅의 교회가 소그룹교회로 접근하게 하여 큰 부흥을 가져오도록 하나님의 도구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감리교와 다른 교파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오늘날 감리교회의 속회모임은 생명력이 갈수록 없어지고 약화되어져 가고 있다. 그 이유는 그가 전해 준 가정교회 즉 속회의 정신과 역동성을 계승하지 않고 발전시키거나 적용하지 않고 변질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실시했던 가정교회인 속회 모임을 회복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가 그 당시에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속회 모임을 진행했는가를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한다.

다. 현대교회와 가정교회

1950년대 말 남미의 카톨릭 교회 안에서도 기초적 교회 공동체인 가정교회 모습이 강조되어지기 시작했다. 보편적으로 가난한 빈민가 중심으로 20만개 이상이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들의 공동체의 특징은 보편적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예로 예배, 성찬, 사랑, 기도, 말씀, 유무상통 등 초대가정교회가 했던 사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금세기 1960년 이후는 서양 중심으로 가정교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서구뿐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와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민주화과정의 이전의 러시아 등에서는 가정과 지하 등에서 가정교회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중국에서는 1949년 공산주의 혁명이후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되던 건물에서 더 작은 그룹인 가정교회

모임이 활발하게 모여짐과 동시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가정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다. 1960년 모택동 이후 자유개방의 물결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으로 등록된 삼자교회 교인 수는 기껏해야 수백만 명인데 가정교회 모이는 수는 오 천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52)

지금 가정교회에 대한 관심과 목소리는 지역과 인종을 초월하여 전세계적이다. 소그룹의 원형인 가정교회에 대한 갈망은 엄청나다.

금세기 남아메리카가 엄청난 성장을 이룬 것은 세포모임이 수천 발생하였고 또한 동시에 크게 번식하였던 것이다.

유럽에서는 가장 최근 젊은 신세대 기독교인들이 공식적이고 전통적인 교회 예배에서 탈피하여 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 신앙을 북돋우는 새로운 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금세기 내내 성도 수 급감에 시달려온 유럽교회로서는 새로운 부흥운동에 촉매가 될 것으로 본다.53)

전세계 제자화 선교회(DAWN)에 따르면 십대 후반에서 삼십대 초반의 유럽 신세대들이 교회를 하나의 독립된 건물로 해석하지 않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작은 모임 그 자체로 해석하여 소그룹으로 모여 삶을 나누며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신앙의 공동체가 덴마크, 영국, 독일, 노르웨이, 스페인 등에서만 2천여 개에 달하며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로 확산되고 있으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이 작은 교회운동은 미래교회의 한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54)

한국에서는 약3년 전부터 많은 목회자와 교회들이 소그룹 목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갈수록 더욱 관심도가 가속화되어가고 있다. 거의 비슷한 몇 개월 사이에 싱가폴의 로렌스 콩과 Touch 사역의 국제대표자들인 윌리암 벡헴과 랄프 네이버 등이 한국을 방문해 셀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국교회 소그룹 사역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모델교회가 필요한 시기이다. 너무 많은 소그룹의 형태를 가진 사역들이 방향성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초대교회의 공동체성을 성숙시켜 나가는데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이제 소그룹의 사역을 정리하고 단순화 시켜야 하며 신약교회가 말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되찾아야 할 때이다.55)

---

52) Robert and Julia Banks, The Church Comes Home, 61-63.
53) 이병모, "유럽 신세대 새 교회운동," 국민일보, 2000년 1월 8일자, 29.
54) Ibid., 29.

이제 한국교회는 랄프 네이버의 말대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Where do we go from here)?"하고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이르렀다. 여기에 대한 대안과 방향을 여기서부터 다루려고 한다.

제 5 절 가정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가정교회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말씀선포와 권징과 성례전은 개혁교회의 표지인 동시에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분하는 표식으로 들고 있는데 가정교회가 교회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사역이 가정교회 안에서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둘째, 초대 가정교회의 상황과 이천년이 지난 오늘날의 문화적 상황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실제 가정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교회의 총체적 기능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노골적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건물이 없는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 어찌 교회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것이다.

1.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구약에서 교회의 칭호는 '부르다'(to call)를 뜻하는 어근에서 나온 말로서 히브리어로 '카할'(קָהַל)이라 부르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적용되었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모세가 가르쳐주는 율법을 듣기 위해 나온 회중들의 모임을 교회(카할)라고 말하고 있다(신 5:1; 23:2; 왕상 8:14).[56]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를 가리켜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출 19:16-19).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과 장막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난 사실을 보면 성경은 교회를 장소적 개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무리'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도행전의 스데반 설교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장소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계시는 곳을

---

55) 최상태, "평신도를 깨운다," 46호 (2000), 14.
56) Berkhof Louis, Manual of Christian Doctrine (Wmob Eerdmans, 1993), 279-287.

교회라고 가르치고 있다(행 7:1-17).[57]

신약에서는 교회가 '불러내다'(to call out)를 의미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회중(assembly)으로서의 교회를 말하고 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ια)인데 '불러내어진 거룩한 무리'를 의미한다. 신약에서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ια)는 115번 나온다. 회중에서 3번 나오고 나머지 112번은 교회에 붙여졌는데 그 의미를 분석해보면 지상에서 불러내어진 구원받은 총체를 가리키는 우주적인 교회(마 16:18; 엡 3:10)와 지역(도시)에 있는 교회(행 18:11; 20:31; 계 3장) 그리고 가정에 있는 교회(행 2:46; 5:42; 12:5; 20:20; 롬 16:3, 5; 고전 16:19, 골 4:15; 몬 2장)를 언급할 때에만 교회(에클레시아)라는 칭호가 붙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신앙고백 할 때 최초로 이 용어를 사용하셨다(마16:18; 18:17), 예수께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집단에게 붙여졌던 교회(카할) 칭호를 제자들의 집단에 대치시키시며 적용시키셨다. 그러므로 교회(에클레시아)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집단명사이지 건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일정한 지역에 있는 신자들의 공동체(고전 1:2; 고후 1:1; 살후 1:1)와 보편의 교회로서(엡 1:2; 골 1:18) 우주적인 단일의 교회(본질의 교회, 무형의 교회)를 말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사용했다. 바울은 교회를 지체적 개념으로 말하고 있으며(고전 12:12) 교회를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임으로 공동체적 성격을 띄고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주님을 머리로 한 생명적 유기적 공동체임을 강조한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중생함과 동시에 보편의 교회(본질의 교회)에 참여하게 된다. 여기에서 교회의 본질은 기관이 아닌 백성이며 제도가 아닌 공동체이며, 유형적이건 무형적이건 그것은 인격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무리들, 더 나아가 천상과 지상에 있는 모든 신자들(엡 1:12; 3:10; 골 1:18)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주위에 모여 공적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받아들인 무리'들에게 교회란 칭호를 적용시키셨지만 더 나아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하여 언제인가 그리스도를 믿게 될 모든 신자들까지도 교회(에클레시아) 영역에 포함시키셨다.

---

57) 김의원, "목회자 세미나," 목회와 신학, 2001년 2월호.

2. 왜 가정교회가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면 가정교회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개혁교회의 표지인 말씀선포, 권징, 성례식이 가정교회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 하여도 가정교회는 교회이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혁교회의 3가지 표식이 가지는 원래 의미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겨야 하며 교회가 말씀이 변질될 때 참된 교회가 될 수 없고 생명력을 잃는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가정교회가 말씀의 터위에 세워지고 말씀에 지배를 받는 공동체이면 분명히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례식이나 권징이 작은 공동체인 가정교회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더라도 큰 공동체인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정교회와 큰 공동체인 교회와는 유기적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대 가정교회의 상황과 오늘날의 교회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에 가정교회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 답변한다면 지역적인 특성이나 가정교회 모임의 형태나 관계의 유형이 오늘날과 다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정교회는 신약교회의 모습이며 초대교회 이후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모양으로 존속해왔다. 마치 구약시대에 교회라는 이름은 없었어도 다른 형태, 다른 모양으로 교회가 변천해 온 것처럼, 예로 족장시대의 교회는 가정에서 가장이 제사장 역할(창 4:26)을 했고 모세시대의 교회는 광야교회로 성막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남을 가짐으로 교회를 이루었고, 성전시대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교회를 이루었던 것처럼, 초대 가정교회와 오늘 우리의 현실 교회와 문화적 차이나 방식과 형태의 차이는 있는 것이 사실이나 초대가정교회의 기능과 정신과 생명의 역동성은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시대나 형식이 다르다고 교회의 원리나 정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초대가정교회의 정신과 그 역동성을 우리 시대 상황에 맞게 적합한 방식으로 되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또 가정교회가 교회의 총체적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는 사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는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있을

뿐이다. 가정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상을 추구해 가지만 연약한 부분,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그러나 가정교회만큼 평신도 사역자들이나 구성원들이 함께 자라며 받은 은사대로 사역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데 좋은 토양은 없다. 로버트 뱅크스는 그가 쓴 책에서 "이 땅의 교회 중에 가정교회가 최선의 교회 형태"라고 주장하고 있다.58) 헤르만 바빙크도 그의 책 하나님의 큰 일에서 바울이 교회의 명칭(에클레시아)을 "각 지역에 있는 신자들의 모임에 적용시켰고(갈 1:2, 22), 특히 가정교회 모두에게 명확하게 교회명칭이 주어졌는데 이것은 괄목할 만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정교회가 건물을 갖지 않고 집에 모이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교회를 건물로 말한 곳은 한가운데도 없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건물은 기독교가 공인되면서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다.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하면 본질적인 무형교회는 생각지 않고 건물이나 숫자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에클레시아)라는 칭호가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교회 그리고 가정교회에 붙여진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교회라는 개념을 지역교회에 가두어 제도 속에 있는 건물만 생각하면 가정교회가 교회라는 것에 의심을 품게 되는 것이다. 보편의 교회 개념으로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모임 즉 공동체를 교회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교회가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은 어디에서든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예배와 기도와 영적인 교제가 있는 성도들의 모임에 교회(에클레시아)라는 칭호가 주어졌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건물(회당,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복음을 가진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건물은 어디까지나 복음전파와 교제에 도구와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제 6 절 가정교회 성장을 막는 장애요인과 그 해결방안

우선, 소그룹 모임을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일 예배만 중요시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 가정교회가 부흥하는 데 지장이 되고 있다.

---

58) Herman Bavinck, 하나님의 큰 일, 504-506.

윌리엄 벡헴의 말을 빌리면 '한국교회는 큰 날개만을 중요시하지 작은 날개를 경시한다'[59]는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큰 날개)에 모이는 일에도 힘쓰고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작은 날개) 모임을 중요시했던 것처럼 교회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성도들을 훈련하고 교육해야 한다.

둘째, 시간부족으로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장애가 된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졌지만 매주 쓸 수 있는 시간들은 줄어들고 있다. 여러 가지 일이나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들 때문이다. 가정교회가 한번 모이면 두세 시간 정도는 가져야 깊은 나눔과 교제를 하는데 구성원들의 분주함과 빠른 행동이 건강한 가정교회를 이루어 가는 일에 지장을 받고 있다. 가정교회의 지도자는 이 모임의 중요성과 가치성을 그룹원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 우선 순위로 두도록 지도함이 마땅하다.

셋째, 그룹원들의 유동성이다. 분가에 역점을 둔 나머지 자주 그룹원들의 멤버나 환경이 변하니까 공동체로서 친밀감 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혹은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 가정교회가 깊이 뿌리 내리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공동체 붕괴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가정교회가 처음으로 형성될 때 목회자는 숙고하여 미래까지 내다보고 구성원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가정교회를 세워야 할 것이다.

넷째, 자기중심적 사고이다. 교회의 행사나 의식이 집단적이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갈수록 더해간다. 예배 시에도 서로 바라보고 앉기보다는 의자 나열도 앞으로 되어 있으니 앞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개인주의로만 생각하는데 익숙한 사람이 많으면 가정교회는 기능을 발휘하기가 힘들다. 가정교회는 서로 섬기고 돌보며 나누는 가운데 모든 그룹원들이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되어 가는데 좋은 환경이다. 그러므로 가정교회가 기능을 발휘하도록 그룹원들을 재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느낌과 자기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 결핍 즉 가정교회 모임 시 상대방의 생각과 느낌보다 자기 생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그 가정교회는 든든히 서기가 어렵다.

비평적인 사고와 성경연구 등이 두드러지면 깊은 나눔이 사라지고, 서로간 최소

---

59) William A. Beckham, 제2의 종교개혁, 31-32.

한의 의사소통과 친교만이 있을 뿐이다. 상상력과 감정을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한다. 그룹원들에게 가정교회 모이는 이유를 알려준다.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적 삶을 살기 위하여 서로 얼굴을 맞대고 확장된 그리스도인의 가족으로 함께 감정을 교류하고 배우고 나누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임을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가정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는가?60)

첫째, 누구든지 자신의 문제를 혼자 짊어져서는 안 된다.

둘째, 누구도 자신의 무능력을 감출 필요는 없다.

셋째, 할말 있는 사람 따로 있고 할말없는 사람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

넷째, 누구도 소외되거나 격리되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가정교회가 건강한 가정교회이다.

여섯째, 프로그램 중심이 오히려 장애가 된다.61) 가정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이다. 가정교회 모임이 너무 프로그램 중심이고 계획적일 때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동성을 배제하게 되면 성령을 의지할 여지가 없게 된다. 가정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조직이나 방법이 필요하겠지만 사람을 세우고 개발하는 일보다 우선 시 될 때 가정교회가 형식과 인위적인 모임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도자는 모든 순서에 성령의 생각을 감지하도록 자유로움 속에서 민감해야 한다.

일곱째, 목회자의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가 가정교회 부흥에 장애가 된다. 가정교회 지도자에게 사역을 위임했으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통제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에게 사역을 위임할 때 목회자 자신의 사역의 부담이 줄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맡은 사역을 책임 있게 감당할 뿐 아니라 목회자를 이해하며 신뢰와 존경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평신도 사역자인 가정교회 지도자를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은 가정교회 성장에 많은 장애가 된다.

여덟째, 갈등의 시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성장에 장애가 온다. 가정교회 사역을 하다보면 기쁨과 감격의 때가 있는가 하면 갈등의 시기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이때 가정교회 지도자나 그룹원들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질 우려도

---

60) Robert and Julia Banks, The Church Comes Home, 22.
61) Ibid., 86-90.

있다. 이 때를 잘 넘기도록 지도자는 가르쳐야 한다. 특히 경건생활에 힘쓰도록 하여 갈등의 고비를 넘기도록 하라. 극복하면 승리와 축복이 있음을 기대하게 하라.

아홉째, 헌신이 남용되는 경우와 부족한 경우도 장애가 된다. 별 생각 없이 열심을 내다보면 다른 그룹원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아 허탈감에 빠지게 된다. 또 다른 면으로는 가정교회 모임이나 사역에 대해 소극적일 경우에도 본인이나 다른 지체들에게 거침돌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는 가정교회에 대한 취지나 동기, 방향 목적 등을 잘 점검해보고 신실하게 가정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이나 가정교회를 참관하거나 방문하고 상담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다.

열째, 그외 다른 장애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효과적인 가정교회 사역을 위한 아래의 질문과 답변들은 화평교회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사역 현장에서 겪었던 일들을 지도자 모임에서 소그룹으로 모여 토론한 내용들이다.

① 시간에 부담을 갖는 분들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가정교회 모임 시간을 잘 지키는 훈련이 필요하다. 정확한 시간에 시작해서 정확한 시간에 마치는 것이 좋으나 실제 진행하다 보면 시간 지켜지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시간에 부담을 갖는 분들은 사전에 소요되는 시간을 알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은 진행중이라도 돌아가도록 미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교회 모임 시간을 보통 2-3시간 갖는데 짧은 시간을 갖는 것보다 길게 가짐으로 얻는 유익들이 많음을 현장 경험을 통하여 알 수 있다.(가원들끼리 깊은 나눔이나 교제나 기도를 길게 갖는 가정교회가 보편적으로 더 영적부흥이 나타나고 있다)

② 가정교회 지도자가 구성원들에게 영적인 것을 많이 채워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먼저 지도자 자신이 영적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가원들이 충만해 질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 경건생활과 섬기는 생활에 본이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도자는 가원들에게 큰 공동체인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여 가정교회에서 채울 수 없는 부분을 공급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③ 가정교회의 가장 효과적인 전도방법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관계전도이다. 가정교회의 가장 큰 강점은 관계를 통한 이웃전도이다. 가정교회별로 전도 이벤트를 상황에 맞게 준비하여 평상시에 관계하고 있던 사람을 가정으로 초청해서 식사 대접도 하고 복음도 제시하고 선물도 주고 격려해 주면 전도에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④ 지도자가 부부 문제나 가정문제, 개인문제를 어느 선까지 관여하고 나누어야 하는가?

상대방의 처지와 상황 그리고 신앙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반응해야 한다. 깊이 관여할 일과 그렇지 않아야 할 일을 지혜롭게 구분함이 필요하며 특히 개인과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비밀을 지켜야 할 부분은 확실히 지켜주어야 한다.

⑤ 구성원들의 영적인 성숙도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며 교육할 수 있는가?

가정교회 식구들의 영적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정교회가 좋은점은 함께 배우며 함께 자란다는 것이다. 서로의 차이로 인하여 보완 관계가 이루어지며 강한 지체의식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영적인 가족의식만 있다면 성숙도의 차이가 별문제가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배우고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식구들은 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면하는 것도 좋은 방법중의 하나이다.

⑥ 다른 식구들과 경제적 비교의식으로 참석을 기피하는 가원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이러한 문제는 아직 가원들끼리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일이다. 가정교회 분위기만 좋아진다면 시일이 지나면서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때까지 지도자는 연약한 그를 개인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갖고 대함이 좋겠고 부한자는 그일로 인하여 가난한자가 상처받지 않도록 덕을 세우는 일에 신경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⑦ 무분별하게 말함으로 분위기를 흐려 놓는 가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정교회의 취지나 목적이나 방향 등을 메시지나 분위기 그리고 행동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전에 가정교회 모임시 유의사항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양을 미리 말해주는 것도 좋다. 무엇보다도 지도자가 좋은 영적 분위기로 이끌어가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발견

하며 수정하게 될 것이다.

⑧ 나눔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지도자를 중심하여 가원들이 경건생활에 힘쓰는 일이다. 그리할 때 나눔이 풍성해질 수 있다. 그리고 때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눔의 주제를 미리 주어 준비하게 하여 같이 나누는 것도 좋다.

⑨ 가정교회를 장기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가원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들이 가정교회 소속해 있음을 인식시켜주어 소속감과 안정감을 갖게 한다. 그리고 수시로 가정교회 상황을 알려주기도 하고 심방하는 일이나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한다. 교회에서는 그들을 별도로 관리하고 돌보아 가정교회에 참여하도록 권하는 것이 좋다.

⑩ 홀로 사는 분들이 나눔의 시간을 곤란하게 느끼거나 기피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러한 현상은 가원들끼리 깊은 관계 형성이 되지 않은 초기단계에 있을 때 나타나는 일이다. 그가 가정교회 모임에 빠지지 않고 잘 참여하도록 관심 갖고 또 가정교회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된다면 나누는 일을 주저하거나 기피하기보다는 다 드러내놓고 싶은 것이다. 우선적인 일은 건강한 가정교회를 만드는 일이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이러한 일이 나타나면 자신이 섬기고 있는 가정교회 영적 분위기를 진단해보고 발전하고 성숙해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소그룹으로 모여 함께 토론하고, 경험을 나눔으로써 사역하는데 따르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

제 7 절 왜 가정교회를 지향하는가

새 천년에 들어와 세계 교회나 한국 교회의 주된 관심은 소그룹 목회이다. 목회의 방향을 소그룹에 맞춘 교회들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미국의 윌로우크릭 커뮤니티 교회나 뉴호프 커뮤니티 교회, 영국 런던의 물고기 교회, 싱가폴의 FCBC 등 교회들이 셀그룹으로 성장하여 수천 수만 명의 교인 수를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약 2년 전부터 셀 목회에 대한 관심도가 가속화 되어가고 있

으나 아직은 본받을 만한 교회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초기 단계라 볼 수 있겠다.

이토록 목회자들이 소그룹을 지향하며 관심 갖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들 수 있겠다. 첫째는 전통적인 목회에 대한 한계와 갈등 때문이다. 이대로 목회 할 때 능력이나 생명력이 현재도 미래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나타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현대인들은 고독하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소속감을 갖기를 갈망한다. 이러한 갈등과 고민을 소그룹에서만이 채워주며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교회야말로 다양한 소그룹 형태 중에서 가장 좋은 분위기, 혹은 환경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교회는 목회의 한 방법론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가 시행해야 할 사역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가정교회는 성경에 기초한 사역이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약성경에서 보여주는 모범을 따라야 한다. 그 모범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소그룹의 선구자로서 군중들에게 보다 소수와 함께 지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진리들을 가르치셨고 특히 '집에서 집으로' 매일 집집마다 들어가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이나 그 가정의 식구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시며 말씀을 가르치신 후, 열 두 제자의 셀을 만드시고 그 중심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두셨다.

어느 때는 가정을 방문하셔서 식사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며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다. 또한 초대교회는 분명히 가정교회였으며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져 가정교회 사역에 헌신했던 것이다. 그럼으로 우리가 가정교회를 지향하는 이유는 성경에 근거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가정교회의 분위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깊이 느낄 수 있는 현장이 가정교회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자매임을 가정교회 모임에서 경험할 수 있다. 함께 식사하고 삶을 나누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공부하고 받은 은사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가정교회이다. 또한 함께 배우며 같이 성장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기 때문이다. 안정감과 소속감을 강하게 하며 속에 있는 깊은 것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치료의 효과도 큰 것이다.

셋째로, 평신도 사역자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다. 오늘날 루터와 칼빈이 일으킨

'만인 제사장직'이 아직까지도 미완성의 과제로 남아있다. 그 이유는 교회가 평신도들을 성직자와 구별한 채 사역자로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할뿐만 아니라 사역할 수 있는 현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가정교회는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워서 역량껏 목사처럼 양떼들을 부지런히 살피며 사역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넷째로, 선교와 전도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지상 최고 명령이 무엇인가? 전도와 선교가 아닌가? 가정교회를 통한 전도와 선교는 엄청난 힘이 발휘된다. 가정교회야말로 복음 전도를 위해 가장 강력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다. 그 이유는 각 가정교회별로 관계 속에서 전도하며 선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장소적 이유 때문이다. 가정교회는 장소적으로 지장 받지 않고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으며 지역적으로 제한이 없다. 좋은 관계로 향상이 되고 토양만 갖추어진다면 장소적 이유로 곤란을 받지 않는다. 가정, 셀교회에서는 건물을 교회 형성으로 보지 않는다. 전통적 교회는 성장하기 위해 건물을 지으나 가정, 셀 교회는 성장하고 건물을 짓는다.62)

제 8 절 가정교회와 다른 소그룹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는 소그룹의 형태를 지닌 이름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어 그 차이를 이해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구역의 성격을 가진 다락방, 속회, 목장, 밴드목회, 사랑방, 셀교회 등이 있고 소그룹의 사역과 목적에 따라 봉사그룹, 지원그룹, 찬양그룹, 친교그룹, 전도와 선교그룹 등이 있다. 이러한 소그룹들을 분석해보면 각기 나름대로 강점과 특성들이 있으며 가정교회의 유사성과 차이점도 있다. 여러 소그룹들은 공동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 존재하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소그룹들이 대부분이다. 과연 이러한 다양한 소그룹 모임을 교회라고 볼 수 있겠는가? 윌리암 백헴은 역사적으로 '소그룹이 가정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63) 빌 도나휴(Bill Donahue)는 오늘날 교회 안에

---

62) William A. Beckham, 제2의 종교개혁, 35-39.
63) Ibid., 178.

이루어지고 있는 소그룹의 형태를 세 가지로 분류하여 소그룹이 있는 교회(church with small groups), 소그룹 중심의 교회(church of small groups), 소그룹이 곧 교회(church is small groups) 등으로 말하였다.64)

대부분 랄프 네이버나 윌리암 백헴 그리고 싱가폴의 로렌스 콩은 소그룹이 곧 셀교회라고 말한다. 그러나 로버트 뱅크스는 소그룹이 가정교회에 가깝고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소그룹은 가정교회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교회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연구자가 조사한 설문에서도 나타났듯이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소그룹이 있는 교회에 속하지만 소그룹 중심의 교회는 희귀하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소그룹 사역이 교회 중심의 사역이 되고 있다.

슈바르츠가 제창한 NCD 원리에서도 21세기의 가장 건강하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의 질적 특징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소그룹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만큼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가치성과 중요성은 대단한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소그룹이 교회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소그룹이 교회의 기능을 다할 때 교회라 할 수 있지만 소그룹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교회(가정교회)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가정교회와 소그룹의 차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소그룹에서 유사한 점을 찾아볼 수 없는 가정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살펴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가정교회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① 수준 높은 공동체적 삶을 발전시키는 것에 목표로 한다.

② 하나님과 사람의 인격 성숙에 집중하는 모임이다.

③ 장소보다 서로에 대한 보살핌과 책임을 중요시한다.

④ 상호적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을 배운다.

⑤ 삶의 현장에서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⑥ 확장된 그리스도인의 가족으로 초대교회처럼 찬양과 기도와 나눔과 식사교제와 성경공부 등을 진행한다.

⑦ 교회의 총체적 기능을 다하는 일에 힘을 쓴다.

---

64) Bill Donahue, 소그룹이야기, 송영선 역 (서울: 디모데 출판사, 1997), 19-20.

1. 셀교회와의 차이

셀교회는 어떤 소그룹의 형태보다도 가정교회와 가깝게 느껴질 정도로 교회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강조점이나 특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셀교회는 초대교회의 모델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조직과 계급적으로 빠질 위험성이 있다. 사람에 기반을 두는 일을 크게 생각함으로 세상 경영적인 방법으로 셀교회를 운영해 갈 수가 있다.

또한 셀교회는 재빠른 변화를 요구함으로 깊은 관계를 세울 여유가 없으며 공동체적인 유대관계가 약화될 우려가 많은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가정교회와 셀교회와의 차이라 볼 수 있다.65)

2. 기존 구역(다락방, 속회)과의 차이

가정교회와 겹치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적어도 내용들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이 다소의 차이가 있다.

첫째, 사역의 위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가정교회는 가정교회 지도자에게 재량권을 주어서 사역을 전폭 위임하는 반면에 기존 구역은 부분적 위임이 되면 많은 부분에 대하여 교회에서 주도권을 행사한다.

둘째, 가정교회는 교회의 총체적 기능을 다하나 구역은 몇 가지 부분적인 기능만 감당하는 것이다.

셋째, 가정교회는 새 가족을 중요시하며 전도와 선교에 중점을 두지만 기존 구역 모임은 기존 신자끼리의 관계나 교제에 더 많은 역점을 둔다.

넷째, 가정교회는 성경공부보다 삶을 나누는 일을 중요시하나 구역은 성경공부 중심으로 삶을 깊이 나누는 일이 적거나 없다.

다섯째, 가정교회는 그룹원들이 모임 진행 순서에 전체가 참여하며 역할분담이 주어져있지만 구역 모임은 지도자 일변도로 진행되는 경향이 많다.

여섯째, 가정교회는 관계중심으로 편성이 되며 분가하더라도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계속 교제가 되어 깊은 공동체를 이루지만 구역은 지역 중심으로 편성되고

---

65) Robert Banks, Paul's Idea of Community: The Early Houses Churches in Their Historical Setting, 22-23.

매년 혹은 자주 구성원이 바뀌어져 공동체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되기 어렵다.

지금까지 본 연구자가 가정교회와 구역(다락방, 속회, 목장 등)의 차이를 말하였지만 혹 어느 교회가 구역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가정교회의 기능과 특성을 가지고 구역 모임을 충실히 이끌어 가고 있다면 이름은 구역(다락방, 속회)이지만 가정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 교회내 다른 소그룹과의 차이

교회내의 여러 소그룹들은 각기 가지는 기능이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가정교회와 차이가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가정교회는 분가나 재생산에 역점을 두지만 교회 내 일반 소그룹은 각기 그룹에 맞는 목적을 지향한다.

둘째, 가정교회와 일반 소그룹은 목적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가정교회는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데 혹은 깊은 공동체적인 삶을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지만 일반 소그룹들은 제각기 그룹의 발전과 목적을 이루는 일에 힘을 쓴다.

셋째, 교회 내 소그룹들은 가정교회의 기능중 한 부분만을 감당한다. 예를 들면 친교그룹은 친교를, 찬양그룹은 찬양을, 전도그룹은 전도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정교회는 이 모든 부분을 감당한다.

4. 가정교회와 소그룹과의 관계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교회와 소그룹이 다소의 차이가 있다면 교회 내에서 두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교회 내 소그룹은 든든한 가정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서 지체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가정교회에 기초를 둔 소그룹이 되어야 한다. 그리할 때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큰 공동체인 교회와 작은 공동체인 가정교회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며 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하는데 역동성 있는 역할을 한다.

제 9 절 가정교회 지도자의 리더십 개발

1. 가정교회 지도자의 자질

가정교회의 생명은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들인데 많은 목회자들이 평신도를 지도자로 훈련시키는 일에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풍성한 소그룹 목회의 열매만을 꿈꾸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가 없는 가정교회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소그룹의 부흥과 건강여부는 소그룹의 지도자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도자를 발굴하여 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가정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평신도 지도자의 리더십 개발과 훈련에 주력하지 않는다면 가정교회 사역은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지는 해처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생명이 없는 모방그룹(imitation group)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66)

이처럼 가정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도력 개발이 필수적이며 소그룹의 존폐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지도력 개발과 훈련은 건강한 목회를 위해 교회가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사명이다. 지도력이 정체되고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될 수 없다. 그 이유는 교회 성장과 지도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큰 책임과 사명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계속 자라도록 도와서 역량껏 소그룹의 중요한 기능을 다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가정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맛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전적으로 평신도 지도자에게 달려있다. 그룹원들의 의식수준이나 기술, 방법, 경험부족 등을 탓할 수도 있겠지만 일차적으로는 모든 책임이 평신도 지도자에게 달려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정교회 지도자는 무엇보다 소명의식이 투철해야 한다.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 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딤전 1:12)라고 고백하던 바울과 같은 투철한 소명의식이 가정교회 지도자에게 있어야 한다.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의식이 책임감 있게 일을 하게 한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자신이 평신도 사역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일군이 되었다는 강력한 소명감을 가지고 가정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

66) 최상태, "평신도를 깨운다," 14-16.

이웃에게 덕이 되며 교회에 유익을 가져오게 된다.

둘째, 지도자는 비전(vision)의 사람이어야 한다. 비전은 미래에 대한 계획, 통찰력, 관찰력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67) 비전이 있는 지도자가 가정교회를 능력 있게 이끌어간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으로, 혹 사명을 가진 자로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며 그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비전이 있는 지도자이다.

비전 있는 지도자는 그룹원들에게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도록 확실한 그림을 보여준다. 무조건 미래만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바탕이 되는 미래를 그룹원들에게 바라보게 하여 하나님 나라와 뜻을 성취하게 하는데 강한 동기를 불어 넣어주는 지도자가 이상적인 가정교회 지도자이다.

셋째, 지도자는 사랑의 사람이어야 한다. 가정교회 지도자는 성경을 많이 알고 배운 것이 많고 경륜이 있는 사람보다 그룹원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물으시면서 "내 양을 치라"(요 21:15-23)고 하셨다. 바로 주님께서는 양을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의 양을 맡기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이 가정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넷째, 지도자는 삶의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뢰는 리더십의 기초이다. 지도자가 삶에 본이 되지 아니하여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룹원들은 지도자의 말보다 그의 행위를 중요시 여긴다. 사람은 듣는 것보다 보는 대로 살아간다. 그러므로 가정교회 지도자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만한"(빌 4:8)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모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도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딤전 4:12). 이러한 덕목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가정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그룹원들의 모델이 되고 그런 소그룹이 생명력 있게 번식되어 나갈 수가 있다.

---

67) 이원설, 문영식, 21세기를 향한 비전과 리더십 (서울: 신망애 출판사, 1995), 126-129.

다섯째, 지도자는 협력하여 함께 동역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유능한 지도자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사람들과 협동한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자기보다 더 유능한 사람을 쓸 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 일하는 공동체가 교회이다. 독불장군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가정교회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관계적 존재이시다. 우리 구원을 위하여 삼위 하나님이 함께 동역 하시며 구원을 완성하셨다. 자기의 위치를 지키며 그룹원들에게 마음껏 받은 은사대로 사역하도록 일을 부여하며 협력과 조화 속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지도자야말로 훌륭한 가정교회 지도자인 것이다.

여섯째, 지도자는 또 다른 지도자(leader)를 길러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새로운 리더를 길러내는 것은 현재 리더에게 달려있다. 가정교회 지도자의 마지막 가치는 계승으로 측정된다. 예수께서도 공생애 3년간의 사역을 마치시고 12제자에게 그 사역을 위임하시고 승천하셨다. 제자들에게 위탁된 사역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계승되고 있다.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2)고 권면하였다. 이처럼 재생산은 가정교회 지도자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가정교회 지도자는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준비시키며 훈련시키고 있는가 자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일곱째, 지도자는 자신의 진보를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딤전 4:15). 목회자 이상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가정교회 지도자 이상으로 가정교회는 부흥할 수 없는 것이다. 교인의 수준이 절대로 목회자의 수준 이상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룹원의 수준도 그룹 지도자의 수준 이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교회 지도자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진보와 성숙을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리더십 개발을 위한 제언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훌륭한 리더십이다. 우리는 지금

리더십 위기시대에 살고 있다. 이 나라와 세계 도처에서 참다운 지도자를 찾는 외침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성경적인 지도자의 리더십 개발을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울러 우리가 개발해야 할 가정교회 지도자의 리더십은 무엇인가?

첫째는, 변화에 대처하는 리더십이다. 가정교회 지도자에게는 변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변화와 정보의 흐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방향감각을 잃을 뿐 아니라 지도자로서 그룹원들을 이해할 수 없고 바로 섬길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고 가치관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현명하게 '변화에 대처하는 리더십'을 개발해야 한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능력있게 전달하기 위하여 아울러 진리를 보존하고 사수하기 위하여 시대와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지도자가 전통과 기존 체제의 구조들만을 고집한다면 결코 소그룹을 건강하게 지탱해 나갈 수 없다.

둘째, 사역을 분담 할 줄 아는 리더십이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하여 부패한 로마 카톨릭의 교권주의로부터 평신도를 해방시켜 원래 성경의 가르침인 만인 제사장직 위치를 회복하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평신도가 목사처럼 사역하게 하는 만인 제사장적 사역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로마 카톨릭의 잔재인 교권주의, 형식주의, 의식주의, 계급주의가 교회와 교단 안에 팽배해 있다. 속히 교회는 평신도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의 장을 열어 주어야 한다. 평신도가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섬기고 도와야 한다.

'평신도에게 사역을 위임하면 목사가 할 일이 없어지고 권위가 땅에 떨어지며 평신도가 권한을 행사하여 교회에 문제를 더 일으키지 않느냐?'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사역을 해보면 반대의 현상을 볼 수 있다. 오히려 목사의 권위가 더 높아지고 목사가 효율적인 사역에 전념하게 된다. 그리고 목사와 같은 사역을 해보았기 때문에 목회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목회자의 좋은 동역자가 된다. 또 목사로부터 계속 교육과 훈련을 받는 사역자들이므로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문제 있던 사람이 문제없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존 맥스웰(John Maxwell)은 리더십의 21가지 불변의 법칙에서 "확신에 찬 리더

들만이 다른 이들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68]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동감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평신도 사역자를 발굴하고 훈련하여 그들에게 사역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인 가정교회를 위임하는 리더십을 변함없이 발휘해야 한다. 그럴 때 건강한 가정교회가 탄생되며 충성스런 평신도 지도자가 많이 배출된다.

셋째, 종의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이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 성경은 지도자라고 말할 때는 섬기는 자로서의 지도자를 말하고 있다. 폴 시다(Paul Cedar)는 그의 저서 섬기는 지도자에서 성경적인 지도자는 철저히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지도자의 이상적인 모델을 세 가지로 설명하였다.[69] 즉 큰 자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며,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그 일이 대표적인 모범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지도자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종의 리더십을 가지고 섬김의 정신으로 그룹원을 섬기고 사랑해야 함이 마땅하다.[70]

넷째, 목자 리더십(shepherd leadership)이다.[7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요 10:11);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요 10:15). 위의 두 구절에서 예수님의 리더십이 나타나고 있다. 예수님은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를 위해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으시며, 우리를 너무 잘 아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이것이 오늘날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리더십이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 떼에 마음을 두고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정확히 알아 사랑하고 치료해 주며 돌보는 지도자가 예수님을 닮은 목자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이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선한 목자 같은 지도자를 교회가 발굴하여 가정교회 지도자고 세워야 한다.

다섯째, 부모형 리더십이다. 가정교회 지도자는 부모와 같은 심정을 가진 자가

---

68) John Maxwell, 리더십의 21가지 불변의 법칙, 채천석 역 (서울: 청우출판사, 1999), 171-185.
69) Paul Cedar, 섬기는 지도자, 김성욱 역 (서울: 횃불, 1992), 55-64.
70) David Watson, 제자도, 109.
71) 이원설, 문영식, 비전과 리더십, 250-251.

합당하다. 자식을 낳아 돌보며 사랑하고 평생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부모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살전 2:7-8, 11). 때로는 그룹원이 어그러진 길로 가거나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훈계하고 권면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해야 함이 마땅하다. 때로는 어머니 같고 때로는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가정교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인 것이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지도력의 방법은 변하지만 지도력의 의미와 내용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특히 교회에 부모 같은 가정교회 지도자가 많아질 때 교회는 건강하게 된다.

여섯째, 영적 훈련(경건훈련)을 통한 리더십이다. 영적 훈련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다. 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실 수 있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곳에 우리를 가져다 놓는다. 아울러 우리에게 영적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훈련되지 않고서는 부패하고 타락한 성품에서 나오는 그릇된 습관들을 이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고전 9:27)고 말하였다. 우리 자신의 삶의 영역가운데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 습관이 있어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스스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나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부단한 영적 훈련을 통하여 그러한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나감으로 영적 훈련을 쌓아 갈 수가 있겠는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딤전 4:8).

영적 훈련을 통한 리더십 개발이 지도자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나쁜 습관이나 악한 관습들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가정교회 지도자로서 그룹원들에게 아무런 인격적 감동이나 변화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제 6 장
가정교회의 운영과 실제

제 1 절 가정교회의 조직과 임무

가정 교회의 조직과 그에 해당하는 임무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 가장 : 가정교회 모임을 주관하며 가원들을 돌보고 섬긴다. 가정교회 제반 일을 책임진다.
- 총무 : 가장을 보좌하며 가원들을 기도와 봉사로 섬긴다.
- 회계 : 헌금과 일체 예산을 담당한다.
- 새가족 담당 : 새가족이나 방문객을 위해 배려한다.
- 봉사담당 : 식사, 간식 등을 담당한다.
- 찬양담당 : 모임 시 찬양인도를 하며 찬양에 관한 모든 것을 담당한다.
- 전도담당 : 전도 이벤트를 관장하며 전도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 선교담당 : 선교헌금송금, 선교사 편지, 선교사 후원 등을 담당한다.

가정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스스로 필요에 의해 조직한다. 가정교회의 모든 사역은 평신도 지도자에게 위임하여 모든 일을 알아서 자원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한다(교회 이름, 모이는 시간, 순서진행, 후계자 선택과 양성, 특별행사기획 등).

제 2 절 가정교회 진행 순서

화평교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른다. 우선 모이면 먼저 식사부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설거지는 나중에). 형편에 따라 간식으로 대치하는 가정교회도 있다. 그런 다음에는 찬양을 2-3곡 정도 한다. 그리고 한 주간동안 일어났던 일 중에 기

뻤던 일, 감사했던 일, 힘들었던 일, 기도 응답 받은 일, 말씀 듣고 깨달은 것, 말씀 적용했을 때 생긴 일 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가장이 성경공부를 인도하고 기도한다. 마지막으로 전도보고를 하고 선교 나눔을 한다. 보통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순서를 바꾸기도 한다. 가령 새 가족이 왔을 때는 환영 및 나눔 시간으로 주로 활용하고 성경공부는 더욱 짧게 진행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순서는 생략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새 가족을 왕처럼 모시는 것이 가정교회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걸리는 소요시간은 가원들의 숫자나 나눔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첫 시간에 소그룹 가정교회에서 제일 먼저 나눌 수 있는 내용들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72)

1. 당신이 걸어 온 삶을 돌아볼 때 아주 기뻤던 일 한가지를 소개한다면?
2. 내가 했던 일 중 가정 겁이 났던 일은?
3. 사람들은 나의(　　)을 알면 놀랄 것이다.
4. 거짓말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5. 어린 시절 중에 가장 그리운 것은?
6. 만일 내가 'TV는 사랑을 싣고'의 주인공이 된다면 누구를 찾고 싶습니까?
7. 첫 번째 얻은 직장은? 가장 기억나는 일은?
8. 어렸을 때 커서 무엇이 되고 싶었는가? 왜?
9. 나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혹은 별명)
10. 그냥 재미로 하는 이야기인데 나는 죽기 전에 (　　)을 하고 싶다.
11. 혹시 똑같은 꿈을 5번 이상 꾼 적이 있나요? 무슨 꿈?
12. 결혼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이 있다면? 이 담에 결혼하면 (　　)할거야.
13. 삶이 힘들 때 가고 싶은 곳이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누구?
14. 내가 들은 나에 대한 말 중 가장 좋은 말은?
15. 내가 맛을 내고 있다면 무슨 맛이겠는가?(예-짠맛, 신맛, 쓴맛, 딸기맛, 한약맛 등)
16. 돈과 관계없이 전세계 어느 곳이든 여행할 수 있다면?
17. 방송국에서 1분 동안 이야기 할 기회를 준다면 무슨 말을?
18. 내 소집품 중 나에 대해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 이유는?
19. 최근 일주일 동안 가장 슬펐던 일은? 가장 기뻤던 일은?
20. 기적을 1가지만 일으킬 수 있다면 무슨 기적을? 왜?

---

72) Donahue Bill, 소그룹이야기, 132-137.

21. 나의 절정 경험(삶의 기뻤던 순간들)
22. 최근에 내린 어떤 결정이나 결심을 소개한다면?

제 3 절 가정교회 지도자 훈련과 교육

1. 자격

가정 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제자훈련과 지도자반과정을 마친 자.

둘째, 가정교회 사역에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 자.

셋째, 매사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

넷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

2. 훈련과 교육

위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훈련과정을 거치게 된다.

첫째, 정기모임을 매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갖는다.

둘째, 비정기적으로 특강이나 세미나, 수련회를 개최하여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향상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서로의 가정교회 현장(모임)을 참관하게 하여 자신의 지도력을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한다.

넷째, 지도자 자신이 지속적인 경건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다섯째, 서로 나눔과 토론을 통하여 사역을 배우고, 고민을 해결하게 한다.

여섯째, 강도높은 인간관계훈련을 받게 한다.

3.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교육내용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힘들어하며 두려워하고 있으나 막상 실천해 보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보람있는 사역이다. 본 연구자는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목회의 에너지를 70퍼센트 이상 쏟는다. 그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상담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2년 이상(98년 9월 이후) 실시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① 은혜로운 찬양시간과 기도회, 성경론.

② 지도자론, 멘토링, 소그룹 인도법.

③ 현장 참관을 통한 교육.

④ 소그룹에서의 사역 나눔, 토론.

⑤ 인간관계훈련: 고정관념 깨기, 가치관 경매, 칭찬과 권면하기, 내가 보는 나, MBTI 성격유형, 적응력을 개발하라,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나의 기뻤던 순간들, 관계형성과 마음열기, 자기개방, 자기소개, 가치관 명료화하기, 기질과 가정생활과 성령충만.

⑥ 특강: 가정교회란 무엇인가?, 소그룹지도자의 지속적인 리더십, 화평비전 나누기, 가정교회가 발전하고 정착되려면, 셀(Cell)의 일생, 가정교회, 화평가족 알기, 자연적 교회성장, 셀에서의 말씀공부, 경청하기, 목사에게 기둥이 됨, 지도자 느헤미야, 구도자초청모임, 가정교회 성숙을 위하여, 효과적인 전도전략, 이상적인 소그룹모델, 효과적인 가정교회사역, 귀납법적 성경연구의 이론과 실제.

⑦ 수련회, 세미나: 가정교회 비전세미나, 가장의 사명과 역할, 비전세미나, 사람을 키우라, 가정교회의 사명과 전략, 섬기는 지도자.

소그룹 모임 시 돌아가면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인도자를 선정한다.[73]

① 그룹 안에서 제일 어린 사람.

② 그룹 안에서 제일 멀리 사는 사람.

③ 그룹 안에서 대가족을 가지고 계신 분.

④ 그룹 안에서 키가 제일 큰 분으로 아직까지 인도 안 해보신 분.

⑤ 그룹 안에서 키가 제일 작은 분으로 아직까지 인도 안 해보신 분.

⑥ 그날 모임에 제일 늦게 참여하신 분.

⑦ 그날 모임에 제일 일찍 참여하신 분.

가정교회 소그룹의 생명은 지도자에게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소그룹 지도자(평신도사역자)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그 소그룹은 생명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화평교회는 가정교회 시작과 더불어 주일 오후예배시간에 평신도 사역자를 훈련하고 주일 오후예배와 수요집회를 통합하여 수요찬양집회로 모이고 있다. 최선 것에 집중

---

73) Richard Peace, "소그룹 전도와 목회" (강의,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99년 봄).

하기 위해서 차선 것을 포기하든지 축소해야 한다.

제 4 절 가정교회에서 다루는 성경공부

약 2년간은 창세기에서부터 차례로 출애굽기 3장까지 귀납법적 성경공부 형식으로 만들어 해오다가 요즈음은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다. 새로 형성된 가정교회의 경우는 설교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좋다는 반응이고 기존 가정교회 식구들 같은 경우는 성경을 차례대로 공부하는 편이 낫다는 반응이다.

교재 선택은 교회의 상황이나 가원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 합당하게 정하면 전혀 무리가 생기지 않는다. 단 한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가정교회에서 새신자를 위해 성경공부를 짧게 한다고 해서 말씀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말씀이 없는 가정교회는 생각할 수가 없다.

화평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교회 성경공부 교재의 두 가지 유형의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74)

예 1) 44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창 39:1-6)

>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와서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다시 팔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고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후에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옥중에서 죄수를 관리하는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1.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근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2, 3, 21, 23절 참고. 시 127:1)

2. 당신은 어떤 사람을 형통한 자(성공한 자)로 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 느끼는 점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

74) 최상태, 셀모임을 위한 창세기 성경공부 (서울: 화평교회 출판부, 2000), 91-92.

3.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창 26:26-28; 삼상 3:19-20; 18:12,14)

4. 창세기 39장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때 일어난 일들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 긍정적인 면 : _____
- 부정적인 면 : _____

5.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특히 어느 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사 41:10; 23:4; 마 5:8; 28:20)

예 2) 돌려 인도하시는 하나님(출 13:17-24)

지난 주 설교 말씀을 나눔

1. 당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되어집니까(예 : 악인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 기도해도 쉽게 응답이 안 되는 것)?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최단거리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 출 13:17-18절(참고. 시 103:14)

(2) 출 14:31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위하여

3.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려 인도하신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창 45:5; 롬 8:28)

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임재의 표징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 앞서

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21-22절; 참고. 출 14:19, 24).

5. 오늘날 당신의 구름기둥, 불기둥은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격려하고 인도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 5 절 가정교회에서의 전도

가정교회의 특성 중 자랑할 만한 것은 소그룹을 통한 역동성 있는 전도와 선교이다. 소그룹은 복음 전파를 위해 가장 힘있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최고 환경이다. 화평교회 각 가정교회에서는 가정교회의 정황에 따라 다양한 전도와 선교를 실시하고 있다. 선교방법은 각 가정교회별로 선교지를 정하여 기도와 물질과 교제로 후원, 협력하고 있다. 가정교회에서의 전도 방법에 있어서는 관계 전도에 역점을 두고 있다. 대면식 전도방법(confrontational evangelism)보다는 삶의 양식(life-style evangelism)으로서의 전도방법을 택하는 것이다.75)

이벤트 행사를 연1, 2회 갖는다. 어느 한 가정교회에서 개최했던 전도 이벤트 순서 하나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부에서는 식탁교제를 하고, 2부에서는 특송/ 찬양/ 기도/ 간증/ 복음제시를 하고, 3부에서는 교제 및 선물증정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이외에도 신앙강좌나 이웃초청전도집회를 열 수도 있을 것이다.

제 6 절 선교 협력과 교류

가정교회에서의 선교 협력과 교류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선교사나 농어촌 목회자를 초청하여 나눔을 갖는다.

둘째, 직접 선교지를 방문한다.

---

75) '대면식 전도'(confrontational evangelism)란 상대방의 상황이나 그들이 느끼는 필요보다는 복음선포 자체에 강조점을 두는 전도방식을 말한다. 삶의 양식으로서의 전도(life-style evangelism)란? 전도는 어떤 테크닉이나 훈련프로그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로 되어진다는 전도방법을 말한다.

셋째, 필요한 물질을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공급한다.

넷째, 선교지는 담임목사가 추천하거나 각 가정교회별로 기도하며 숙고하여 정한다.

〈표 2〉 가정교회별 선교지 현황(2001년 1월 현재)

가정교회명	선교지
열린	베트남
그리심	일본
한마음	학원선교
은혜	군선교
하은	서호교회
감사	서호교회
참사랑	러시아
늘푸른	요르단
은총	터어키
섬김	아시아C국
나눔	싱가폴
초대	군부대
청지기	브라질
참	주사랑
한가정	탈북동포
예닮	학원선교
징검다리	방글라데시
다드림	싱가폴

가정교회명	선교지
새롬	북방선교
언약	싱가폴
진리	동산교회
새천년	싱가폴
승리	큰무리교회
뵈뵈	싱가폴
부흥	싱가폴
믿음	싱가폴
사랑	태국
전진	인도
교역자	열린교회
비전	말레이시아
샘	싱가폴
제자	싱가폴
열매맺는	말레이시아
복음	북한
늘찬양	태국

제 7 장
제자훈련을 통한 가정교회 사역의 목회적 효율성

셀 목회의 생명은 지도자에 달려 있는데 그 지도자는 훈련된 지도자를 말한다. 오늘날 세계적으로나 한국적으로 목회자들이 소그룹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대단하며 그 사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열의도 크다. 그러나 소그룹 목회 이전에 사람을 세우는 제자훈련 사역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소그룹의 건강 여부가 소그룹의 지도자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소그룹의 지도자를 발굴하며 훈련하는 일에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화평교회가 짧은 기간에 준비하고 가정교회 사역을 시작한 지 2년 조금 지났지만 아래와 같은 열매들을 얻을 수 있었던 큰 이유는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속하여 평신도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있으며 교회에서 사람을 선택하여 쉬지 않고 제자훈련을 실시함으로 평신도 사역자들을 배출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제 1 절 평신도 사역자들로 인하여 돌봄의 문제 해결

가정교회 사역을 하기 이전에는 본 연구자 자신이나 교역자들을 동원하여 구역별 혹은 교구별로 전화 혹은 직접 심방 하는 일, 돌보는 일에 힘써 왔으나 역부족임을 많이 느꼈었다. 시간적으로도 소비량이 많았다. 춘계추계 심방을 하고 나면 일년이 다 지나간다.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면에서도 약했다. 집중적으로 양육하고 돌보아야 할 사람이 제외되거나 건강하고 아무런 큰 문제가 없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 동등한 섬김 정도밖에 하지 못했다. 즉 돌봄과 섬김이 비효율적으로 실행되며 과다한 소비를 교역자가 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정교회 실시 이후로는 교

역자 몇 명이 벅차게 감당하던 돌봄의 사역을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위임함으로써 수십 명이 돌보고 양육하니 전보다 더 확실하고 훨씬 효과적이었다.

제 2 절 평신도 지도자 자신의 변화와 성숙

화평교회는 가정교회 사역을 하기 이전에는 평신도들에게도 목회자처럼 다른 지체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는 줄을 몰랐었다. 그러나 가정교회 사역을 하면서 평신도 사역자들에게도 목사와 같은 마음이나 그 이상의 헌신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구성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섬김으로써 사람이 변할 뿐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 자신들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끼리의 관계도 대단하다. 형제나 부자처럼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그룹원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희생하고 헌신 할 각오와 자세가 되어 있다. 설문에 나타난 것처럼 화평교회 사역자들은 95퍼센트가 그룹원들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절 전체성도의 사역화[76]

그레그 옥덴은 그가 쓴 교회개혁 이야기에서 "교회에서 10-20퍼센트의 사람들만이 사역에 참여하고 8-90퍼센트는 구경꾼들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을 보아도 만인제사장직이 현실화되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소수만이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화평교회는 가정교회를 통하여 전체 성도가 각 가정교회 내에서 받은 은사대로 책임을 맡아 사역하고 있다.

제 4 절 관계 속에서의 친밀감

사람들의 모임 중에 가정교회처럼 분위기 좋은 곳을 만나보지 못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이 땅에 심겨진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도 같다. 서로 섬기고 사

---

76) Greg Ogden, 새로운 종교개혁 이야기 (서울: 미션월드, 1998), 5-6.

랑하고 도우며 관계 속에서 자라며 성숙해 간다.

릭 워렌이 쓴 새들백교회 이야기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77) 교인을 대상으로 이 교회를 택한 이유를 물으니 93퍼센트가 목사님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다시 이들을 대상으로,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면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옮기겠느냐'고 물으니 93퍼센트가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유를 물은 즉 여기에 내 친구, 혹 관계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무슨 교훈을 주는가? 그 만큼 사람은 관계 속에서의 친밀감이 중요하다는 교훈이다. 화평교회 교인들은 먼 곳에 이사가도 쉽게 교회를 옮기지 않는다. 그 이유는 목사의 설교보다 가정교회를 통하여 관계 형성이 잘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거기에 있든지 말든지 관계 속에서 소속감이 적을 때'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의 성장이 없게 되는 것이다.

사람은 관계적 존재다. 우리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으로 공동체적 존재이시다. 바로 가정교회야말로 관계 속에서 공동체를 성숙해 가는 최고의 분위기이며 전략인 것이다.

제 5 절 유무상통

초대교회가 네 것 내 것이 없는 유무상통의 역사가 활발했는데 가정교회 사역을 하면서 기존 구역 모임에서 볼 수 없었던 유무상통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 물질적으로 주고받는 일 힘들고 어려움 당했을 때 기도와 마음으로 쏟아 붓는 사랑과 희생은 대단하다. 수 십만 원에서 수 백만 원도 가원을 위해서라면 아까워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

가령 가정교회 식구 중 어느 가정의 식구가 실직을 당했거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하면 생활비를 대준다든지 누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병원비를 지불한다든지 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말씀 안에서의 잦은 만남과 깊은 나눔을 통해 실제적 공동체의 삶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

77) Rick Warren, 새들백 교회 이야기, 363.

제 6 절 인재발굴이 용이함

가정교회 실시 전에는 누가 무슨 은사가 있는지 무슨 재주가 있고 무엇을 잘하며 좋아하는지 잘 몰랐다. 교인의 숫자는 수백 명으로 늘었는데 개척 때나 크게 다를 바 없이 봉사하고 사역하는 사람은 일정 숫자를 넘지 않고 일하는 사람만 늘 하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가정교회를 실시하고 보니 누구나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역, 잘 할 수 있는 일을 가정교회 안에서 하게 되고 그 봉사의 계기로 큰 공동체인 화평교회에서도 자원하여 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대부분 5-12명으로 모여지는 가정교회에서 인도자, 총무, 찬양담당, 봉사담당, 새 가족담당, 선교담당, 친교와 회계담당 등이 있으니 자기 역할이 분명해지고 받은 은사대로 일할 수 있다.

제 7 절 전도와 선교에 효과적임

평상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가정교회 모임에 초청하고 기회가 되면 큰 공동체인 교회로 인도할 수 있으므로 전도에 효과적이다. 또 가정교회 전도 이벤트를 통해서도 가족이나 이웃을 초청하며 불신 가족원들을 평상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어서 전도에 효과적이다. 가정교회 실시 이후에는 교회 정문을 통해서 등록하는 사람보다 가정교회를 통해 교회 등록하는 사람이 많다.

선교에 있어서도 각 가정교회별로 선교지를 연결해서 선교하니 가원들이 선교에 더욱 열심을 내는 것을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선교사가 귀국할 시 가정교회로 초대하여 식사도하고 선교보고도 듣고 나눔과 교제는 물론 숙박제공까지 하면서 훨씬 더 관심과 열정있는 선교를 하게 되었다. 그 이후 화평교회 교인들은 전도와 선교에 더욱 헌신하고 있다. 바로 가정교회야말로 복음 전파를 위하여 가장 강력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다.

제 8 절 교회의 축제분위기

초대교회처럼 주간에는 가정교회에 모이고 주일날은 화평교회당에 큰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니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다. 항상 교회에 오면 나눔이 있고 원하기만 하면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배울 수 있으므로 교인들이 너무 좋아한다. 교인마다 화평교회 다니는 긍지와 자부심이 크고 교회 생활에 만족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제 9 절 모이는 일 배가

가정교회 하기 전 구역 모임 때보다 모이는 숫자가 2년이 지난 현재 배 이상이 늘었다. 특히 남자 성도들의 경우는 구역 모임 때보다 4배정도 더 참석한다. 그만큼 가정교회 모이는 일이 보람과 즐거움이 되므로 늦더라도 혹은 바쁘더라도 시간 내어 참석하는 것이다. 앞으로 몇 년 후면 교회 주일날 출석률보다 가정교회 출석률이 더 많아지리라 예상된다.

제 10 절 교회사랑

13년의 교회역사를 가진 화평교회는 아직 교회건물이 없다. 그러나 성도들의 교회 사랑은 대단하다. 교회당 부지를 구입할 때만해도 익명으로 헌금을 했는데 단기간 내에 화평교회 식구들 생활 정도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많은 헌금들을 했다. 이러한 현상은 주님 사랑, 교회 사랑의 한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제 11 절 주간 중 사역활동으로 인한 교제 활발

주간 중에 가정교회별로 정식모임을 갖는 시간외에도 필요에 따라 성경 읽기 모임, 봉사활동, 식사모임, 기도회, 전도이벤트, 가원들을 돌보는 심방, 스포츠 모임, 하룻밤수련회, 영화 연극관람, 음악회, 등산, 축하모임, 여행 등등 수시로 교제한다. 마치

어느 개척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가정교회에서 그대로 혹은 그 이상 행하고 있는 것이다.

제 12 절 본보기(modeling)로 인한 사역과 준비

사람은 듣고 배우는 것보다 보고 배우는 것을 더 잘하는데 가정교회에서 서로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무척 많다. 교회에서 여러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얻는 것 못지 않게 가정교회 현장에서 직접 보고 얻는 것이 많다. 평신도 지도자인 가장(총무)이 어떻게 가원들을 가르치고 섬기는가를 가원들은 견습생으로서 보고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되므로 예비가장(예비리더)은 자연스럽게 탄생, 훈련되며 나중에 가정교회가 부흥하여 분가하게 되면 본 그대로 가정교회 사역을 그들이 맡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제 8 장
건강한 교회들의 특성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독일의 사회학자인 크리스티안 A. 슈바르츠는 심리학자이자 사회과학자인 크리스토프 쇼크(Christoph Schalk)의 자문을 받아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들의 8가지 질적 특성의 원리들을 발표하였다.[78]

슈바르츠는 1994년부터 1996년까지 6대주에 산재해있는 32개 나라 1000여 교회를 대상으로 각 교회마다 30명에게 설문지를 돌려 그 응답들을 420만 개로 분석했다. 슈바르츠는 교회의 건강 정도를 알 수 있는 8가지 질적 특성을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은사 중심적 사역, 열정적 영성, 기능적 조직, 영감있는 예배, 전인적 소그룹, 필요 중심적 전도, 사랑의 관계"라고 말하였다.[79] 그리고 그는 8가지 질적 특성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희생시키거나 무시되어서는 아니 되며 조화를 이루어 상호작용할 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제 1 절 화평교회 자연적 교회성장(NCD) 건강진단 결과

화평교회는 1999년 상반기에 평신도 사역자들과 훈련받고 있는 평신도 31명을 대상으로 자연적 교회성장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 그 진단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3> 자연적 교회성장 설문조사 결과

최소요소	지도력	은사중심	영성	조직	예배	소그룹	전도	관계	평균
전도	79	86	80	79	68	88	64	95	80

78) Christian A. Schwartz, 자연적 교회성장, 윤수인 외 역 (서울: NCD, 1999), 38-39.
79) Ibid., 49-51.

첫째, 전체 품질 지수가 평균 80이 나왔는데 NCD 이론에 입각하여 판단해 볼 때 아주 우수한 질적 지수라 할 수 있다. NCD에서는 교회 안에 질적 가치가 있으면 양적 성장은 그 확률이 99.4퍼센트 정도로 항상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1000교회 중 8가지 분야 모두에서 '65'의 질적 지수에 도달하거나 그 이상 되는 교회는 모두 성장하는 교회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화평교회는 현재도 건강하지만 앞으로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결론이 나온다.80)

둘째, 화평교회가 가장 품질 지수가 높은 요소는 사랑의 관계(95)와 소그룹(88)이고 품질 지수가 가장 낮은 요소는 전도(64)이다. NCD 원리에 의하면 약점을 보완하여 교회의 건강을 회복하려면 현재 교회가 갖고 있는 강점을 이용하여 그 교회의 약점을 보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화평교회는 최대 강점인 사랑의 관계와 소그룹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가장 최소치 요소인 전도에 각 가정교회별로 주력하고 있다.

화평교회가 사랑의 관계나 소그룹이나 은사 중심적 사역 등이 품질 지수가 높은 이유는 제자훈련사역과 가정교회 사역의 결과라는 것을 확신있게 말할 수 있다.

제 2 절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의 설문조사 결과

아래의 설문지는 국제제자훈련원과 각 교단신문, 목회월간지, 지역기독교정보지 및 잡지 등을 참고로 하여 전국 주요 10개 도시(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목포)를 중심으로 30개 교회를 선정하고 목회자들에게 직접 설문지를 보내어 응답을 받은 설문내용이다.

교회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NCD 건강진단을 받아 전체 평균 질적 지수가 60이상 되는 18개 교회와 평균지수가 60이하 되는 3개 교회.

둘째, NCD 교회 건강진단을 받지 안았지만 지역에서 건강한 교회로 주목받고 있는 9개 교회.

셋째, 양적으로 전체 평균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

80) Christian A. Schwartz, 자연적 교회성장, 40.

넷째, 지역에서 건강한 교회로 평판이 나있는 교회.

설문지

1. 귀 교회가 교회건강진단서인 NCD평신도 설문을 받아보셨다면 그때 질적 지수는 대략 어느 정도였습니까?

90점 이상 (2명)　　80-90점 (1명)　　70-80점 (9명)

60-70점 (6명)　　50-60점 (2명)　　50점 이하 (1명)

받지 않았음(9명)

2. 귀 교회는 제자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정착되어 활성화 단계이다 (23명)　　실시하고 있다 (7명)

실시하려고 준비중이다 (　　)　　실시하다 그만두었다 (　　)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　　)

3. 귀 교회의 교인들은 소그룹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전교인의 80퍼센트가 참여하고 있다 (11명)

전교인의 60퍼센트가 참여하고 있다 (16명)

전교인의 30퍼센트가 참여하고 있다 (3명)

교회 안에 소그룹 모임이 약하다 (　　)

〈표 4〉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의 설문조사 결과

설문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조금 그렇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사람이 변화하려면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83퍼센트	17퍼센트			
2. 제자훈련은 교회성장과 성숙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	80퍼센트	20퍼센트			
3. 제자훈련 사역을 할 때 지도자 자신의 인격이 사역의 성패를 좌우한다.	87퍼센트	13퍼센트			
4. 오랫동안 제자훈련을 한 교회는 평신도 지도자후보생이 많다.	70퍼센트	23퍼센트	7퍼센트		
5. 제자훈련시 훈련생의 의식수준은 매우 중요하다.	47퍼센트	53퍼센트			
6. 지도자 자신의 변화와 성숙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17퍼센트	73퍼센트	7퍼센트	3퍼센트	
7. 소그룹 목회를 지향하는 이유는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83퍼센트	17퍼센트			
8. 지금은 제자훈련을 가장 중시하고 있으나 더 좋은 프로그램이 생기면 바꿀 생각도 있다.		3퍼센트	10퍼센트	60퍼센트	27퍼센트
9. 평신도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소목회를 할 수 있다.	47퍼센트	50퍼센트	3퍼센트		
10.성도간에 삶을 깊이 나누려면 소그룹 형태가 좋다.	87퍼센트	13퍼센트			
11.건강한 교회를 이루려면 서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그 안에 섬김과 나눔이 풍성해야 한다.	90퍼센트	10퍼센트			
12.소그룹은 함께 배우며 자랄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다.	73퍼센트	27퍼센트			
13.소그룹은 영적 가족임을 체험하고 영적 재생산을 실현하는 데 적격이다.	83퍼센트	17퍼센트			
14.소그룹 안에서 사역을 분담함으로써 은사를 발견할 수 있고 은사에 맞게 일할 수 있다.	63퍼센트	37퍼센트			

설문 내용의 응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을 세우는 제자훈련 사역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세움을 입은 사람들이 역량껏 사역할 수 있는 소그룹 목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괄목할 만한 사실은 제자훈련하는 교회들이 자연적 교회성장 질적 지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다. 따라서 화평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제자훈련과 평신도 사역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소그룹의 최고 환경인 가정교회 사역이야말로 성경에 기초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는 최고의 목회 전략이며 핵심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이 설문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자훈련부분: 한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제자훈련 같은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며 그 제자훈련은 한 교회의 성숙이나 성장에 밑거름이 될 뿐 아니라 소그룹목회를 실행하게될 때 지도자로 세울만한 평신도 사역자가 많아 좋다는 것이다. 성공적인 제자훈련을 위해서는 지도자 자신의 인격과 삶이 중요하며 훈련생들의 의식수준도 큰 몫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소그룹부분: 건강한 교회를 이루려면 성도간에 관계가 중요하고 그 안에 섬김과 나눔이 풍성해야 한다는 것과 서로의 삶을 깊이 나누려면 소그룹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소그룹 안에서 영적 가족임을 체험하고 복음전파를 감당하므로 영적 재생산을 실현해가며 함께 배우고 함께 자라는 가운데 각자 은사를 발견함으로써 은사껏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3 절 화평교회 평신도와 평신도 사역자의 의식구조 설문조사

1. 평신도 설문조사

화평교회 등록한지 1년 이상 된 자로 평신도 1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평신도 의식구조 설문지

1. 우리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감격스러웠다.
① 정말 그렇다 (37명/ 35퍼센트)
② 그렇다 (40명/ 38퍼센트)
③ 가끔 그렇다 (26명/ 24퍼센트)
④ 아니다 (3명/ 3퍼센트)
⑤ 전혀 아니다 (0명)

2. 양육과 훈련프로그램에 대하여
① 이미 훈련받았는데 그 모임을 통해 나의 신앙이 정립 내지는 성숙되었다 (76명/ 72퍼센트)
② 기회가 되면 나도 훈련받고 싶다 (27명/ 25퍼센트)
③ 별 관심 없다 (2명/ 2퍼센트)
④ 전혀 관심밖이다

3. 화평교회에서의 신앙생활에 대해
① 아직 불완전하지만 현재의 교회생활을 통해 하나님나라를 경험하고 있다 (79명/ 75퍼센트)
② 비교적 만족할 만하다 (20명/ 19퍼센트)
③ 그저 그렇다 (7명/ 7퍼센트)
④ 불만스럽다 (0명)

4. 교회 행사들(이웃초청참사랑축제, 신앙강좌, 부모사랑경로잔치 등등)을 어떻게 보는가?
① 의미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행사여서 적극 참여하였다 (52명/ 50퍼센트)
② 뜻깊은 행사들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참하지는 못했다 (54명/ 50퍼센트)
③ 별 의미 없는 1회성 행사라고 본다 (0명)
④ 전시효과를 겨냥한 행사일 뿐이다 (0명)

5. 가정교회는 성경적인 모임이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나누고 섬기는 가운데 나는 형제애(사랑)를 느낀다.
① 정말 그렇다 (77명/ 73퍼센트)
② 그렇다 (24명/ 23퍼센트)
③ 아니다 (1명/ 1퍼센트)
④ 전혀 아니다 (1명/ 1퍼센트)

6. 가정교회를 통해 전도와 선교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일에 더욱 헌신하게 되기를 원한다.
① 정말 그렇다 (51명/ 48퍼센트)
② 그렇다 (50명/ 47퍼센트)
③ 아직 관심없다 (5명/ 5퍼센트)

평신도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첫째, 화평교회 평신도들은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97퍼센트이상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화평교회 평신도들은 제2항에서처럼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앙이 정립되고 성숙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였으며 '기회가 되면 나도 훈련받고 싶다'고 답한 교인을 포함하면 97퍼센트가 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화평교회 평신도들은 교회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만족스런 교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94퍼센트). 이 사실에 근거할 때 화평교회의 분위기가 어떠함을 짐작할 수 있다.

넷째, 제4항에 나타난 것처럼 화평교회 평신도들은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행사들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0퍼센트-100퍼센트).

다섯째,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평교회 평신도들은 가정교회 모임을 성경적인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가정교회의 목적에 걸맞게 서로의 관계속에서 형제사랑을 경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96퍼센트).

여섯째, 화평교회 평신도들은 가정교회를 통해 전도와 선교에 더욱 관심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95퍼센트). 사실 화평교회는 현재 가정교회별로 선교지와 선교사를 정하여 후원하고 있으며 가정교회에서 전도이벤트를 개최하여 생활 중 관계전도에 힘을 쓰고 있으므로 설문의 결과가 위와 같이 나타난 것은 당연한 일이다.

2. 평신도 사역자 설문조사

화평교회 평신도 사역자 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은

첫째, 사역자들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되고 인격과 생활의 변화를 경험한 사역자들이 97퍼센트-100퍼센트로 나타난 것을 보면 그만큼 제자훈련은 한사람의 인격과 삶을 성숙하게 하는 훈련임을 알 수 있다.

둘째, 2항과 6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화평교회의 평신도 사역자들은 가정교회 사역을 강한 소명의식 속에서 헌신하고 있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95퍼센트).

셋째, 3항에서는 화평교회 평신도 사역자들은 가정교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를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100퍼센트).

넷째, 설문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평교회는 제자훈련사역을 통해서 이미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있었지만 가정교회사역을 통해서 더욱 건강하고 균형있는 교회로 성숙해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100퍼센트).

다섯째, 설문 5항에서처럼 화평교회 사역자들은 가정교회사역을 하면서 더욱 영적으로 성숙해졌을 뿐 아니라 삶의 방향과 목적이 확실해졌음을 알 수 있다(94퍼센트-98퍼센트).

제 9 장
가정교회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제언들

로버트 뱅크스는 '가정교회가 아름답게 진행하고 발전하려면 그룹의 역동성, 토론 방식, 지도자의 스타일, 인간관계 등이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부차적인 것이 되어야지 주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부차적인 것을 앞세울 때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모임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인간적인 지나친 형식과 조직과 계획을 앞세울 때 가정교회가 정착되고 발전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심는 이나 물주는 이가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고전 3:7)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입어 가정교회 사역을 할 때 풍성한 열매들을 경험하게 된다.

가정교회 발전에 중요한 요인을 몇 가지 든다면 다음과 같다.

제 1 절 일반적인 것들

첫째, 영적 지도자 자신이 가정교회에 대한 비전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

이 사역의 중요성과 가치성을 성경을 토대로 충분히 인식하고 여기에 목회를 걸어야겠다는 각오와 다짐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어그러진 길로 갈 수가 있다.

둘째,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가정교회의 생명은 지도자에게 달려있다. 가정교회를 한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라 한다면 한 교회의 작은 교회를 맡길 때 훈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위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영적 지도자는 사람 세우는 일에 주력해야 할 뿐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

교회가 일시적으로 일어설 수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부흥되기는 어렵다.

셋째, 가정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핵심 멤버가 필요하다.

가정교회 지도자 외에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본이 되는 멤버가 있으면 그 가정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다. 핵심되는 구성원이 없을 때 성장이 더딜 뿐만 아니라 사역자는 지치게 되고 좋은 분위기 형성이 어려워 새가족이 왔을 때 적응하기가 힘들어지게 된다.

넷째,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계속적인 훈련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을 정해야 한다.

가정교회 지도자들도 사역하다 보면 영적, 육적으로 지치고 힘들어질 때가 있다. 교육과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쉽게 극복할 수 있으며 지도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도 계속 공급받을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가정교회의 허약한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교회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가정교회 식구들의 욕구는 다양하다. 더 깊이 성경을 알기 원한다든지, 부부훈련을 받고 싶다든지, 전도훈련을 받고 싶다든지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싶다든지 할 때 언제든지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교회에서 진행되어야 교회가 균형을 유지하며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다. 작은 교회인 가정교회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큰 교회가 다양한 영역에서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외봉사활동이나 선교지 협력하는 일, 전체적인 교제나 가정교회 부흥을 위한 행사 등에서 교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이 되어야 한다. 벡헴이 그의 책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큰 날개인 교회와 작은 날개인 가정교회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며 이 땅에서 건강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여섯째, 가정교회가 살려면 기존의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이나 행사 그리고 그룹들을 과감하게 없애든지 축소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교회 참여가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가정교회 참여할 에너지와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가정교회가 생명력 있게 나아갈 수가 없다. 가정교회에 합당한 집중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교회의 과잉조직과 여러 가지 일로 압도당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최선 것을 위하여 차선 것들을 줄이거나 포기해야 한다. 가령 남녀 전

도기관이나 각종 위원회와 여러 모임과 행사들 중에 가정교회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게 하는데 지장이 된다면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든지 없애든지 할 때 가정교회 사역이 활발하게 진전될 수 있다.

일곱째, 가정교회 사역 보고서를 매 주일 보고 받아야 한다.

담임 목사는 가정교회 지도자들로부터 한 주간 동안 사역했던 사항들을 보고 받음으로써 가정교회 전체 정황들을 알게 되고 교인 한사람 한사람의 현재 형편과 처지를 알게된다. 또 기도할 일이나 상담 및 심방 할 일, 감사한 일등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게 됨으로 목회 사역에 전체 성도와 교제하며 섬기는 데 상당한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제 2 절 실제적인 것들

가정교회가 정착되고 발전하려면 몇 가지 마음에 깊이 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왜 많은 목회자들이 그토록 관심 갖고 갈망하던 가정(셀)교회 사역을 시작했다가 얼마가지 못하여 부도를 내는가?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다.

첫째, 처음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라.[81]

벡햄은 그가 쓴 책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지향하는 셀교회가 신드롬에 빠지는 이유는 첫째, 준비단계부터 번식 부흥을 기대할 때, 둘째, 참 의미를 먼저 바꾸지 않고 구조만을 바꾸려 하는 경우, 셋째, 원칙과 계획 혹은 개념을 중요시하지 않고 방법과 물질을 의존할 때, 넷째, 셀 그룹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주일 예배도 강하게 강조할 때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 교회가 놓일 때 가정교회의 신드롬의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벡헴은 지적한다.

가정교회를 위한 준비중에 가장 큰 준비는 목회자 자신이 먼저 준비되어야 하고 그 다음은 사람을 훈련해서 세우는 일이다. 가정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사역하신 원형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 예수께서는 그의 교회를 세워 나가실 때 먼저 세 제자를 선두그룹 모델 공동체로 삼으셨고, 열두 제자를 핵심지도자로, 칠십 명

---

81) William A. Beckham, 제2의 종교개혁, 229-237.

을 지지층으로 그리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백이십 명을 회중의 첫 기반으로 삼으셨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삼천 명, 오천 명, 만 명, 헤아릴 수 없는 회심자들이 나타났어도 전혀 무리가 생기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지지기반을 확실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께서 하신 원형적인 기본단계를 소홀히 하고 가정교회 사역을 한다면 처음에 수정과 조정을 하는 것보다 50배 이상의 많은 시간과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82)

교회가 가정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지도자가 이러한 일은 소홀히 한 채 역동적인 셀 교회를 방문하고 세미나에 참여하고 셀에 대한 책을 읽고 도전을 받았다고 해서 가정교회에 대한 시간 계획이나 과정에 대한 설명도 없이 서둘러 가정교회를 실시할 때 거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왜 가정교회 사역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경적인 기초 위에서 많은 생각을 해본다면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 주고자 각기 다른 각도에서 성경을 기록한 것처럼 목회자는 가정교회에 대한 큰 그림을 확실하게 회중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할 때 회중이 지도자를 따르게 되며 여기로부터 좋은 가정교회가 탄생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가정교회 사역이 교회의 모든 사역 중에 중심이 되도록 하라.

가정교회 사역은 교회의 공동체성과 직결되는 본질적인 사역이니 만큼 교회의 각 그룹 모임이나 행사나 봉사나 그리고 교육과 훈련 등이 가정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가정교회 사역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가정교회 사역을 목회의 한 부분이나 방법론 혹은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면 결코 건강한 가정교회를 세울 수 없다.

그러므로 가정교회가 정착되고 발전하려면 가정교회 사역이 교회사역의 중심부에 그리고 맨 앞에 와 있어야 한다.

셋째, 구성원들끼리 서로 친밀하게 알아 가는 일에 초점을 맞춰라.

가정교회에 참여하는 자들이 가면을 벗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가정교회에 참여한 구성원들 사이에 서먹서먹하게 냉각된 분위기를 깨뜨리고 친밀한 관계형성을 위해서 마음열기(ice break) 게임을 한다든지, 당분간 그룹을 더 작게 유지시킨다든지, 모

---

82) William A. Beckham, 제2의 종교개혁, 234.

임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좋다.

처음 참여한 자들이 자발적으로 질문하고 자원해서 이야기도 할 수 있도록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일에 지도자는 힘써야 한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서로 친숙해짐으로써 더 나은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이다.

넷째, 영적 재생산(분가)에 역점을 두라.

가정교회 큰 목표 두 가지를 든다면 내부적으로는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과 외부적으로는 주님 지상명령을 준행하는 전도라고 할 수 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적인 삶에만 관심 두지 않았고 밖을 향한 관심도 컸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하여 나갔다.83) 가정교회가 전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모이는 교회로만 안주해 버린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 가정교회 초기에는 새 가족을 위해 나눔에 역점을 둘 수 있지만 가정교회가 자라갈수록 전도 나눔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랄프 네이버와 로렌스 콩은 가정(셀) 그룹의 일생을 아래 도표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84)

다섯째, 인내가 필요하다.

건강한 가정교회가 탄생이 되고 자라기까지는 여러 가지 갈등의 단계가 있다.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가정교회는 어느 곳에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서로 친밀하며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고 성도들의 뜨거운 교제와 나눔이 있고 기쁨도 크다는 것을 발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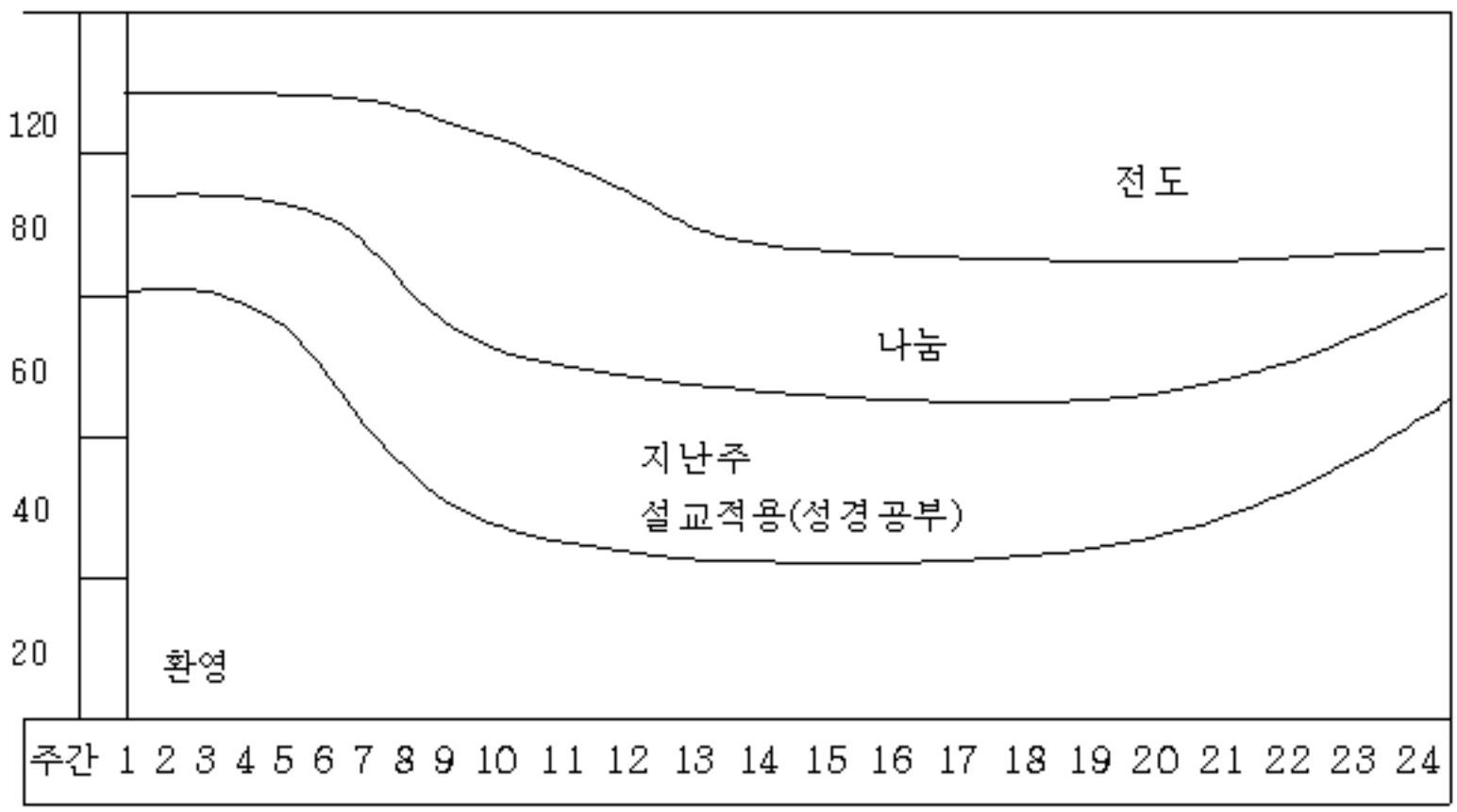
그러나 거기에 못지 않게 갈등과 정신적 고통도 크다. 공동체내에서 고민과 갈등을 경험하는 동안 가정교회 식구들은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나 이 일 후에 더 큰 기쁨과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가족임을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갈등과 고민의 시기가 닥칠 때 소망 중에 인내로써 이겨나가야 한다.

역동성 있는 가정교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서 진통을 경험한 후에 풍성한 열매를 얻는 것을 볼 수 있다. 너무 서둘러 부흥을 기대하지 말라. 가정교회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

83) Robert and Julia Banks, The Church Comes Home, 39.
84) Ralph W. Neighbour, 셀목회 지침서, 308-311.

〈표 5〉 셀 그룹의 일생


120
80
60
40
20
전도
나눔
지난주
설교적용(성경공부)
환영
주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제 10 장
결 론

본 연구자는 본 논문을 통하여 가정교회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던 이유는 사람 세우는 제자훈련 사역이 먼저 있었기 때문임을 화평교회 현장을 공개하면서 역설하였다. 그러므로 제자훈련 사역이 모든 사역의 근본이요 바탕이라는 것이 가정교회 사역을 통하여 더욱 확실히 드러나게 된 것이다.

제 1 절 사람을 세우는 제자훈련

현대교회가 평신도를 훈련해서 사역자로 세우지 않는 한 사역에 어떠한 열매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이 일을 한다 해도 바른 동기와 태도를 가지고 할 수 없다. 제자훈련은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훈련이다. 예수를 믿어 그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으니 참 제자로서의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하고 더 나아가 또 다른 이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으로 훈련하고 성숙시키는 사역이 바로 제자훈련사역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목회사역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제자 만들라'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무시하고 있다.[85] 그 결과 한국 교회는 표류하고 있으며 성숙한 주의 제자들이 희귀하며 성장이 둔화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했던 주된 사역이 무엇이었던가? 사람 세우는 제자훈련이 아니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사람 세우는 본질적인 일을 외면한 채 비본질적인 것에 매어 달리고 있는 경향이 많다. 혹 제자훈련을 한다 해도 교회의 일개 프로그램이나 사역의 테크닉 정도로 생각한다. 그 결과로 오늘날

---

85) David Watson, 제자도, 9.

현대 교회 안에 잠자는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하여 '만인 제사장직'을 제창했지만 거의 대부분 관람객으로 있지 사역하는 평신도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제 한국 교회는 평신도들을 훈련시켜서 사역을 그들에게 돌려야 한다. 오직 목사는 평신도들을 구비시켜주고 온전케 하는 사역에만 전념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평신도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유기체임을 깨달아 상호의존교회가 되도록 힘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제1장 문제제기에서 말한 것처럼 제자훈련을 통해서 얻어진 복들을 화평교회의 현장을 공개하면서 언급하였다. 또 평신도를 훈련해서 사역자로 세우는 일의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하였다.

제 2 절 이상적 공동체인 가정교회

사람 세우는 제자훈련 사역이 중요한 만큼 훈련받은 사람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현장도 중요하다. 바로 그 현장이 가정교회이다. 가정교회는 훈련받은 사역자들이 목사처럼 일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교회는 온 가원들이 함께 배우며 자랄 수 있는 분위기이다. 무슨 사역을 한다해도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사역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오래 지속할 수도 없다. 바로 가정교회 사역은 역사상에 나타났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인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교회의 건강 여부를 알아보려면 초대교회의 모습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오늘날 전통적인 교회는 신약교회를 무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초 공동체 된 가정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86]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가정교회 사역이 성경적,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사역임을 3장에서 밝히면서 신약에서 보여주는 모델 교회가 가정교회였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제자훈련을 기초로 하여 세워진 화평교회의 기초 공동체인 가정교회 사역의 실제와 현장을 5, 6장에서 그대로 내놓았다.

---

86) Bill Hull, 모든 신자를 제자로 삼는 교회, 12-16.

제 3 절 제자훈련과 가정교회와의 관계

오늘날의 교회의 큰 문제는 극단으로 흐르고 있는 현상들이다. 더군다나 본질도 아닌 어떤 지엽적인 프로그램이나 방법론을 가지고 한쪽으로만 치우침 속에서 균형을 잃은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또한 본질적인 사역이라 할지라도 한 부분만 강조되어질 때 기형아적인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윌리암 벡헴이 말한 것처럼 양 날개(성전과 가정교회)가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87)

바로 제자훈련과 가정교회는 유기적인 관계로서 목회 본질에 속하는 사역이다. 제자훈련 사역은 모든 사역의 원천이며 근본이며 바탕이 되는 사역이다. 그리고 가정교회는 훈련된 사람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최고 환경이며 아름답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다.

가정교회야말로 이 시대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이다. 평신도 사역자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받은 은사대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최고의 분위기이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제자훈련과 가정교회, 가정교회와 제자훈련을 목회의 두 기둥, 두 사이클로 생각하고 여기에 목회를 걸고 있다.

본 연구자가 목회하고 있는 화평교회의 특성은 '제자훈련에 기초한 가정교회, 가정교회에 기초한 화평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

제 4 절 대안과 제안

목회사역의 주된 관심은 구조나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이제 한국교회가 건강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조직과 제도 중심인 전통적인 교회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되심을 인정한다면 본래의 모습인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이제 목회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며 부탁하신 사람 세우는 일과 평신도들에게 사역할 수 있는 현장을 속히 주는 일 그리고 성도간에 깊은 나눔과 섬김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

---

87) William A. Beckham, 제2의 종교개혁, 153.

아야 한다.

그레그 옥덴(Greg Ogden)은 "목사 혼자 무대 위에서 연기하지 말고 청중석에 앉아있는 평신도들을 끌어 올려 무대 위의 연기자로 세우는 일에 목회의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88)고 강조하고 있다.

바로 제자훈련과 가정교회 사역이야 말로 구경만 하고 있는 평신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살도록 구비시켜 무대로 끌어올리는 사역이다. 이러한 사역에 교회가 힘쓸 때 질적, 양적으로 부흥하며 건강하게 된다고 확신한다. 바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기반이 확실한 두 가지 사역 즉, 제자훈련과 가정교회 사역은 침체된 한국교회를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최고의 목회본질이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위임하신 제자사역과 이상적 소그룹인 가정교회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써 주의 몸 된 교회가 건강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한다.

---

88) Greg Ogden, 새로운 종교개혁이야기, 125-153.

부록 1

화평교회 설문조사

화평교회 평신도 의식구조 설문조사(1년 이상 된 평신도 106명 대상)

1.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감격스러웠다.

① 정말 그렇다/ 37명(35퍼센트)
② 그렇다/ 40명(38퍼센트)
③ 가끔 그렇다/ 26명(25퍼센트)
④ 아니다/ 3명(3퍼센트)
⑤ 전혀 아니다/ 0명

2. 양육과 훈련프로그램에 대하여

①이미 훈련받았는데 그 모임을 통해 나의 신앙이 정립 내지는 성숙되었다/ 76명(72퍼센트)
②기회가 되면 나도 훈련받고 싶다/ 27명(25퍼센트)
③별 관심 없다/ 2명(2퍼센트)
④전혀 관심밖이다/ 0명

3. 화평교회에서의 신앙생활에 대해

① 아직 불완전하지만 현재의 교회생활을 통해 하나님나라를 경험하고 있다/ 79명(75퍼센트)
②비교적 만족할 만하다/ 20명(19퍼센트)
③그저 그렇다/ 7명(7퍼센트)
④불만스럽다/ 0명

4. 교회 행사들(이웃초청참사랑축제, 신앙강좌, 부모사랑경로잔치 등)을 어떻게 보는가?

① 의미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행사여서 적극 참여하였다/ 52명(50퍼센트)
② 뜻있는 행사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참하지는 못했다/ 54명(51퍼센트)
③ 별 의미없는 1회성 행사라고 본다/ 0명
④전시효과를 겨냥한 행사일 뿐이다/ 0명

5. 가정교회는 성경적인 모임이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나누고 섬기는 가운데 나는 형제애(사랑)를 느낀다.

① 정말 그렇다/ 77명(73퍼센트)
② 그렇다/ 24명(23퍼센트)
③ 아니다/ 1명(1퍼센트)
④ 전혀 아니다/ 1명(1퍼센트)

6. 가정교회를 통해 전도와 선교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일에 더욱 헌신하게 되기를 원한다.

① 정말 그렇다/ 51명(48퍼센트)
② 그렇다/ 50명(47퍼센트)
③ 아직 관심 없다/ 5명(5퍼센트)

2. 평신도 사역자 설문조사(화평교회 평신도 사역자 37명 대상)

1. 나는 제자훈련을 통해 신앙이 성숙되고 인격과 생활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① 정말 그렇다/ 26명(70퍼센트)
②그렇다/ 10명(27퍼센트)
③ 그런 편이다/ 1명(3퍼센트)
④ 아니다/ 0명

2. 지금 내가 가정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 때문이며 나의 남은 삶을 그분께 드리기로 헌신하였다.

① 정말 그렇다/ 35명(95퍼센트)
② 아직 잘 모르겠다/ 2명(5퍼센트)
③ 아니다/ 0명

3.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며 우리 가원들 가운데 늘 역사하신다.

① 정말 그렇다/ 37명(100퍼센트)
② 아마 그럴 것이다/ 0명
③ 그렇지 않다/ 0명

4. 가정교회 실시 이전과 이후의 화평교회를 비교하여 건강정도를 평가해 보라.(영적 성숙, 예배와 기도생활, 전도와 선교, 나눔과 돌봄, 헌신도 등을 고려)

① 튼튼한 교회로 성장했다/ 20명(54퍼센트)
② 매우 좋아졌다/ 11명(30퍼센트)
③ 조금 좋아졌다/ 6명(16퍼센트)
④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0명
⑤ 허약해졌다/ 0명

5. 가정교회를 맡아 영적인 사역(소목회)을 하면서 내 삶의 목적, 방향이 확실해졌다.

① 정말 그렇다/ 19명(51퍼센트)
② 그렇다/ 16명(43퍼센트)
③ 그런 것 같다/ 2명(5퍼센트)
④ 그렇지는 않다/ 0명

6. 언제까지 이 사역에 헌신하고 싶은가?

① 주님이 허락하시면 부름받는 그날까지/ 29명(78퍼센트)
② 좀 더 해보고 결정할 것이다/ 5명(14퍼센트)
③ 한시적으로 혹은 화평교회 있을 동안/ 2명(5퍼센트)
④ 생각해 본 적 없다/ 1명(3퍼센트)

제 2 절 건강한 교회들의 설문조사

전국 10개 도시에서 건강한 교회로 평이나 있는 30개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이다.

1. 사람이 변화하려면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① 매우 그렇다/ 25명(83퍼센트)
② 그렇다/ 5명(17퍼센트)
③ 조금 그렇다/ 0명
④ 아니다/ 0명
⑤ 전혀 아니다/ 0명

2. 제자훈련은 교회성장과 성숙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

①매우 그렇다/ 24명(80퍼센트)
② 그렇다/ 6명(20퍼센트)
③ 조금 그렇다/ 0명
④ 아니다/ 0명
⑤ 전혀 아니다/ 0명

3. 제자훈련 사역을 할 때 지도자 자신의 인격이 사역의 성패를 좌우한다.

① 매우 그렇다/ 26명(87퍼센트)
② 그렇다/ 4명(13퍼센트)
③ 조금 그렇다/ 0명
④ 아니다/ 0명
⑤ 전혀 아니다/ 0명

4. 오랫동안 제자훈련을 한 교회는 평신도 지도자 후보생이 많다.

① 매우 그렇다/ 21명(70퍼센트)
② 그렇다/ 7명(23퍼센트)
③ 조금 그렇다/ 2명(7퍼센트)
④ 아니다/ 0명
⑤ 전혀 아니다/ 0명

5. 제자훈련시 훈련생의 의식수준은 매우 중요하다.

① 매우 그렇다/ 14명(47퍼센트)
② 그렇다/ 16명(53퍼센트)
③ 조금 그렇다/ 0명
④ 아니다/ 0명
⑤ 전혀 아니다/ 0명

6. 지도자 자신의 변화와 성숙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① 매우 그렇다/ 5명(17퍼센트)
② 그렇다/ 22명(73퍼센트)
③ 조금 그렇다/ 2명(7퍼센트)
④ 아니다/ 1명(3퍼센트)
⑤ 전혀 아니다/ 0명

7. 소그룹 목회를 지향하는 이유는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① 매우 그렇다/ 25명(83퍼센트)
② 그렇다/ 5명(17퍼센트)
③ 조금 그렇다/ 0명
④ 아니다/ 0명
⑤ 전혀 아니다/ 0명

8. 지금은 제자훈련을 가장 중시하고 있으나 더 좋은 프로그램이 생기면 바꿀 생각도 있다.

① 매우 그렇다/ 0명
② 그렇다/ 1명(3퍼센트)
③ 조금 그렇다/ 3명(10퍼센트)
④ 아니다/ 18명(60퍼센트)
⑤ 전혀 아니다/ 8명(27퍼센트)

9. 평신도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소목회를 할 수 있다.

① 매우 그렇다/ 14명(47퍼센트)
② 그렇다/ 15명(50퍼센트)
③ 조금 그렇다/ 1명(3퍼센트)
④ 아니다/ 0명
⑤ 전혀 아니다/ 0명

10. 성도간에 삶을 깊이 나누려면 소그룹 형태가 좋다.

① 매우 그렇다/ 26명(87퍼센트)
② 그렇다/ 4명(13퍼센트)
③ 조금 그렇다/ 0명
④ 아니다/ 0명
⑤ 전혀 아니다/ 0명

11. 건강한 교회를 이루려면 서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그 안에 섬김과 나눔이 풍성해야 한다.

① 매우 그렇다/ 27명(90퍼센트)
② 그렇다/ 3명(10퍼센트)
③ 조금 그렇다/ 0명
④ 아니다/ 0명
⑤ 전혀 아니다/ 0명

12. 소그룹은 함께 배우며 자랄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다.

① 매우 그렇다/ 22명(73퍼센트)
② 그렇다/ 8명(27퍼센트)
③ 조금 그렇다/ 0명
④ 아니다/ 0명
⑤ 전혀 아니다/ 0명

13. 소그룹은 영적 가족임을 체험하고 영적 재생산을 실현하는 데 적격이다.

① 매우 그렇다/ 25명(83퍼센트)
② 그렇다/ 5명(17퍼센트)
③ 조금 그렇다/ 0명
④ 아니다/ 0명
⑤ 전혀 아니다/ 0명

14. 소그룹 안에서 사역을 분담함으로써 은사를 발견할 수 있고 은사껏 일할 수 있다.

① 매우 그렇다/ 19명(63퍼센트)
② 그렇다/ 11명(37퍼센트)
③ 조금 그렇다/ 0명
④ 아니다/ 0명
⑤ 전혀 아니다/ 0명

부록 2

가정교회 준비에 관한 자료들

1. 가정교회란?

화평교회 비전 세미나 후에 성도님들 중에 가정교회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교회에서 9월쯤부터 시작하고자하는 가정교회는 현재 우리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구역성경공부(구역모임)의 형태와 비슷하나 내용 면에서는 다른 점이 많이 있는 소그룹 관계중심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평신도들을 지도자로 훈련시켜 각 가정교회로 파송, 사역하게 하는 제도인데 여기서 '가정'은 부모와 자녀들의 단위인 한 가정이 한 교회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정에서 돌아가며 모인다는 뜻과 한 가족처럼 친밀하고 예수 안에서 형제애를 주고받는 아름다운 관계를 뜻하기 위하여 '가정교회'라 칭하는 것입니다. 처음 조직할 때는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5명-8명 정도로 구성하되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해 주지 않고 성도들에게 선택권을 주어 스스로 원하여 모인 편한 그룹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선택기준은 나중에 목회자 코너를 참고 바람) 모이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번 금요일 밤이나 주일 오후로 하며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되 부부는 같은 가정교회에 소속해야 합니다. 가정교회가 부흥 발전하여 숫자적으로 12명-14명쯤 되면 분가하게 되는데 이때 지도자(가장)는 초신자 등 약한 분 몇을 데리고 나가 새로운 가정교회를 개척하게 되며 기존의 가정교회는 그 동안 같은 가정교회에서 훈련받아 온 예비가장이 맡게 됩니다. 모임이 시작되면 우선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설거지는 시간절약을 위해 맨 나중에) 찬양의 시간을 갖다가 지난주 설교말씀을 일주일동안 어떻게 삶에 적용했는지를 나눕니다. 또 일주일 동안 감사했던 일, 어려웠던 일, 승리했던 일 등을 나누고 20분 정도의 성경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제목을 나누어 적고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며 가정교회

에 연결된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한 기도나 선교보고, 전도보고 등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가정교회에서는 삶을 깊이 나누며 서로 돕고 섬기는 데 힘써야 하므로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모임에 국한되지 않고 구성원들의 상황에 따라 민첩하게 교류하며 급한 기도 등으로 섬겨야 합니다. 가정교회가 아름답게 자리를 잡아가면 우리 삶에 온갖 문제들을 가정교회 가족들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서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많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정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이며 진정한 교회의 모습임을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교회야말로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 화평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도록 함께 기도하고 쓰임 받는 일군 되게 준비합시다.

2. 가정교회 비전 세미나를 마치고

저는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하고 나서 구역과 기관의 지도자들의 반응을 살펴볼 때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가정교회가 대단히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평신도지도자에게는 대단한 헌신과 수고가 따른다는 것을 인하여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았고 두 번째는 아직 가정교회에 대한 비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에서 오는 소극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메시지나 기도회, 각종 모임 등 기회가 되는대로 소그룹의 필요성과 가정교회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화평교회 성도 모두가 그리스도안에 한 공동체로서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정교회가 성경적으로 이상적인 아름다운 교회 모습임을 발견했을 때 저는 너무 기쁘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했고 그 동안 목회사역을 하면서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 받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는 어떠한 고생과 수고도 아끼지 않아야겠다고 결심하면서 기도해왔습니다. 지금 우리교회 정도의 규모만 해도 성도간에 서로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영적으로 깊이있게 돌보거나 삶을 함께 나눔으로써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바람직한 성도의 교제를 제대로 누리는 숫자는 전체 교인에 비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제 가정교회가 잘 정착이 되면 이런 면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현재 나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화평교회 비전들을 글이나 그림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

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화평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싶고 교회를 통해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화평교회를 세워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 귀한 일을 앞에 두고 성도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저에게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같은 충성스런 가정교회 지도자 30명을 세워 주소서"

3. 구역모임에서 가정교회로

10년 이상 진행되어오던 구역성경공부모임이 이번 주로 마무리되고 8월까지 방학에 들어갑니다. 이제 9월부터 실시되는 가정교회 관계로 기존의 구역모임이 가정교회형태로 바뀌어지면서 지도자나 구성원이나 모임 내용 등 많은 변동이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구역인도자의 3분의 2정도가 여성도들이었지만 가정교회 지도자(가장이라 부름)들은 95퍼센트 이상이 남자성도로서 각 가정교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동안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말씀과 기도와 돌봄으로 구역원들을 섬기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를 기억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각 가정교회에 들어가셔서 지금까지처럼 훈련된 일꾼으로서 가장을 적극 협력하며 가족들(가정교회 식구들)을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년간 우리교회 식구들은 구역모임에 참여하며 많은 변화와 성장을 했습니다.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귀납법적 성경공부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고 얻었고 함께 나누고 체험하였습니다. 그간 공부한 교제들은 생명의 삶, CCC의 10단계, 창세기, 출애굽기, 에베소서, 마가복음, 야고보서, 사도행전 등이었고 매주 교회에서 훈련받은 인도자들이 각 구역에 나가 교제, 양육, 전도에 역점을 두고 모임을 가진 결과 우리 모두 아는 바대로 상당한 열매들이 있어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많아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며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해졌습니다. 구역모임을 통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화평교회를 통해 하나님나라의 일을 계속 진행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한 걸음 나아가 가정교회를 탄생시켜 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 차례 지도자세미나와 메시지, 목회자코너에서 밝힌 대로

가정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며 10주년을 지내고 21세기를 앞둔 현 시점에서 추구해야할 바람직한 관계중심, 소그룹중심의 교회이며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이제 이 일을 우리 모두가 준비합시다. 마음으로, 기도로, 참여함으로 협력합시다. 화평교회에 속한 식구들은 한 분도 이 대열에서 이탈하는 자 없기를 기도합니다.

4. 가정교회 실시에 따른 변경사항

9월부터 가정교회 실시와 더불어 기존의 부서나 예배시간 그리고 훈련프로그램 등을 조정합니다. 먼저 주일예배시간이 1부 7시 30분이 10시 30분으로, 2부 11시에서 12시로, 오후 찬양예배시간이 없어지고 그 시간에 가장들의 훈련이 있으며 수요집회가 주일 오후찬양예배의 성격으로 바뀝니다. 유초등부 예배도 장년부 주일예배시간과 동시에(10시 30분, 12시) 드릴 계획이나 교육관이 충분히 준비되기까지는 9시와 10시 30분에 드리게 됩니다. 남전도회나 여전도회 각 기관도 현재 조직은 전면 폐지하고 여전도회 모두를 통합하여 한 기관을 만들어 전체적인 교제나 봉사가 필요할 시만 소집하여 활동하게 됩니다(남전도회도 마찬가지임). 제직회 각 부서도 없어짐과 동시에 교인 모두 누구나 자원하여 봉사할 수 있는 봉사그룹에 가입하여 실제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봉사그룹에 대한 유인물은 추후 배부 예정). 기존의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새가족반, 양육반, 제자훈련반, 부부성장반, 전도폭발훈련반, 지도자반 등)은 거의 대부분 그대로 진행됩니다.

각종 회의는 주일에 하지 않고 평일에 하게 되고 금요기도회 대신 매일 저녁기도회가 있어 새벽이든 저녁이든 원하는 기도시간에 함께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기관이나 시간,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는 이유는 첫째, 가정교회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최선의 것을 위하여 차선의 것을 없애거나 줄이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존의 유명무실한 부서들을 과감히 없애고 교회의 목적에 맞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의식을 가지고 각 집회에 적극 참여하시고 더욱 열심히 배우는 일과 섬기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5. 선택권을 드립니다.

9월부터 가정교회가 실시됨에 따라 가장후보 수련회를 지난 주간에 서현수양관에서 1박2일로 가졌습니다. 총무를 포함하여 45명이 참석했는데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전개될 가정교회가 어떤 모습일지를 미리 볼 수 있었던 기회였고, 그 맛을 조금 볼 수 있었던 수련회였습니다. 세미나, 고구마 라면파티, 기도회, 윅샵 등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이루어 갈 가정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를 주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도여러분 앞에 가장(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가정교회 선택을 위한 유인물을 배부해 드릴 것입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주와 그 다음주 안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을 선택할 때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십시오.

② 평소에 존경하고 본받고 싶었던 분을 택하십시오.

③ 사는 지역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편하게 대할 수 있는 분을 택하십시오.

④ 현 구역이나 친분관계에 매이지 마십시오.

⑤ 한 가장을 너무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면 새가족에게 우선권을 드릴 것이므로 2, 3, 4순위까지 표기해 주십시오.

⑥ 동역자의 심정으로 적극 협력하고 싶은 가장을 택하십시오.

6. 가정교회 편성은 이렇게!

지난 주일까지 약 125가정이 가정교회를 신청하였습니다. 200여 가정 중 60퍼센트 이상이 되는데 이번 주일까지 하면 80퍼센트 가까이 참여하리라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실시해오던 구역모임의 참여율은 전교인의 45퍼센트 선을 넘지 못했었습니다. 여기에 비할 때 화평가족들의 가정교회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어느 가장은 선택한 성도들이 많고 어느 가장은 적었으나 신청자가 없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상시 존경하고 본받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가장을, 어떤 분들은 평상시에 거의 알지 못했던 가장을, 또 어떤 분들은 가장 교제를 많이 하고 있던 편한 분을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아직 가장을 선택하지 않으

신 분들은 이번 주간 중에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참여토록 권면할 것입니다. 그래도 참여하지 않는 성도님들은 가장들이 명단을 보고 접근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주일에는 가정교회편성표가 성도여러분에게 배부될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은 자신이 원하는 가정교회가 배정되지 않아 불만스러울 수도 있고 어느 가장은 자신이 기대했던 성도가 배정되지 않아 섭섭할 수도 있을지 모르나 성도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배정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각 가정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역점을 두고 배정할 것이며 인원은 10명 이내로 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본인이 원하는 가정교회가 배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많이 몰리는 가정교회는 초신자나 새가족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겠습니다. 성도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바라며 특히 저를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바라며 특히 저를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가정교회를 잘 편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고민하며 힘들게 짠 가정교회이니 만큼 혹시 가장이나 구성원이 마음에 안 드셔도 좋아하고 적응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7. 가정교회 가장(총무) 선택 신청서

가장 ＼ 총무 ／ 순위	고광석 ＜장의명＞	원종구 ＜이춘화＞	윤정일 ＜유기호＞	강석하 ＜김선희＞	김형덕 ＜김양림＞	윤정석 ＜허영순＞	성억기 ＜가경희＞	이연구 ＜이상남＞	박한진 ＜이기수＞	박래백 ＜오미령＞	김대선 ＜김정님＞	양승준 ＜이선희＞	최보하 ＜권순이＞	이원구 ＜유송자＞	김정용 ＜김현숙＞	박미종 ＜추진희＞	성환영 ＜고미숙＞	문인석 ＜김명신＞	심정영 ＜서정순＞	김안현 ＜박미숙＞	소부록 ＜낯＞	김해자 ＜낯＞	이희정 ＜낯＞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참고 1. 해당란에 O표를 하십시오. <낯>은 낯에 모이는 가정교회입니다.

2. 가장을 선택할 때는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평소에 존경하고 본받고 싶었던 분을 택하시되 현구역이나 지역, 나이, 친분관계에 얽매이지 마시고 동역자

의 심정으로 적극 협력하고 싶은 가장을 택하십시오. 한 가장을 너무 많이 선택하시면 새가족에게 우선권을 드릴 것이므로 제2, 제3, 제4순위까지 꼭 표기해 주십시오.

본인은 위와 같이 가정교회 가장(총무)선택을 신청합니다.

1998년 7월 26일

신청인 : _____ 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평교회

8. 늦어도 8월 9일까지

오늘 가정교회 가장들을 임명하고 가장 선택을 위한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앞으로 고와 낙을 같이하며 동역할 가장을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8월 9일)까지 서면으로 신청을 받습니다(본당 입구에 신청서함 설치). 지난 주일에 목회자 코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도하시면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는 지역, 나이, 현재구역, 친분관계 등에 매이지 말 것을 부탁드렸는데 평상시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을 선택할 때 적응이 빨리 되는 유익이 있으나 오히려 새로운 관계들로 맺어진 가정교회가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가정교회 정기모임은 일주일에 한 번 저녁시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낮에 할 수 있습니다. 가정교회 인원은 6-8명 정도로 시작하여 12명 이상이 되면 분가하게 됩니다. 분가할 때는 가장이 가원 중 3-4명을 데리고 나가 다시 개척하게 되고 기존의 가정교회는 그룹내의 예비가장이나 교회에서 파송한 훈련된 성도가 가장이 되어 사역을 잇게 됩니다.

아무쪼록 홀로 신앙생활하는 외로움을 버리고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된 형제애를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가정교회로 오십시오.

이제까지 구역모임에 참여하지 않았던 성도님들, 혹은 화평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성도님들도 이번 기회에 결단하시고 절차를 밟아 가정교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좇아 새 역사의 아름다운 출발이 여러분 모두를 통해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9. 가정교회를 편성하고 나서

몇 개월 동안 준비 해오던 가정교회 편성이 지난주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전

교인의 80퍼센트 이상이 가정교회에 신청을 했지만 20퍼센트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분들의 대부분은 새 가족, 청년, 장기 결석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인적으로 권면하거나 각 가정교회 지도자들에게 위탁하여 가정교회에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가정교회 편성을 하고 나서 큰짐을 벗고 난 기분도 들었지만 이 일을 위하여 그간 적극 기도하며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본인, 자신이 원하는 가장(제1순위, 2순위 등)으로 배정되지 않았어도 이러쿵저러쿵 불만스러운 말 한마디 표현하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 감사하기도 하고 굉장히 미안하게도 생각되어집니다. 속으로는 서운한 면도 있겠지만 나의 심정을(목사가 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각 가정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편성했으리라 믿고) 이해해주는 우리 화평 가족들이 고맙고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지난주일 오후에는 가정교회 파송예배를 드렸습니다(150여명 성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가정교회의 지도자들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이 시대 자신을 충성 되이 여기사 이 직분 맡겨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뜨겁게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저는 가정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가정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교회에 주신 비전이며 우리가 이루어 가야할 건강한 교회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간에 가정교회에 첫 모임을 가졌는데 결과가 기대 되어집니다(오늘 오후에 가장 모임에서 가정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어 보면 알겠지만).

화평의 가족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도하면서 적극 참여하면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영광스런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한마음 한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갑시다.

10. 가정교회 첫모임

온 교회가 몇 개월 전부터 기도하며 준비해오던 가정교회 첫모임이 지난주간에 있었습니다. 설레임과 기대와 부담감 속에서 모여진 첫모임의 결과는 "심히 좋았더라"가 80퍼센트 이상이었습니다. 그외에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임", "시간이 너무 길더라", "아기를 돌봄에 문제가 있더라", "성경공부시간이 너무 짧더라" 등의

반응이었습니다. 새로 구성된 모임이라 아직 서먹서먹할 관계인데도 가장과 총무들의 기도와 헌신적인 사전 노력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좋은 분위기에서 첫모임을 마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시간문제는 가장의 재량권에 맡길 것이고 아기들 문제는 가원들이 돌아가면서 다른 방에서 데리고 놀든지 중고생이나 고학년아이들에게 부탁하든지 어린이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준비하여 가정교회에 공급하는 등 다같이 노력해보고 연구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아기가 있는 부모는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늘 따르지 않겠습니까? 서로 이해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공부가 짧다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동안 구역모임을 성경공부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짧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말씀은 공부하는 만큼 지키는(적용)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지난주 설교말씀, 가정교회 성경공부 등) 성경을 더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새가족반이나 신앙세미나, 제자훈련반 그리고 앞으로 실시할 양육반(13주)등을 통하여 말씀을 공부하며 훈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실시해오던 구역성경공부모임에서 출석률이 가장 좋았던 때가 137명이었는데 이번 가정교회 첫모임은 61명이 더 많은 198명이었습니다. 피곤하고 바쁜 중에도 각 가정교회로 모여든 성도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도들의 관심 속에 첫발을 잘 내딛었다고 보아집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앞으로 더욱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할 것이며 주도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정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즐거워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뜨거운 사명감으로 맡겨진 사역에 열중하고 있는 가장과 총무들 그리고 가정을 열어 주의 백성을 공궤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님의 것들로 갚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11. 첫 가정교회 준비사항

① 기도로 준비한다(하루 20분 이상)

② 연락을 취한다.

③ 각 순서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를 묵상하며 생각해 둔다(목회자 코너를 참고).

④ 이전 구역 모임의 이미지를 갖지 않도록 좋은 분위기를 만들라(장애물을 제

거).

⑤ 어린아이들을 누가 책임 질 것인가를 생각해 두라.

⑥ 새 가족이나 연약한 자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해 두라.

⑦ 식사를 준비한다(설거지는 나중에).

⑧ 식사 후 찬양한다(5곡 정도).

⑨ 어린 시절 기억에 남는 일을 한 가지씩 나눈다.

⑩ 지난 주 설교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는가?

⑪ 성경공부(25분 정도).

⑫ 지난 한 주간 혹은 요즘 기뻤던 일, 감사했던 일, 힘든 일, 기도제목 등을 돌아가며 나눈다(가장이 정답식으로 대답하지 말라).

⑬ 나눈 제목 가지고 다같이 기도한다.

⑭ 헌금(선교사 위해) - 찬양하면서

⑮ 광고(가정교회 소식, 교회소식, 선교(전도) 소식, 가정교회 이름).

찬양 후 가장이 기도한 후 마친다.

12. 가정교회 사역 보고서

가정교회 사역 보고서

화 평 교 회 보고날짜 : 년 월 일

가정교회명 ( )	가장 성명 ( )	
모인 날짜 :	모인 장소 :	모일 장소 :
출석 가원	결석 가원	처음 참석자 혹은 방문자
		총출석 : ( ) 명
		결 석 : ( ) 명
		성 경 : ( ) 장

※ 아래 란에 1주일 동안 사역한 내용이나 특기 사항을 써 주십시오.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역사, 감사 조건, 어려운 일, 양육반, 제자훈련반, 새 가족반 신청 등)

부록 3

교육과 훈련 및 사역에 대한 현장 스케치

1. 새 가족반(5주)을 마치고

××가정교회 ○○○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하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나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만남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바르게 그리고 더 잘 알기 위해 새 신자반 공부를 하게 되었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기초 없이 나만을 위해 쌓아놓은 담 안에서 해온 믿음 생활을 새 신자반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공부를 통해서 이제는 모두 헐어 버렸으며 말씀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믿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며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배웠다.

새 신자반을 초신자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기존의 성도들은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과정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구원의 확신과 바람직한 믿음생활 그리고 교회생활의 중요성, 담임목사님의 목회철학과 화평교회의 비전 등을 깨닫게 되었기에 5주 과정이 나에게는 너무도 소중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한 계획을 계시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작고 보잘 것 없는 나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기로 감히 결단한다.

주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30분간 새 신자반에서 공부를 하고 11시 오전예배에 참석하기를 5주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남편과 함께 무사히 새 신자반 교육을 마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2. 양육반을 마치고

××가정교회 ○○○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결혼하기 전에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지냈던 첫사랑을 늘 그리워하며 회복되길 기도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직장 문제로 이사를 자주 다니게 되어 한 교회에 정착을 하지 못한 상태로 저는 늘 기도하기를 신실하신 목사님을 만나게 해 주셔서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꿈꾸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주셨고 저는 우리 건강한 화평교회의 한 지체로서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균형잡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양육과정을 공부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길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양육반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믿음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지 못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또 무슨 말씀들을 주실까 기대를 하며 한 주 한 주를 기다리게 되고 그 말씀들을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화평교회의 사역비전인 '평신도를 지도자로 세우며, 소그룹 중심으로 성숙해가는 교회'에 합당한 한 지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를 풋대삼아 열매맺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이제까지 양육반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목사님, 또한 아름다운 교제와 웃음을 나눈 자매들과 아이를 잘 돌보아주신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 제자훈련을 마치고

××가정교회 ○○○

할렐루야! 먼저 제자훈련과정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제자훈련과정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딤후 2:20-21)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일은 준비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동기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리로 남아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많은 무리가 아니라 열두 명의 제자에게 집중되어 있었으며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제자들을 삼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제자훈련을 받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은 제자로서의 삶과 실생활의 차이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오랜 교회생활에 타성에 젖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훈련은 나의 그러한 삶을 완전히 부정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으로의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기도, 증거, 교제, 말씀 등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 예수님의 삶을 표본으로 삼아 예수님의 삶을 본받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제자훈련은 단순한 성경공부 모임도 아니며 그렇다고 일상의 친교모임도 아니었습니다. 제자훈련은 실생활과 성경적인 삶을 일치시키는 훈련이며 매주 모임을 통해 그러한 훈련을 점검하고 전략을 세우고 서로 격려하였습니다.

제자훈련을 처음 시작하였을 때만 하더라도 각자의 속마음을 내어놓지 못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솔직한 상태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모두 내어놓게 되었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내나 가까운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자훈련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의 참 맛과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으며 도한 많은 기도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변화하게 된 또 한가지는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과거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섬김 받기를 더 좋아했었습니다. 특히 군대 시절 장교로서 복무하는 동안 부하들에게 명령과 지시만 하던 습관이 배어 섬김의 삶이 가장 약했었는데 제자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섬김의 자세를 배우게 되었고 저는 그러한 삶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후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아무튼 제자훈련의 유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4. 부부성장반

××가정교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싶은 당신에게

겨울입니다. 아침잠에서 깨어나 유리창에 낀 하얀 성에를 봅니다. 겨울은 날씨가 추워야 제 맛이라고 하지만 오늘도 미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려나 봅니다. 남들은 한 해를 보내며 아쉬움을 달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가슴 벅찬 일이 있었습니다. '둘이 함께 일을 했다는 것.' 사람들은 말합니다. '결혼은 구속이요 가족은 족쇄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그렇게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함께 할 사람이 있기에 구속될 수 있고, 같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기에 족쇄가 채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 이제는 더없이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혼 초에 약속처럼 이런 말을 했었지요. '사랑보다는 서로 존경을 하면서 살아가자고' 사랑은 언젠가는 식어질 수 있고 변할 수 있지만 존경은 영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서로에게 던졌던 화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혼생활에서 존경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언제까지나 감싸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 행동들은 허점으로 변해갔고 상대는 너무나도 약점 투성이의 형편없는 존재였습니다. '치약 튜브는 왜 아무 곳이나 누르면서 짜는 거야!' '퇴근 후 신발은 한번도 정리된 적이 없어.' '지난 추석에 어머니가 싸주신 부침개는 또 냉동실에서 얼음과자가 됐군' '화장실의 휴지는 나만 쓰나, 항상 내가 갈아 끼우게.' '아이의 새 신발은 자선사업용인가 식당에만 가면 놓고 오는군.' 아침식사가 그리도 그리워 교육 기간 중에는 밥주걱을 선물하기도 했으나 아직까지도 그 주걱으로 아침 밥공기 한번 채워주지 않은 당신입니다.

아!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던 연단은 새로운 삶의 초석으로 다져졌습니다. 12주간의 과정 속에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스스로 완벽할 수 없는 존재인 나를 당신 앞에서는 너무나 완벽한 존재인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을 선택한 것은 내가

아니었고 주님이 예비해 주신 것이었으며 그 예비는 좀더 완벽한 나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과정을 마치며 많은 열매들 중에게 다음과 같은 것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가정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생활의 중심에 세우고 가장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 묻는다면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라고 증거합시다. 누군가 존경하고 본 받을 만한 가정이 있냐고 질문한다면 우리 부부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은 완전한 존재, 완벽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합시다. 서로가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사랑합시다.

2000년 한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는 더욱 추운 날씨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는 추위가 계속될 때 이번 부부성장반에서 배운 사랑의 주춧돌 위에서 더욱 슬기롭고 따뜻하게 이 겨울을 헤쳐나갑시다.

이천년 십이월 이십일

부부성장반을 마치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사랑하는 남편이

5. 가정교회 사역을 하면서

××가정교회 ○○○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가정교회의 가장과 총무로 부르셨을 때 결단하는 일이 어려웠던 것은 나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다. 아이를 낳아야 하고, 몸조리 후 이사를 가야하며, 갓난아기를 키우면서 일해야 하는 등 여러 일들이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는 "NO"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자신 없다"는 나의 입장을 남편에게 밝히고, 최종적인 남편의 결정에 따르겠노라고 말한 뒤 기도만 하고 있었을 때, 뜻밖에 남편은 목사님의 제의를 수락한 것이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놓고, 그 때는 사실 걱정스러웠다.

그후 가정교회의 구성원들이 배치되었을 때 다시금 걱정과 불만들이 솟구쳐 올

라왔다. 사람에 대한 불만이 아닌, 이동거리가 넓게 퍼져있고 어린 아이들이 딸려 있어 기동력이 떨어지는 점이며, 불신 남편들을 둔 집사님들이 많아서 모임 장소 제공이나 참석에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점, "Key Men"역할을 해줄 헌신된 부부가 없다는 점 등등... 할 이유보다 못할 이유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 계속 말씀하시고 계셨다. 목사님의 확신과 열정은 끝이 없어 메시지로나 주보 글로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나는 주섬주섬 그 말씀들을 나의 것으로 주워들고 있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전 10:33)는 구절은 현재 믿음 생활이나 가정생활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웠기에 더 이상의 그 무엇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았던 나에게 망치로 내리쳐지는 말씀이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닌, 나의 적은 수고와 헌신으로도 구원 얻게 될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소서. 그리고 다섯 달의 시간이 흘렀다. 막상 가정교회가 진행되면서 새롭게 발견하는 것은 가정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가졌던 걱정들이 실제로는 반의반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것은 아마도 기도하는 자들 앞에는 어떤 불가능도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여건들을 다스려주신 까닭이리라.

모이는 일이 정착되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일이 자연스러운 것이 된 지금, 그동안 우리 가정교회에서 제일 많이 변화된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닐까 한다. 갓난아기를 데리고서도 집안을 open하여 모임 준비하는 일이 나를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을 돕는 도우미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고 있으며, 가원들을 전화로 만나주고, 상담하며, 기도해주는 일이 내 생활을 얼마나 목적있고, 의미있게 만들어 주었는지 모른다.

"그런 일상의 지극히 작은 일이 간증이 되는 줄 몰랐어요." "모임을 갖기 전에는 반드시 믿는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지 않았는데, 모임을 가지면서 배우자간에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집사님 간증거리가 또 생겼네요!" 등등 가원들이 조금씩 관점이 바뀌고, 의식이 생기는 것을 본다. 그것이 하나 둘 나의 기쁨이 되고 있다.

나는 요즈음 하루종일 입에서 찬송가가 흘러나오고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작하고, 중얼중얼한다. 참 신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이 무얼까? 생각해보면 그건 단연 가정교회 때문일 것이다. 한 주간의 중심이 가정교회라는 착각이 들기도 한다.

가원들을 만나는 반가움, 들어주는 즐거움, 다시 한 주일을 가다리는 기대감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교회가 서서히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본다. 올해에는 가원들의 불신 남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우리 모임에 이끌기까지 기도하면서 힘쓰려고 하며, 우리 가원들 간에 서로 더욱 친밀해지고, 가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가까워져서 좋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터를 다지도록 돕고자 한다.

우리 부부의 영성과 인격과 기도의 깊이가 날로 달라져서, "유는 유를 낳는다"고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속출할 것을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서적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 1999.

이성희. 교회 행정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이원규. 한국교회의 현실과 전망.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창립대회 주제강연, 1998.

이원설, 문영식. 21세기를 향한 비전과 리더십. 서울: 신망애 출판사, 1995.

정성구. "차세대를 위한 제자훈련의 평가와 전망." 목회와 신학. 1995년 7월호.

최상태. 새 가족반 성경공부. 서울: 화평교회 출판부, 1997.

_____. 균형잡힌 신앙생활. 서울: 화평교회 출판부, 1999.

_____. "평신도를 깨운다." 46호 (2000).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 1999.

2. 번역서적

Bavinck, Herman. 하나님의 큰 일. 김영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Beckham, William A. 제2의 종교개혁. 터치 코리아 사역팀 역. 서울: NCD 출판사, 2000.

Cedar, Paul. 섬기는 지도자. 김성웅 역. 서울: 디모데 출판사, 1998.

Donahue, Bill. 소그룹이야기. 송영선 역. 서울: 디모데 출판사, 1997.

Hanks, Bille. 제자훈련.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Hanks, Bille and William Shell. 제자훈련. 박광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Hull, Bill. 모든 신자를 제자로 삼는 교회. 박영철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4.

Hybels, Bill.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 김성웅 역. 서울:두란노, 1998.

Icenogle, Gareth W.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안영권, 김선일 역. 서울: 옥토출판사, 1997.

Maxwell, John. 리더십의 21가지 불변의 법칙. 채천석 역. 서울: 청우출판사, 1999.

Ogden, Greg. 새로운 종교개혁 이야기. 서울: 미션월드, 1998.

Peace, Richard. "소그룹 전도와 목회." 강의,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99년 봄.

Ralph, Neighbour W. 셀목회 지침서. 장학일 역. 서울: 서로사랑, 1999.

Stevens, R. Paul.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이철민 역. 서울: IVP. 1995.

Warren, Rick. 새들백 교회 이야기. 김현희 역. 서울: 디모데 출판사, 1997.

Watson, David. 제자도. 문동학 역. 서울: 두란노, 1994.

3. 외국서적

Banks, Robert and Julia Banks. The Church Comes Home. Urbana: Albatross, 1986.

Banks, Robert. Paul's Idea of Community: The Early House Churches in Their Historical Setting.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95.

Berkhof, Louis. Manual of Christian Doctrine. Grand Rapids: Eerdmans, 1993.

Branick, Vincent. The House Church in the Writings of Paul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89.

Vita of
Sang Tae Choi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Hwapyung Presbyterian Church, Kyung-gi, Korea

Personal Data

Birthdate : September 25, 1954

Birthplace : Choongchung Namdo, Korea

Marital Status : Married to Young Sun Cho
with two Children, Jin Sung and Hyun Sung

Home Address : #350-1 Byeok San Apt. 102-101 Ju Gyo Dong,
Deok Yang Gu, Go Yang City, Kyung-gi, Seoul, Korea

Phone : 031-962-0371

Denomination : Presbyterian General Assembly(Hapdong)

Ordained : October 10, 1985

Education

B.A. Anyang Christian University, Kyung-gi, Korea, 1980

M.Div.: Chong Shin Theological Seminary, Seoul, Korea, 1984

D.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CA, 2001

Personal Experience:

1/1988 to present Senior Pastor of Hwapyung Presbyterian Church, Kyung-gi, Korea

3/1976 to 2/1982 Assistant Pastor of Kangnam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12/1983 to 1/1985 Assistant Pastor of Sehyun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2/1985 to 12/1987 Assistant Pastor

of Dongwon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